

3

우리는 다문화 시대에 살고 있다

3-1

우리 역사 속 다문화

3-2

다문화 시대 살아가기



3 우리는 다문화 시대에 살고 있다.

1. 우리 역사 속 다문화

가. 수업 요약

| | | | | |
|-------------|-----------|--|---|--|
| 수업유형 | | 협동 학습 | 총 차시 | 2 |
| 주제 | | 우리 역사 속 다문화 | | |
| 핵심 질문 | | 우리 역사에서 이주민과 원주민이 만난 흔적에는 무엇이 있는가? 전근대 시대 우리 사회에 이주해 온 이들은 어떤 이유로 이주하였는가? | | |
| 해당 과목 및 단원명 | | 「한국사」 1. 전근대 한국사의 이해 | | |
| 성취기준 | | <p>[10한사01-01] 고대 국가의 성립·발전 과정을 파악하고, 지배 체제의 성격을 이해한다.</p> <p>[10한사01-02] 고대 사회의 종교와 사상을 시기별로 살펴보고 정치·사회적 기능을 파악한다.</p> <p>[10한사01-03] 고려 시대 통치 체제의 성립과 변화를 국제 질서의 변동과 연결 지어 파악한다.</p> <p>[10한사01-04] 다원적인 사회 구조와 다양한 사상적 기반 위에 고려 사회가 운영되었음을 이해한다.</p> <p>[10한사01-05] 조선 시대 세계관의 변화를 국내 정치 운영과 국제 질서의 변동 속에서 탐구한다.</p> <p>[10한사01-06] 조선 시대 신분의 구성과 특성을 살펴보고, 양반 이후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하면서 신분제에 변동이 나타났음을 이해한다.</p> | | |
| 성공 역량 | 인천교육 핵심역량 | <input type="checkbox"/> 자기관리역량 <input checked="" type="checkbox"/> 문제해결역량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의사소통역량 <input checked="" type="checkbox"/> 협력역량 | <input checked="" type="checkbox"/> 다양성존중역량 |
| | 교과역량 | <input checked="" type="checkbox"/> 비판적·창의적 사고 역량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공동체·대인 관계 역량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료·정보 활용 역량 <input type="checkbox"/> 자기 성찰·계발 역량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의사소통 역량 <input type="checkbox"/> 문화 향유 역량 |
| 설계 의도 | | <p>OECD에서 다문화·다인종 국가로 분류하는 기준은 외국인이 총인구 대비 5%를 넘을 때이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총인구 대비 4.3%로 우리나라도 다문화·다인종 국가에 근접해가고 있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일부 지역은 이미 다문화 사회로 진입해 있다. 이를 반영하듯 다양한 매체에서는 그들의 이야기가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담기고 있다.</p> <p>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은 '새롭게 들어온 다양한 사람과 그들의 문화를 우리가 어떻게 마주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맞닿게 한다. 지금과 같은 경제적 세계화와 국제 이동이 자유로운 시대의 변화에는 못 미치더라도 우리 역사 속에는 이미 다양한 문화교류와 이주자들과 원주민들이 만나온 역사가 존재한다. 우리나라의 초기 건국 신화를 살피는 과정에서 '우리'가 형성되기까지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고 흩어지며 지금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혈연집단의 흔적을 기록한 성씨를 살펴보면 여러 원인으로 이주한 이들의 사연과 유형, 그리고 최근의 변화를 통계적으로 확인해 보고자 한다.</p> | | |
| 주요 산출물 | | 모둠 학습지 작성 / 발표 | | |

나. 수업 개요

| 교수-학습 지도안(1차시-우리나라 건국신화에서 다문화를 읽다) | | |
|------------------------------------|---|--|
| 단계 | 교수·학습 과정 | 교수·학습 자료 |
| 도입 (15분) | <p>▶ 학습 목표 안내</p> <p>학습 목표</p> <p>1. 우리 역사 속 건국 신화에서 이주민과 토착민의 결합을 통한 건국 과정을 말할 수 있다.</p> <p>▶ 순수한 혈연적 민족주의는 가능한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돌프 히틀러의 결혼식에 드러난 인종차별주의(영상) - 뉘른베르크 법과 나치의 유대인 구분법(PPT) - 히틀러가 티베트에 과학자를 보낸 사연(PPT) <p>■ 모둠 활동 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뉘른베르크법 1조 1항의 의미 파악하기 - 아돌프 히틀러는 자신이 우월하다고 주장한 순수한 아리아인이었을까? <p>활동 도움말</p> <p>1. 지문을 읽고 모둠별 답안 작성 시간을 준다. 지문의 어려운 용어는 모둠에서 직접 검색(교과서, 노트북, 스마트폰 등 기기 이용)을 통해 찾아보도록 하고,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도록 하게 한다.</p> <p>2. 모둠별 답안을 칠판에 적도록 한다. 정해진 시간에 답안 작성이 충분하지 못한 모둠의 경우 칠판에 작성 중 기존 답안 수정도 가능함을 이야기한다. (단, 비대면일 경우에는 패들렛 등의 협업 도구를 이용하여 전체 학급에서 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p> <p>3. 각 모둠의 답안에 대해 교사가 피드백하며 격려한다.</p> | <p>자료 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 활동지 • 프레젠테이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상: 히틀러의 결혼식 - 영화 '다운폴' 중에서 https://www.youtube.com/watch?v=jt3wYtuhl2s • 프레젠테이션 - 유대인의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히틀러가 티베트에 보낸 과학자  |
| 전개 (30분) | <p>① 우리나라 건국 신화에서 다문화를 읽다.</p> <p>▶ 우리나라의 건국 신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군신화(PPT) - 가야의 건국신화와 허황후(PPT) - 고구려의 건국신화 - 신라의 건국 신화 <p>■ 모둠 활동 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국 신화로 추정할 수 있는 역사적 사실 추정하기 - 우리나라 건국 신화 속 천손 신화와 난생 신화 - 건국 신화에 보이는 이주민과 토착민과의 결합방식 | <p>자료 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레젠테이션 - 고구려 벽화 속 곰과 호랑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와 허황후의 연결고리  |

정리
(5분)
및
성찰

▶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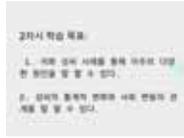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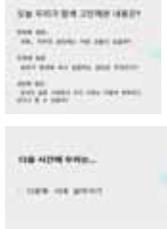
- 혈연적으로 순수한 단일민족은 존재할까? 그 이유는?
- 사회 구성원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민족은 혈연 이외에 어떤 것들이 더 포함되어야 할까?

▶ 차시 예고

- 우리나라의 성씨에서 다문화 읽기
- 성씨 관련 통계에서 사회 변화 읽기

자료 3 • 프레젠테이션



| 교수-학습 지도안(2차시-우리나라 성씨에서 다문화를 읽다) | | |
|----------------------------------|--|--|
| 단계 | 교수-학습 과정 | 교수-학습 자료 |
| 도입 (10분) | <p>▶ 학습 목표 안내 및 건국 신화 속 다문화 읽기 확인</p> <p>학습 목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귀화 성씨 사례를 통해 이주의 다양한 원인을 말 할 수 있다. 2. 성씨의 통계적 변화에서 사회 변동의 요인을 말 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돌프 히틀러는 순수한 아리아인이었나? - 전 세계에 혈연적으로 순수한 민족은 존재하는가? - 우리나라의 건국은 토착민에 의해서만 이루어졌는가? | <p>자료 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 활동지 • 프레젠테이션  |
| 전개 (35분) | <p>② 우리나라 성씨에서 다문화를 읽다.</p> <p>▶ 베트남 황족 화산 이씨 영상 보기</p> <p>▶ 대표적인 우리나라 귀화 성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트남 황족의 후손 화산 이씨 - 조선 건국 과정의 주역 여진족 이지란, 청해 이씨 - 원에서 귀화한 회회인 장순룡, 덕수 장씨(PPT) - 임진왜란 시기 귀화한 사야가 김충선, 사성(賜姓) 김해 김씨 - 네덜란드 귀화인 벨테브레, 한국명 박연 <p>■ 모둠 활동 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 및 귀화 사례를 유형화하기 <p>▶ 우리나라 성씨 관련 통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나타난 성씨의 개수 ~ 2015년 인구 및 주택 센서스에 집계된 성씨의 개수 <p>■ 모둠 활동 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0년대 성씨의 급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요소 2가지를 찾아 이유 적어보기 <p>▶ 성씨, 본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씨, 본관의 개념 - 새로운 성씨, 팜·쩨·굴씨 등 등장 <p>■ 모둠 활동 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씨의 급증이 미래 우리 사회에 끼칠 수 있는 긍정적 요소를 찾아 적어보기 | <p>자료 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 활동지 • 영상 내안에베트남이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MsdNw3uV3mo&t=11s • 프레젠테이션 - 신라 고분에서 만나는 회회인  |
| 정리 (5분) 및 성찰 | <p>▶ 정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화, 이주의 원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 성씨가 현대에 와서 급증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 성씨의 급증 사례에서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가? <p>▶ 차시 예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 시대 살아가기 | <p>자료 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레젠테이션  |

다. 수업 자료 및 활동지

| | | |
|-----------------------|--------------------|---------------------------|
| 우리는 다문화 시대에 살고 있다. | 우리 역사 속 다문화 | ()학년 ()반 ()번 이름 () |
|-----------------------|--------------------|---------------------------|



1. 인종차별주의를 대표하는 아돌프 히틀러는 과연 ‘순수 아리아인’이었을까?

히틀러의 결혼식- 영화 ‘다운폴’ 중에서 <https://www.youtube.com/watch?v=jt3wYtuh12s>

가. 1935년 나치 독일의 반유대주의 뉘른베르크 법

* 독일인의 피와 명예를 지키기 위한 법

1조 1항: 모든 유대인과 독일 국민 혹은 독일 혈통 사이의 결혼은 금지된다. 이 법을 피해서 해외에서 이루어 졌을 경우에도, 이미 이루어진 결혼은 무효이다.

나. 유대인의 구분

- 증조부모 8/8명 모두 독일인: '독일 혈통'으로 분류. 독일인으로 인정. 독일 시민권 부여
- 증조부모 1/8명 유대인: '독일 혈통'으로 분류. 독일인으로 간주. 독일 시민권 부여
- 증조부모 2/8명 유대인: '2급 혼혈'로 분류. 부분적 독일인으로 간주. 독일 시민권 부여
- 증조부모 3~4/8명 유대인: '1급 혼혈'로 분류. 부분적 독일인으로 간주. 독일 시민권 부여
- 증조부모 5/8명 이상 유대인: '유대인'으로 분류. 독일인으로 비간주. 독일 시민권 박탈

출처: <https://namu.wiki/w/%EB%89%98%EB%A5%B8%EB%B2%A0%EB%A5%B4%ED%81%AC%20%EB%B2%95>

다. 히틀러, 티베트로 과학자 보낸 사연... “우월한 아리아인 찾아와”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한 현대의 독재자 아돌프 히틀러가 티베트로 과학자를 보낸 사연이 최근 주목받고 있다. …… 아돌프 히틀러는 아리안족이 세계 최고의 민족이라고 믿고 있었고, 인도의 아리안족을 매우 경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히틀러는 인도의 지배계층인 아리안들이 현지 인종과 뒤섞이며 아리안족의 특성이 파괴돼 열등한 민족이 됐다고 믿고 있었다. …… 히틀러는 아리안족의 ‘순수 혈통’이 지구 어디에서 살고 있을 것이라 믿었고 그 장소를 티베트라고 생각했다. 세계의 지붕으로 유명한 티베트는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믿었고 히틀러는 그곳으로 과학자 5명을 파견했다.

과학자들은 티베트인 376명의 두개골과 특징을 측정하고 사진을 찍었다. 또 17명의 머리, 얼굴, 손, 귀 등을 본뜨고 다른 350명의 손자국을 수집했다. 그들은 총 1만 8000미터의 흑백 필름과 4만 장의 사진을 촬영했다. 그들은 1939년 8월 세계 2차 대전이 발발하자 독일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https://www.segye.com/newsView/20210915517582>

- **모둠 활동 1-1.** 뉘른베르크법 1조 1항을 통해 나치가 지키고자 한 것은 무엇인지 적어보자.

- **모둠 활동 1-2.** 나치의 ‘유대인의 구분’과 ‘티베트로 과학자를 보낸 사연’의 기사를 읽고 ‘히틀러는 순수한 아리아인’인지에 관한 모둠 내 토의를 통해 의견을 작성하고 발표해 보자.

| | | |
|-----------------------|--------------------|---------------------------|
| 우리는 다문화 시대에 살고 있다. | 우리 역사 속 다문화 | ()학년 ()반 ()번 이름 () |
|-----------------------|--------------------|---------------------------|

2. 우리나라 건국 신화에서 다문화를 읽다.

가. 옛날 환인이 있었는데, 그 서자 환웅이 자주 천하에 뜻을 두고 인간 세상을 욕심 내었다. …(중략)… 천부인 3개를 주어 가서 다스리게 하였다. 환웅이 무리 3000명을 거느리고 태백산 꼭대기 신단수 아래에 내려와 신시라 부르니 이분이 환웅대왕이다. …(중략)… 이 때 곰 한 마리와 호랑이 한 마리가 같은 굴속에 살고 있었는데, 항상 신웅에게 사람이 되기를 기원하였다. …… 곰과 호랑이는 그걸 얻어먹으면서 21일 동안 금기하였는데, 금기를 잘 지킨 곰은 여자의 몸으로 변하고, 호랑이는 금기를 지키지 못해 사람이 되지 못했다. 웅녀가 혼인할 상대가 없었기 때문에 매양 신단수 아래에서 잉태하기를 빌자, 환웅은 이에 잠깐 사람으로 변신해 그녀와 혼인하여 아들을 낳으니, 단군왕검이라 불렀다. [단군신화]

나. 자색 끈 한 가닥이 하늘에서 내려와 6개의 둥근 알을 내렸는데, 5개는 각 읍으로 돌아가고 하나는 이 성에 있게 되었다. 그중 하나가 수로왕이 되고 나머지 5개는 각기 5가야의 군주가 되었으니 …(중략)… 이에 왕이 왕후와 함께 침전(寢殿)에 있는데 왕후가 조용히 왕에게 말하였다. “저는 아유타국의 공주로 성은 허(許)이고 이름은 황옥이며 나이는 16살입니다. 본국에 있을 때 금년 5월에 부왕과 황후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어젯 밤 꿈에 함께 황천(皇天)을 뵈었는데, 황천은 가락국의 왕 수로(首露)라는 자는 하늘이 내려보내서 왕위에 오르게 하였으니 곧 신령스럽고 성스러운 것이 이 사람이다. ……” [가야 김수로왕 신화]

다. 시조 동명성제는 성이 고씨요 휘는 주몽이다. 이에 앞서 북부여의 왕 해부루가 동부여로 옮겨가 살았는데, 부루가 죽자 금와가 위를 이어받았다. 그 때에 한 여자를 우발수에서 얻었는데, 물으니 “나는 하백의 딸로 이름은 유화이며 여러 아우들과 놀러 나왔었다. 그때 한 남자가 있었는데 스스로 천제(天帝-하늘신)의 아들 해모수라 하면서 나를 유혹해 ……” 금와가 기이하게 여겨 방안에다 가두었는데, 햇빛이 비추자 몸을 끌어 피하니 해의 그림자가 또 따라와 비추었다. 이로써 임신하게 되어 하나의 알을 낳으니 크기가 다섯 되들이 정도였다. …… 한 아이가 껍질을 깨뜨리고 나왔는데, 골격과 겉모습이 영특하고 기이했다. …… 스스로 활과 화살을 만들어 쏘니 백발백중이었다. 나라 풍속에 활 잘 쏘는 사람을 주몽이라 하였기 때문에 이로써 이름을 삼았다. [고구려 주몽 신화]

라. 양산 아래 나정 옆에 번갯불과 같은 이상한 기운이 땅에 드리우고 한 마리의 백마가 꿇어앉아 절을 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래서 찾아보니 한 개의 자색 알이 있었고, 말은 사람을 보더니 길게 울고는 하늘로 올라가 버렸다. 그 알을 깨뜨려 사내아이를 얻었는데, …(중략)… 해와 달이 청명했으므로 혁거세 왕이라 이름하고 위호는 거술한(거서간)이라 하였다. …(중략)… 남아서 알에서 태어났고 알이 박(瓢-표주박)처럼 생겼는데, 향인들이 바가지를 박(朴)이라 했기 때문에 성(姓)을 박으로 하고, 여아(* 알영: 박혁거세의 부인)는 태어난 우물 이름을 따라 명명하였다. [신라 박혁거세 신화]

마. 탈해 이사금은 남해왕 때 가락국 바다 가운데 배가 와서 정박했다. …(중략)… 7일 동안 먹여주니 이에 말하였다. “나는 본래 용성국(왜의 동북쪽 1000리 지점에 있다) 사람이다. 우리나라에 일찍이 28용왕이 있는데 사람의 태에서 출생하여 5, 6세 때부터 왕위를 이어받아 만민을 가르치고 성명을 수정하며, …(중략)… 오랫동안 아들이 없자 자식 두기를 빌어 7년 후 한 개의 큰 알을 낳았다. 그러자 대왕이 군신을 모아 묻기를 ‘사람이 알을 낳은 일은 고금에 없으니 거의 갈상(좋은 조짐)은 아닐 것이다’ 하고는 이에 꺾꽂이를 만들어 나를 넣고, 아울러 칠보와 노비를 배 가운데 싣고 띄워 보내면서 축원하기를 ‘아무데나 인연 있는 곳에 닿아 나라를 세우고 집안을 이루 거라’ 하였다. 그러자 문득 붉은 용이 나타나 배를 호위해 이곳에 이른 것이다. [신라 석탈해 신화]
출처: 삼국유사 기이편

| | | |
|-----------------------|--------------------|---------------------------|
| 우리는 다문화 시대에 살고 있다. | 우리 역사 속 다문화 | ()학년 ()반 ()번 이름 () |
|-----------------------|--------------------|---------------------------|

■ 모둠 활동 2-1. 각 건국 신화의 내용에서 추정할 수 있는 사실들을 아래 표에 있는 대로 적어보자.

| | |
|----------------|--|
| 단군신화 | |
| 가야 김수로와 허황후 신화 | |
| 고구려 주몽 신화 | |
| 신라 박혁거세 신화 | |
| 신라 석탈해 신화 | |

■ 모둠 활동 2-2. 천손(天孫 - 하늘의 자손) 신화는 주로 북부에 위치하는 몽골, 만주 지역에서 주로 나타나는 신화이며, 난생(卵生 - 알에서 태어남) 신화는 남방계 국가들에서 많이 나타난다. 지문의 각 건국 신화에서 찾을 수 있는 천손 및 난생 신화를 찾아 적어보자.

| | |
|----------------|--|
| 단군신화 | |
| 가야 김수로와 허황후 신화 | |
| 고구려 주몽 신화 | |
| 신라 박혁거세 신화 | |
| 신라 석탈해 신화 | |

■ 모둠 활동 2-3. 각 건국 신화에서 한반도 외부에서 들어온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을 찾아보고, 이주민과 토착민의 결합방식을 적어보자.

| | 이주자 | 결합방식 |
|----------------|-----|------|
| 단군신화 | | |
| 가야 김수로와 허황후 신화 | | |
| 고구려 주몽 신화 | | |
| 신라 박혁거세 신화 | | |
| 신라 석탈해 신화 | | |

우리는 다문화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 역사 속 다문화

()학년 ()반 ()번
이름 ()

3. 우리나라 성씨(姓氏)에서 다문화를 읽다.



내 안에 베트남이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MsdNw3uV3mo&t=11s>

가. 대표적인 우리나라 귀화 성씨

- **화산 이씨**: 11~13세기 대월 이가 황족의 후손. 진씨가 제위를 찬탈하고 이가(李家)가 멸망할 때 멸족을 두려워한 황제 혜종의 숙부 이용상(李龍祥, Lý Long Tường)이 자신의 가족들을 데리고 고려로 망명, 귀화하면서 그를 시조로 삼았다고 한다. 출처: 나무위키
- **청해 이씨**: 시조인 이지란은 여진족으로, 원래 이름은 통 쿠란투란티무르이며, 아버지인 아라부카는 지역의 지도자였다. 아버지의 금패천호란 관직을 물려받아 이끌다 많은 부하들과 함께 현재의 함경남도 북청군으로 와서 고려로 귀화했다. 이때 동북면의 실력자인 이자춘의 아들 이성계를 만나 의형제의 예를 맺고 수하로 들어갔으며, 성도 여진 성씨인 '통'에서 이성계의 성인 '이'로 바꿨다. 출처: 나무위키
- **덕수 장씨**: 시조 장순룡은 회회인으로 그의 아버지는 원 세조 때 필도치라는 벼슬을 지낸 바 있다. 장순룡은 1275년 충렬왕비인 제국공주를 모시고 고려에 왔다가 귀화하였다. 임천 이씨 시조 이현, 경주 설씨 시조 설순도 장백창과 같이 위구르 사람으로 설련하 출신이라고 한다. 출처: 위키피디아
- **안동 장씨**: 시조는 장정필이다. 그의 처음 이름은 장길인데, 888년 중국 절강성 소흥부에서 대사마대장군인 장원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한다. 5세 때 아버지를 따라 우리나라에 왔다가 18세에 다시 당나라에 들어가 문과에 급제하였고, 이부상서를 지내다가 다시 돌아왔다. 930년에 고창전투에서 태조 왕건을 도와 견훤의 군대를 대파한 공으로 삼중대광보사벽상공신 태사(太師)에 오르고 고창군에 봉해졌다고 전하고 있다. 출처: 위키피디아
- **사성(賜姓 - 임금이 성씨를 내려 줌) 김해 김씨**: 임진왜란 당시 조선으로 귀화한 일본인 장수 사야가(沙也可)가 선조로부터 김해 김씨를 내려받고 충선(忠善)이란 이름을 받으면서 생겨난 씨족으로 시조는 김충선. 김충선이 말년에 은거하면서 사슴을 벗하며 살았다는 점에서 앞서 언급된 김해 김씨와 구별하기 위하여 우록(友鹿) 김씨라고도 한다. 출처: 나무위키
- **박연(벨테브레)**: 30대 초반인 1627년 일본으로 항해하다가 표착해 제주도에 상륙했으나 곧바로 한성으로 압송되었다. 부하들과 태풍을 만나 식수가 떨어지자 마침 가까이 보이던 제주도에 부하 두 명을 거느리고 상륙했는데, 중국 선원들이 배를 탈환해 도주해버리는 바람에 제주도에 남겨지게 된 것이라고 한다. 조선 기록에 따르면 조선인 아내와의 사이에서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두었다 하나, 그의 후손을 자처하는 박씨 문파도 현재는 없는 상태. 한국경제에서는 원산 박씨가 그의 후예라는 기사를 냈으나 원산 박씨가 실존하지 않는다는 말도 있다. 출처: 나무위키
- **모듬 활동 3**. 위 사례들을 통해 귀화가 이루어지는 사례를 유형별로 정리해 보자.

| | | |
|--------------------|--------------------|---------------------------|
| 우리는 다문화 시대에 살고 있다. | 우리 역사 속 다문화 | ()학년 ()반 ()번 이름 () |
|--------------------|--------------------|---------------------------|

나. 우리나라 성씨 관련 통계

| | |
|----------------------|--|
| 중종(1530년) “신증동국여지승람” | 277개 |
| 고종(1903년) “증보문헌비고” | 496개(고문헌에 등장하는 모든 성씨 기록) |
| 1960년 인구조사 | 258개 |
| 1975년 인구조사 | 249개 |
| 1985년 인구 및 주택 센서스 | 276개(귀화 성씨: 총 성씨의 50%, 전체인구의 약 20%) |
| 2000년 인구 및 주택 센서스 | 728개(한자 사용 286개, 한자 사용 않는 성씨 442개) |
| 2015년 인구 및 주택 센서스 | 5,582개(한자 사용 1,507개, 한자 사용 않는 성씨 4,075개) |

출처: 강명주 외 17인(2016), 『한국사 속의 다문화』, 황미혜, 손기섭(2018), 『한국의 다문화 역사 이야기』, 통계청 - <https://kostat.go.kr/portal/korea/index.action>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조사는 5년에 한 번, 종교 인구는 10년, 성씨별 본관 조사는 15년에 한 번 이루어진다. 현재 성씨별 본관 조사는 1985년부터 3번 이루어졌고 성본의 기준은 5인 이상 성씨이다.

일부에서는 2015년 성본 조사에서 데이터 입력자가 비슷한 한자를 잘못 읽어 중복 입력 등의 오류를 발생시켰다고 지적하고 있다.

모둠 활동 4. 2000년대를 전·후하여 성씨가 급증하게 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해보면 좋을 요인 2가지와 이유를 각각 적어보자.

요인: _____ 이유: _____

요인: _____ 이유: _____

다. 성씨? 본관?

- 성씨 - 혈족을 나타내기 위하여 붙인 칭호인 성(姓)을 높여 부르는 칭호. [표준국어대사전]
 - 본관 - 시조가 난 곳. [표준국어대사전]
- * 같은 성씨여도 본(본관)은 여러 개이다. 예를 들면 같은 한자를 사용하는 이(李)씨여도 전주 이씨, 청해 이씨, 화산 이씨, 경주 이씨 등이 있다. 그러므로 성씨(姓氏)의 개수보다 성본(姓本-본관)의 개수가 훨씬 많다.

“팜·쩐·굴氏가 있다고?” 새 가문의 시조가 된 사람들
 ‘프라이인드로스테쥬덴’, ‘알렉산더클라이브대한’ 혹시 이런 이름, 들어보셨나요? 안 믿기시겠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이름들이라고 합니다.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총 3만 6744개의 성본(姓本)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성씨와 본관은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데요. 때론 개인의 정체성이 이 성본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2000년 4179개에 불과했던 성본은 이후 9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국내에 정착하는 외국인이 늘면서 새로운 성본이 급증한 영향으로 해석됩니다.
 (* 1000명 이상이 본관을 사용하는 경우 858개로 총인구의 97.8%)

출처: 네이버 법률미디어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naverlaw&logNo=221429171927>

모둠 활동 5. 성씨의 급증이 미래 우리 사회에 끼칠 변화 중 긍정적인 부분에는 무엇이 있을지 모둠원들과 토의하여 합의된 의견을 적어보고, 발표해 보자.

라. 교사 참고 자료

신화 관련 읽기 참고 자료

1. 단군신화 관련 참고 자료

▣ 단군신화의 형성 시기

…… 단군신화의 핵심은 하늘 신의 아들인 환웅이 신단수 아래에 내려와 신시(神市)를 열고 많은 무리를 거느리며 세상일을 주관하다가, 웅녀와 결합하여 단군을 낳았고, 이 단군이 고조선을 건국하였다는 내용이다. 이처럼 건국의 시조가 하늘 신의 아들이라는 천손강림(天孫降臨)형 신화는 가까이는 주몽 신화나 박혁거세 설화, 수로왕 설화를 비롯하여 동북아시아에 널리 분포하는 고대 국가들의 건국 신화이다.

그리고 짐승과 결합하여 건국의 시조가 태어났다는 신화 역시 고대적인 사고방식의 하나로서, 특히 곰을 조상신으로 하는 토tem 신앙은 시베리아 일대에 분포한 퉁구스족과 고아시아 족 사이에 널리 퍼져 있는 신앙이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단군신화는 동북아시아 일대의 고대 신화 유형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이며, 그런 점에서 단군신화는 이 지역 고대 국가의 건국 신화로서 전혀 손색없는 내용과 구성을 갖추고 있다 하겠다. ……

▣ 곰과 호랑이의 존재에 대한 견해

단군의 모계는 곰에서 변신한 웅녀(熊女)와 연결된다. 곰이 인간으로 변신한다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 수 없으므로, 이 곰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 단군 신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곰과 일종의 경쟁 관계에 있는 호랑이의 존재도 마찬가지로이다. 이와 관련된 기왕의 논의에서는 곰과 호랑이를 단순한 동물이 아닌 신성한 존재, 즉 신적인 존재로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곰과 호랑이의 존재에 대하여, 이를 토tem으로 보는 견해, 지모 신(地母神)으로서 풍요와 다산의 신으로 보는 견해, 산신(山神)으로 보는 견해 등이 있다. 이 중 어느 견해가 타당한지는 쉽게 판단할 수 없다. 어떤 것으로 보더라도 환웅이 하늘을 대표하는 신적인 존재라면, 곰과 호랑이는 지상을 대표하는 신적 존재임은 분명하다. 그런데 단군신화에서는 호랑이와 곰 중에서 최종적으로 곰이 변신한 웅녀가 하늘 신인 환웅과 결합한다. 즉 곰이 경쟁 관계에서 승리한 것이다. 이를 통하여 역사적으로 곰과 호랑이로 대표되는 세력 집단의 경쟁 관계를 상징하기도 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신앙적인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곰을 신성시하는 관념은 시베리아 지역에서 널리 확인되고 있다. 곰은 산신이나 신의 사자, 혹은 샤먼의 수호자, 인간의 조상, 토tem 등으로 숭배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곰에 대한 숭배의 관념이 단군 신화에 투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다.

그리고 곰이 신성한 존재라면 인간으로 변신하지 않고도 환웅과 혼인할 수 있었을 텐데, 왜 굳이 인간이 되어 환웅과 결혼하였을까 하는 점도 궁금한 부분이다. 따라서 곰의 변신 과정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곰과 호랑이는 인간이 되기 위하여 햇빛을 보지 않고 마늘과 썩만 먹고 100일을 지내야 한다는 조건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다. 이는 곧 원시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성숙의 제의 과정을 보여 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곰이 인간이 되는 과정은 시련을 통한 성숙의 과정이고, 이 과정을 통해 비로소 단군 모계로서의 신성한 혈통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즉 곰이 웅녀로 변신하는 과정 역시 단군의 혈통적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한 신화적 장치로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하늘을 상징하는 환웅과 땅을 상징하는 웅녀와 같은 신성한 존재들의 결합이라는 전제를 통하여, 이들의 아들인 단군은 생래적으로 신성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 단군의 신성성은 그 탄생에 그치지 않는다. 단군이 일반적인 인간과는 달리 초인간적인 장수를 누리며, 죽음으로 최후를 맞는 것이 아니라 아사달에 들어가 산신이 된다는 신화의 마지막 내용이 이러한 측면을 잘 보여 준다. 단군이 지상의 산신이 되었다는 점은 고구려의 주몽 신화에서 주몽이 용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내용과 유사하면서도 일정한 차이점을 보여 주기도 한다.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우리 역사넷, 단군신화를 이해하는 몇 가지 논점들
http://contents.history.go.kr/front/ht/view.do?levelId=ht_001_0020_0020

2. 허황옥 관련 참고자료

▣ 허황옥의 등장과 그 실체

허황옥의 출신지로 나오는 아유타 국이 어디인가 하는 문제는 여러 가설이 분분한 실정이다. 그 중 하나는 아유타 국을 인도 갠지스 강의 상류인 사라유 강가에 있던 고대 도시 국가인 아요디아(Ayodha) 왕국으로 보는 견해이다. 또한 설화에서 허 왕후가 5월에 배로 출발해서 7월에 도착하였는데 아요디아가 있는 갠지스 강 상류까지는 배가 거슬러 올라갈 수 없으므로, 왕녀의 사실상의 출발지는 오늘날 태국의 메남 강가에 있는 옛 도시 아유타야로 추정할 수밖에 없으며, 이를 아요디아 왕국이 1세기 전에 건설한 식민국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이 외에도 아유타 국을 일본에 있던 가락국의 분국(分國)으로 보는 견해, 중국으로 보는 견해 등이 있다.

여러 논의가 있지만, 아유타 국이 인도·태국·중국·일본의 어느 곳에 있었는지, 또 아유타 국이 있다 하더라도 과연 허황옥이 실제로 그곳에서 온 것인지 등등이 모두 불분명하다. 설사 허황옥 설화의 내용과 같은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 하더라도, 가야사 입장에서 보면 그 출신지 문제는 그리 중요해 보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허황옥의 출신 국가나 그 문화가 가야의 역사 전개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지는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허황옥 문제는 과거 가야사 초기의 모습을 이해하기 위해 매우 흥미롭고 낭만적인 역사 이야기 정도로 만족해도 좋을 듯하다. 굳이 심각한 태도로 이 아유타 국 문제에 매달릴 필요는 없다고 본다. 그렇지만 일단 설화에 보이는 내용을 좀 더 합리적으로 이해하는 방안은 찾아보도록 하자.

우선 공주의 이름이 허황옥 및 그의 결혼 후견인인 대신들의 이름이 신보(申輔), 조광(趙匡) 등 중국식 이름이라는 점에서, 이들이 인도나 태국에서 곧바로 왔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허 왕후는 배에 금은, 비단, 의보, 그릇 등의 물건들을 많이 싣고 왔다고 했는데, 다시 뒤에 “이를 중국 점포의 여러 물건”이라고 표현했으며, 짐을 싣고 왔던 배는 선원 15인에게 각기 쌀과 포목 등을 주어 돌려보냈다고 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허 왕후는 통상적인 무역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해상 무역로를 따라 가야 지역으로 들어온 세력과 연관되었을 것이다. 당시 가야 지역과 중국과의 교역은 중간에 낙랑 세력이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허 왕후는 낙랑계 주민 혹은 중국 내륙의 교역 상인 세력과 연관될 것이다. 그렇다면 불교와 연관된 인도나 태국 지역의 아유타 국 출신이라는 설화는 어떻게 나타난 것일까. 물론 허 왕후의 출신이 인도 등 동남아 지역이 아니라고 장담하기는 어렵다. 혹시 실제 인도 출신이라 하더라도 한동안 중국 지역에 머물며 중국화 된 집단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허 왕후 집단의 실제적 성격보다는 후대에 변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아무래도 불교가 번성하였던 시기에 허 왕후의 신비한 성격을 부각하기 위하여 김수로 신화에다 불교적 신이성을 추가하였을 것이며, 대략 그 시기는 통일신라 시대로 짐작된다.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우리 역사넷, 가야의 건국 설화 읽기

http://contents.history.go.kr/front/ht/view.do?levelId=ht_001_0060_0010_0030

▣ 인도 아요디아의 쌍물고기 무늬는 가야의 사둔국이라는 강력한 증거

서기 48년 7월 27일(아마도 음력일 것이다). 붉은 돛을 단 배가 오늘날 김해를 중심으로 일어난 가락국(駕洛國·후에 가라, 가야로 변함)에 도착했다. 배에서 여러 명이 내렸다. 그중 한 여인이 수로왕 앞에 나아가 자기를 소개했다. “저는 아유타국 공주입니다. 성은 허씨, 이름은 황옥이고, 나이는 16세입니다(妾時 阿踰陀國 公主也, 姓許 名黃玉 年二八矣).”

아유타국(阿踰陀國). 『삼국유사』 ‘가락국기’에 기록된 아유타국은 갠지스 강변의 아요디아(Ayodhia)를 뜻한다. 아요디아는 힌두교의 중흥시조인 라마(Ram)왕의 탄생지로 세계적인 명성을 갖고 있다. 석가모니가 출가하여 설법을 시작한 지역으로도 유명하고, 인도 전국시대의 맹주국인 코살(Kosala)국의 중심지로서도 역사적인 무게가 남아 있는 곳이다.

그런데 그런 고대 인도의 중심 도시 출신 공주가 한국에 시집을 왔다. 이루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예물을 내놓고 수로왕과 결혼해 왕비가 됐다. 두 사람 사이에서 왕자 10명과 공주 2명이 태어났다. 그들이 오늘날 김해 김씨와 김해 허씨의 조상이 됐다. 후손들은 그런 이야기를 굳게 믿어 김해 김씨와 김해 허씨는 지금도 통혼하지 않는 강한 전통이 있다. 매우 흥미 있는 인류학적 현상이다.

사학계 일부에서는 인도에서 한국까지의 먼 거리를 2000년 전에 어떻게 배를 타고 여행할 수 있었을까 하여 '가락국기' 자체를 의심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인도와 한국, 아유타국과 가락국을 연결하는 확실한 문화코드가 있다. 바로 쌍어문(雙魚文)이다. 쌍어문이란 물고기 두 마리가 마주 보고 있는 도안(圖案)이다. 김해 수로왕릉 앞에서 있는 삼문(三門)에 그려진 쌍둥이 물고기 그림들이 그것이다. 수로왕릉뿐만 아니라, 김해시 소재 신어산의 은하사에도 그려져 있고, 합천 영암사지 돌비석 등 옛 가락국 영역 안에 있는 고대 사찰에 무수하게 남아 있다.

반면 한반도 내의 다른 지역, 즉 당시의 고구려나 백제·신라의 영토 내에서는 거의 발견된 예가 없다. 그래서 필자는 혹시 쌍어문이 가락국의 국장(國章)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고 있다.

사실 필자는 김해 김가다. 유년시절엔 남다른 검은 피부로 콤플렉스가 있었다. 그런데 수로왕의 국제결혼 상대가 인도 여인이라는 이야기를 학교에서 배우고 나서 필자의 고민은 말끔히 없어졌다. 피부가 검을수록 인도 공주의 유전인자가 많이 남아 있는 왕족의 후손임을 믿으며 살게 되었기 때문이다.

1975년 필자는 평생의 은인을 만났다. 소설가 이종기 씨다. 그는 나에게 김해 수로왕릉에 그려져 있는 쌍어문이 인도 아요디아에도 무수하게 새겨져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아요디아에 도착한 순간부터 이 나라가 물고기의 나라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수백 개의 힌두교 사원 정문에, 학교 정문에, 관청 대문에, 군인 계급장에, 경찰 모자에, 택시 번호판에 쌍어문이 새겨져 있었다. 쌍어문은 아요디아를 중심으로 하는 우타르프라데시주의 주장(州章)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인도에서는 쌍어문의 상징적 의미를 연구하는 사람을 만날 수 없었다. 분명 매우 중요한 상징이기 때문에 입은 옷이나 건물, 타는 차에 그리고 다닐 텐데 의미를 명쾌하게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 박물관장도 설명을 하지 못했다. 이 무슨 해괴한 일인가.

필자의 쌍어문 추적은 계속됐다. 쌍어 상징은 인도와 한국 사이의 넓은 내륙 곳곳에서 볼 수 있었다. 방글라데시의 다카, 미얀마와 중국의 국경지대인 등충, 운남의 곤명, 사천의 안악, 그리고 양자강을 따라 무수하게 발견됐다. 아유타국 사람들이 걸어오며 남긴 흔적일 것이다. 더 서쪽으로는 아프가니스탄의 스키타이 유적, 이란 페르시아 시대의 파살가드 유적에서, 터키 바빌로니아 시대의 페르가몬에서 궁전의 조각으로, 시리아와 튀니지에서 민속품으로 사용되고 있음도 확인하였다. 그 장소들을 지도에 찍으며 수십 년간 현장을 답사했다.

내가 찾아낸 결론은 쌍어가 페르시아 신화에 등장하는 카라어(Kara Fish)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카라는 바다에 사는 물고기였다. 바다에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는 '코케레나'라는 나무를 지키는 수호신이었다. 코케레나의 잎사귀는 인간의 만병을 치료하는 영약이다. 그런 믿음이 바빌로니아로 이어지고, 그 시대에 노예생활을 하던 유대인에게 스며들어 구약성서(느헤미야기 등)에 기록으로 남고, 예수님의 이적(異蹟)인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중생을 구휼한 이야기(五餅二魚)로 전해지고 있다.

국내에서 쌍어문은 김수로왕의 무덤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전승돼 왔다. 그렇다면 쌍어가 무덤을 지키고, 사원을 지키고, 집을 지키고, 사람을 지켜준다는 생각은 누가 가야에 전했을까. 아유타국 출신 공주 허황옥이 처음으로 전파한 것은 아닐까.

그녀의 이동 경로를 좀 더 알아보도록 하자. 우선 인도와 중국을 연결하는 길은 히말라야 산맥의 남쪽 기슭을 통과하는 산악도로인 차마고도(車馬古道)가 알려져 있다. 또 있다. 더 남쪽의 구룡산맥을 넘어 미얀마를 통과하는 길이다. 오척로(五尺路)라고 부르는 산악도로다. 산비탈을 깎아 만든 폭이 1m 남짓한 좁은 길로, 말이나 당나귀들만 짐을 싣고 갈 수 있는 험로다. 이런 길을 통해 오가던 상인들은 무겁지 않은 차(茶), 보석, 비단 같은 고부가 상품을 거래했다.

그 길은 인도~미얀마~중국의 운남~사천~양자강 일대를 잇는 고대 무역로였다. 이 루트에는 사당 벽돌 조각으로, 제기(祭器) 무늬로 무수한 쌍어문이 남아 있다.

사천에 도착한 인도인들은 보주(普州·오늘날 安岳)에 잠시 정착했다. 보주는 후한 때 남군으로 편입되지만, 그때까지 소수민족이 독립세력을 형성하던 곳이었다. 이들은 이곳에 아유타국의 분국(分國) 같은 것을 세우고 지내다 중국의 한 나라와 충돌했다.

남군에서는 한나라의 통치에 대항하는 민족 봉기가 두 번 일어났다. 『후한서』에 따르면 서기 47년 첫 번째 봉기 후 소수민족 7000명이 보주를 떠나 강하(江夏·오늘날武漢)로 강제 이주당했다. 그리고 다음 해 허황옥 일행은 황해를 건너 김해에 도착했다. 김해에 있는 허황옥의 능비에는 시호가 보주태후(普州太后)라고 명기돼 있다. 그녀의 실제 성장지가 중국 보주일 것으로 추정되는 이유다.

101년 두 번째 봉기 끝에 주동자가 항복했다. 그의 이름이 허성(許聖)이다. 옛날 사천지방에 허씨 세력이 대단하였음을 암시하는 기록이다. 사실 그때까지 사천·운남 지방은 낙양을 중심으로 하는 한나라 세력이 크게 힘을 미치지 못했다. 필자가 안약(보주) 지역을 답사해 보니 그곳에 보주 허씨들이 15만 명이나 살고 있었다. 그들은 사당에 중국 수학의 아버지로 추앙받는 허창수(許昌洙)라는 인물을 모시고 있었다.

허황옥과 그의 선조가 거쳐온 길은 중국·인도를 거쳐 지중해까지 연결되는 내륙 도로다. 차와 소금, 비단과 보석, 어쩌면 약재들까지 이 길을 통해 동서양을 넘나들었을 것이다. 인도와 한국은 먼 나라가 아니었다. 아주 옛날부터 무역을 하고 사돈을 맺던 이웃 나라였다. 고대 인도와 한국이 왕족들 간에 국제결혼을 한 사건도 불교가 한국에 공식적으로 소개되기 훨씬 전의 일이다.

허황옥이 가져온 결혼 예물 중에는 인도와 미얀마 특산물 중 하나인 경(瓊·옥의 일종)과 구(玖·루비의 일종)가 포함돼 있었다. 허황옥을 배에 태워다 준 사람들은 결국 차마고도를 통해 인도와 한국을 오가던 상단(商團)들이었다. 그렇게 광대한 지역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허황옥 일행을 통해 고대 한반도에 전달됐다. 2000년 전에도 글로벌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이미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김병모 한양대 명예교수·고고학

출처: 중앙선데이 입력 2010.01.17. 06:04, <https://www.joongang.co.kr/article/3971313#home>

▣ [이광수의 팩트체크] 가야문화권 연구사업에도 등장한 허왕후 신화의 실체

허왕후 설화가 실린 《삼국유사》의 〈가락국기〉는 《가락국기(駕洛國記)》를 줄여서 채록한 것이다. 《가락국기》는 고려 문종 31년인 1076년에 편찬되었으나 지금은 사라지고 없다. 이 《가락국기》를 200년 후에 일연(一然)이 줄여서 《삼국유사》에 수록한 것이 지금 전해지는 〈가락국기〉다. 《가락국기》는 삼국통일 뒤 신라 집권층에서 점차 배제 당하던 김유신 후손이 김유신과 그의 선조 김수로왕에 대해 추진한 신화 만들기였다. 원형이 만들어진 후 불교 국가 신라로서 불교와의 관련성을 만들기 위해 힌두 최고의 서사시 《라마야나》에 나타난 사리유Saryu 강안에 위치한 힌두 제1의 정치적 성도聖都 아요디아Ayodhya를 삽입한 것이다. 기원후 5세기 이전에 ‘아요디아’라는 이름을 가진 도시는 실제 역사에 존재하지 않았다.

삼국유사 이후 민간 설화가 더해지면서 '허왕후 신화'로

〈가락국기〉에 아유타에서 온 허왕후 이야기가 삽입된 후 몇 백 년 동안 많은 이야기들이 덧붙여졌다. 그 중 좋은 예가 〈금관성 파사석탑〉에 나오는 이야기다. 불교 사찰에서 확장되기 시작한 허왕후 신화는 조선조 들어 성리학의 가문 정치를 만나면서 또 한 번의 전기를 맞는다. 양천 허씨가 신화 속의 허왕후를 실제 인물로 여겨 허왕후릉을 비정하고 족보와 연계시키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허왕후가 실재하는 역사 속 인물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이다. 허왕후 신화는 18세기 들어 김해의 명월사를 비롯한 작은 사찰들이 사원 비즈니스 차원에서 신화 만들기에 적극 나서면서 또 한 번의 큰 확장을 경험한다. 이 경우 이전 시대보다 더 과감한 방법으로 사료 조작과 날조가 이루어졌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허왕후의 형제 장유화상이라는 인물의 창조다. 성리학 가부장 사회에서 모계인 허씨 성을 이어받으려니 허왕후의 아이들 중 2명이 허씨를 허락 받았다는 얘기가 만들어지고, 불교 전래자가 여자인 허왕후면 곤란하니 오빠 장유화상을 만들어냈다.

허왕후가 실제로 인도에서 왔다는 주장은 이종기라는 한 아동문학가의 탐사문 형식을 빌린 수필에서부터 시작되었으니 1977년의 일이다. 하지만 그것이 한국 사회에 실재하는 역사이자 ‘국민 신화’로 등장하게 된 것은 김병모라는 한 고학 전공 교수의 치열하지 못한 학문 때문이다. 김병모는 20세기에 들어와 만들어진 이야기가 마치 〈가락국기〉 기술 당시의 원형인 것처럼 말했고, 그것으로 수로왕 시대의 역사를 논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을 주로 검증이 필요하지 않은 언론에 무차별적으로 살포했다. 김병모는 조선 시대 중기 이후 혹은 20세기 들어 만들어진 장유화상과 허왕후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가지고 수로왕 시대의 역사를 말한다. 사이버 역사학의 확산은 이러한 분위기에서 이루어진다. 이후로 사람들 사이에서는 허왕후가 오빠와 함께 인도에서 왔다는 사실은 물론이고, 수로왕과 사이에서 열 아들을 낳고, 그들이 가야산이나 지리산으로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가락국기〉나 《삼국유사》에 나오는 것처럼 이해하고, 그것이 기원 초기의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널리 퍼지게 된다.

여기에 아마추어 민족주의자들까지 가담하여 인도와 직접 접촉하고 일본에까지 건너가 나라를 세운 가락국의 역사는 삼국 중심의 기존 역사에 의해 무시당했으니 지금부터라도 그로부터 벗어나 북방 문화가 아닌 남방 문화를 더욱 탐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남방 문화 탐구의 필요성은 예의 한국어 드라마비디오키워드론과 맞물리면서 더욱 자극적으로 퍼져나갔다. 이때 허왕후의 실제 인도에서의 도래는 역사에서 일어난 기정사실이 된다. 사이버 역사학의 이 같은 작업은 대륙에 붙은 반도라는 콤플렉스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하는 ‘위대한 한민족’의 심리를 자극하기도 한다. 한 아동문학가의 창조된 해석이 고고학 전공 교수의 사이버 역사학과 만나고 언론이 이를 부추기면서 ‘허왕후 신화’는 한반도를 벗어나 세계 속으로 뻗어나가 세계의 주인이 되고 싶은 위대한 한민족 민족주의 속에서 일약 ‘국민 신화’가 되어버린 것이다.

김해 분산성 해운사의 대왕전에 있는 ‘허왕후 영정’. 허왕후 영정이라는 주장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 전문가들은 원래 무녀도인 것으로 본다.

‘세계 속 한국’ 욕망 때문에 신화가 실제 역사로 둔갑

그 후 김해 지역의 공공 기관은 허왕후 신화를 김해의 정체성과 결부시키면서 김해 지역의 관광 상품으로 발전시키는 일에 매진하게 된다. 2002년 부산아시아게임에서는 허왕후의 도래 이야기가 개막식에서 화려한 행사로 올려지기까지 했다. 설화를 문화 행사의 일환으로 활용하는 것에 반대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다. 설화 또한 고유의 가치가 있는 문화자산이고, 문화 행사가 반드시 역사적 사실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홍길동이나 논개를 지역 사업화 하듯, 김해는 김수로왕과 허왕후를 지역 사업화 할 수 있다. 다만 그게 역사적 사실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 설화는 문학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로서 문화 자산이라는 가치를 가질 수 있다. 그런데, 그 설화를 역사적 실체로서 인정할 경우 문제는 심각해진다.

문제는 정치인들이 개입하면서 실제로 심각해지기 시작했다. 김해김씨 김종필은 2002년 대선을 앞두고 또 다른 김해김씨 정치인 김대중과 만나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이 민족주의를 이용하는 차원에서 인도로까지 확대시켰다. 허왕후가 인도에까지 전해져 인도의 민족주의자들에 의해 본격적으로 이용되었다. 그 후 김해김씨가락중앙총친회에 의해 인도 아요디아 市 사리유 강가에 검은 대리석으로 화려하게 만들어진 허왕후 탄생 기념비가 세워진다. 허왕후 탄생비를 아요디아의 사리유 강가에 건립한 것에는 인도의 집권 여당인 인도국민당의 적극적 후원 하에 이루어졌다. 그런데 인도국민당은 힌두 민족주의를 중심으로 한 극우 파쇼적 정치를 표방하고 있는 정당인데 그 정치 이데올로기의 중심을 아요디아에 두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인도국민당과 그 방계 세력들은 1992년 12월 아요디아에서 신화 라마의 라마 사원을 복원한다면서 기존의 이슬람 사원을 파괴하고 232명의 인명 살상을 초래하였고, 그 후로도 폭력은 계속되어 500명 이상이 살해되고 수십만 명이 가정을 잃게 되었으며 천문학적인 재산 손실을 가져 왔다. 그리고 그 양상은 지금도 -특히 총선과 관련된 시기에 집중적으로- 끊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인도의 극우 패권주의 세력들에게 한국에서의 ‘아요디아에서 온 공주 허왕후’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정권 정당성의 근거가 될 가능성마저 있다.

허왕후 유적 발굴조사 착수...세금 낭비 누가 책임지나

이후 주인도 한국대사관이 혈세 7~8억 (4~5년 전 이야기)을 들여 성역화 한다고 한다. 한국인 스스로가 위대한 힌두 제국의 식민지가 되고자 애쓰는 형국이다. 그렇게 되면 그 성역화 된 공원은 또 다른 역사적 실체가 되어 더 험한 역사 왜곡이 일어날 것이 분명해진다. 더군다나 2018년 여름 문재인 대통령의 인도 방문 때도 역시 이 건이 확인되었고, 인도 방문 후 정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피 같은 국민 세금을 써서 남의 나라 식민지로 편입되고 싶어 안달인 나는 그들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대통령 방문 이후 일이 커지자 김해시 또한 발 빠르게 나서고 있다. 언론 기사에 의하면 9월 7일부터 가야 문화권 조사 연구 사업 일환으로 '추정 망산도 가야 유적' 발굴 조사 착수하겠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가 시작한 직후 가야사 복원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해야 할 역사 복원과 유적지 발굴에는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고 오로지 만들어진 이야기를 발굴해서 뭔가를 찾아내보겠다고 열을 올리는 것이다. 북한에서 한 단군릉 발굴과 조성과 하등에 다를 바 없는 참담한 것이다. 그런 식이라면 《삼국유사》에 일본국을 세웠다는 연오랑과 세오녀 탄신지와 생가도 발굴해야 할 일이다.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은 지자체 고유의 업무라 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국민의 혈세를 들여 하는 사업이라면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자리는 마련할 것이고, 그 자리에서 사업의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 되면 거두어 들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그 절차를 생략한다거나, 전문가의 의견을 묵살하고 사업을 강행한다면, 그 뒤로 발생하는 모든 법적, 정치적, 도덕적 책임은 다 져야 할 것이다. 난, 학자로서 양심을 걸고 김해시의 허왕후 신화 발굴 작업을 주도하는 담당자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고자 한다.

출처 : 뉴스톱(<http://www.newstof.com>)

3. 석탈해 관련 참고자료

▣ 용성국

석씨(昔氏)의 시조이며 왕인 탈해(脫解)가 태어난 나라이다. 『삼국유사(三國遺事)』에는 일명 정명국(正明國)·완하국(琬夏國)·화하국(花夏國)이라고도 하였으며, 『삼국사기(三國史記)』에는 다파나국(多婆那國)으로 기록되어 있다.

용성국의 함달파왕(含達婆王)이 적녀국(積女國)의 왕녀를 왕비로 맞았는데, 왕비가 오랫동안 아이가 없다가 기도하여 큰 알을 낳으니, 그것을 껍데기에 넣어 칠보와 노비와 함께 배에 실어 바다에 띄웠다. 알에서 깬 탈해는 먼저 김해 지역에 상륙했다가 거기에 정착하지 못하고 신라로 들어갔다.

용성국의 위치에 대해서는 왜국의 동북쪽 일천리에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현재 그곳이 어디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이에 관해 대체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설이 있다.

첫째, 용성국은 동해 중에 있었다고 주장되는데, 이에 대한 근거로 『삼국지(三國志)』 동옥저전의 순녀국(純女國)을 적녀국으로 해석한다.

둘째, 다파나국은 서역(西域)의 소국이며 함달파는 불교의 음악신이므로 용성국은 서역에 있었다고 한다. 탈해와 연관이 있는 수장(水葬) 풍속이 동남아시아와 쓰촨성[四川省], 그리고 서역지역에 퍼져 있음은 이 학설을 뒷받침한다.

셋째, 해류의 흐름으로 보아 용성국은 중국 남부 해안지역에 있었다고 한다. 탈해신화 속에는 북방적인 야장설화(冶匠說話)와 남방적인 난생설화(卵生說話)가 모두 들어 있는데, 그 두 요소가 함께 들어올 수 있는 경유지가 중국 중남부 해안지역이 된다. 다만, 오늘날 왜의 소재지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용성국이 동해안에 있었는지는 의문이다. 그렇게 되면 용성국은 서역으로부터 중국 중남부 해안지역을 경유하여 해도로 신라에 도달하기까지의 어느 지역에 위치한 소국으로 추정할 수 있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용성국(龍成國))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39541>

귀화인, 성씨 관련 참고 자료

▣ 패릉의 무인석

패릉은 신라 제38대 원성왕(785~798)의 능이다. 별칭은 왕릉이 조성되기 이전에 연못이 있어 유해를 수면에 걸쳐 안장하였을 것이라는 속설에 따라 붙여진 이름으로, '걸어놓은 능'이라는 뜻이다.

왕릉 앞 석상들 가운데, 마주 보고 있는 무인상 한 쌍이 이국적인 외모로 깊은 눈, 넓은 코, 술이 많은 수염 서역인의 모습을 하고 있어 국제 무역의 중심지로 당시 신라를 떠올리면, 무인석의 모델이 무역을 위해 신라에 왔다가 눌러살게 된 서역인으로 추정하고 있다. 옆에 서 있는 문인상은 당시 세계를 주름잡는 당당한 신라인의 모습을, 무덤 앞에 사자상 두 쌍은 몸이 정면을 보고 있지만, 고개를 돌려 시선이 각각 동서남북을 향해, 왕의 무덤을 지키는 수호상으로 본분에 충실한 모습이라는 생각이 든다.

신라인의 치밀하면서도 여유 있는 해학적 면모를 엿볼 수 있는데, 봉분 주변에는 십이지상을 새긴 돌레돌을 돌렸고, 주위에 수십 개의 돌기둥을 세워 울타리를 만들었다.

출처: 경주문화관광 https://www.gyeongju.go.kr/tour/page.do?mnu_uid=2695&con_uid=255&cmd=2



▲ 무인석



▲ 문인석

▣ 쌍기

본래 후주인(後周人)으로 산둥지방 칭저우(靑州)의 수령이던 쌍철(雙哲)의 아들이다. 후주에서 벼슬해 산둥반도(山東半島) 등저우(登州)에 있는 무승군(武勝軍)의 절도순관(節度巡官)·장사랑(將仕郎)·시대리평사(試大理評事)를 지냈다. 956년(광종 7) 후주의 봉책사(封冊使) 설문우(薛文遇)를 따라 고려에 왔다가 병이 나 머물게 되었다. 병이 나은 뒤 광종(光宗)의 눈에 들어 후주로부터 허락을 받은 뒤 원보(元甫)·한림학사(翰林學士)에 임명되었다. 958년 과거제도의 설치를 건의하였다.

959년에는 쌍철이 고려에 와서 좌승(佐丞)이 되었다. 아들 쌍기가 광종의 총애를 받는다는 말을 듣고 고려의 사신 왕궁(王兢)을 따라와 관직을 받은 것이다.

생애 및 활동사항: 958년 5월 처음으로 실시된 과거에서 지공거(知貢舉)주 01)가 되었다. 이때 시(詩)·부(賦)·송(頌)·책(策)으로 시험을 치르게 했는데, 진사(進士) 갑과(甲科)에 최섬(崔暹)·진경(晉兢) 등 2인과 명경과(明經科)에 3인, 복과(復科)에 2인을 선발하였다.

960년에 실시된 과거에서 지공거가 되어 최광범(崔光範)·서희(徐熙) 등 7인을 진사 갑과로 뽑고, 명경 1인, 의업(醫業) 3인을 뽑았다. 961년에 실시된 과거에서도 지공거가 되어 왕거(王擧) 등 7인을 진사 갑과로 뽑고 명경업에 1인을 뽑았다.

평가와 의의: 최승로(崔承老)는 광종을 평하면서 “쌍기를 등용한 이후로는 문사(文士)를 높이고 중히 여겨 은례(恩禮)가 지나쳤다.”라고 하였다. 또한, 이제현(李齊賢)은 쌍기에 관해 “보탬이 없었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걸치레만 화려한 모습의 문(文)을 주창해 후세에 큰 폐단을 남겼다.”라고 하였다. 이것으로 보아 후주에서 닦은 경륜을 살려 광종의 개혁을 도왔던 쌍기의 활약이 당시 사람들에게 많은 비판을 받았던 것을 알 수 있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쌍기(雙冀))

▣ 성씨의 유래와 역사

인류사회는 혈연에서 출발하고 혈연을 중심으로 하여 발전하였기 때문에 원시시대부터 씨족에 대한 관념이 매우 강하였다. 자기 조상을 숭배하고 동족끼리 서로 사랑하고 씨족의 명예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리고 각 씨족은 다른 씨족과 구별하기 위하여 각기 명칭이 있었을 것이며, 그 명칭은 문자를 사용한 뒤에 성으로 표현하였다. 동양에 있어서 처음으로 성을 사용한 것은 한자를 발명한 중국이었으며, 처음에는 그들이 거주하는 지명이나 산·강 등의 이름으로 성을 삼았다.

우리 역사상 중국식 한자성을 쓰기 시작한 것은 중국문화를 본격적으로 수입한 이후의 일로서, 고구려는 그 사용연대를 확실히 규정할 수는 없으나 대개 장수왕 때(413~491)부터 중국에 보내는 국서에 고씨의 성을 썼으며, 백제는 근초고왕 때(346~374)부터 여씨(餘氏)라 하였다가 무왕 때(600~640)부터 부여씨라 하였으며, 신라는 진흥왕 때부터 김성을 사용하였는데 『삼국사기』와 『당서 唐書』 이전의 중국 정사에 기록되어 있는 삼국의 성을 보면, 왕실의 성을 쓴 사람이 가장 많이 나타나 있다.

역사상 우리나라 성씨의 수용 및 보급과정을 시기별로 살펴보면, 첫째 왕실과 중앙귀족층에게 수용된 시기는 삼국 말기부터 신라 하대까지이며, 둘째 지배층 일반에게 성씨가 보급되어 성과 본관체계가 확립된 시기는 고려 초기이며, 셋째 양민층에게 확대된 시기는 고려 시대 전반에 걸쳐 진행되었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성씨(姓氏))]에서 발췌

마. 참고 자료

1 문헌

- 강명주, 강승호, 김진구, 강택구, 길진봉, 김승연 외 12인, 『한국사 속의 다문화』, 도서출판 선인(2016).
- 김영순, 장은영, 김진석, 장은숙, 김창아, 안진숙 외 4인, 『다문화 사회와 리터러시 이해』, 박이정(2020).
- 손소연, 이륜, 『살아있는 다문화교육이야기』, 테크빌교육(2013).
- 일연 저, 최호 역해, 『신역 삼국유사』, 흥신문화사(1996).
- 페터 가이스, 기욤 르 캥트렉 외, 김승렬 외 옮김, 『독일 프랑스 공동 역사 교과서 1945년 이후 유럽과 세계』, 휴머니스트(2008).
- 황미혜, 손기섭, 『한국의 다문화 역사 이야기』, 한국학술정보(2018).

2 인터넷 자료

- 경주문화관광: <https://www.gyeongju.go.kr/tour/index.do>
- 국사편찬위원회 역사넷: <http://contents.history.go.kr/front>
- 나무위키: <https://namu.wiki/w/%EB%82%98%EB%AC%B4%EC%9C%84%ED%82%A4:%EB%8C%80%EB%AC%B8>
- 네이버 법률미디어: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naverlaw&logNo=221429171927>
- 문화재청: <https://www.cha.go.kr/main.html>
- 위키피디아: <https://ko.wikipedia.org/wiki>
- 통계청: <https://kostat.go.kr/portal/korea/index.action>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3 기사 자료

- NEWSTOP(2018.09.10.) '허왕후 설화'는 어떻게 실제 역사로 둔갑했나?, <https://www.newstof.com/news/articleView.html?idxno=937>
- 세계일보(2021.09.15.): 히틀러, 티베트로 과학자 보낸 사연... "우월한 아리아인 찾아와" <https://www.segye.com/newsView/20210915517582>
- 중앙선데이(2010.01.07.) 인도 아요디아의 쌍물고기 무늬는 가야의 사돈국이라는 강력한 증거 <https://www.joongang.co.kr/article/3971313#home>

4 영상 자료

- 히틀러의 결혼식 <https://www.youtube.com/watch?v=jt3wYtuhl2s>
- 내 안에 베트남이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MsdNw3uV3mo&t=11s>

3 우리는 다문화 시대에 살고 있다

2. 다문화 시대 살아가기

가. 수업 요약

| | | | | |
|-------------|-----------|---|------|---|
| 수업유형 | | 탐구활동, 모둠활동 | 총 차시 | 2 |
| 주제 | | 다문화 시대 살아가기 | | |
| 핵심 질문 | | 현대 시대를 다문화 시대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다문화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 | |
| 해당 과목 및 단원명 | | 『한국사』 IV-7. 외환위기와 사회·경제적 변화 | | |
| 성취기준 | | [10한사04-07]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살펴보고, 이 시기에 당면한 사회적 과제를 탐구한다. | | |
| 성공 역량 | 인천교육 핵심역량 | <input type="checkbox"/> 자기관리역량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의사소통역량 <input checked="" type="checkbox"/> 다양성존중역량 <input checked="" type="checkbox"/> 문제해결역량 <input checked="" type="checkbox"/> 협력역량 | | |
| | 교과역량 | <input checked="" type="checkbox"/> 비판적·창의적 사고 역량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료·정보 활용 역량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의사소통 역량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공동체·대인 관계 역량 <input type="checkbox"/> 자기 성찰·계발 역량 <input type="checkbox"/> 문화 향유 역량 | | |
| 설계 의도 | | <p>역사적으로 사람들이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현상은 자주 있었다. 환경의 변화로 생활여건이 달라져서, 아니면 새로운 농경지를 찾아서, 혹은 전쟁이나 정치적 사건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이주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국제이주는 근대 이전에는 경제적, 종교적, 정치적인 원인으로 인해 발생하였다. 그러나 근대 이후에는 점차 서구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형성과 더불어 매우 구조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무엇보다 국가들 간의 임금과 고용조건의 차이는 국제이주의 구조적 요인으로 크게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도 국경을 넘는 이주의 규모와 속도는 점점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는 사람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위해 새로운 환경을 동경하고 그곳으로 향하는 이민은 불가피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제 우리는 외국으로 이주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보편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는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p> <p>이에 현대 시대를 다문화 시대라고 부르는 이유를 통계를 통해 확인하고,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님을 현대 국제 이주의 요인을 분석하며 확인해보고자 한다. 나아가 이와 같은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한다면, 다문화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을지, 갈등을 최소화하고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가치와 자세에는 무엇이 있을지 탐구해보고자 한다.</p> | | |
| 주요 산출물 | | 모둠활동 학습지 | | |

나. 수업 개요

| 교수-학습 지도안 (1/2)차시 | | |
|--------------------|--|--|
| 단계 | 교수·학습 과정 | 교수·학습 자료 |
| 도입 (5분) | <p>▶ 다문화 사회 어디까지 왔을까?</p> <p>▶ 학습 목표 안내</p> <p>학습 목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대 시대를 다문화 시대라고 부르는 이유를 알 수 있다. 2. 현대 국제이주의 주요인을 알 수 있다. | <p>자료 1 수업 활동지</p> |
| 전개 I (10분) | <p>① 현대 시대를 다문화 시대라고 부르는 이유</p> <p>▶ 다문화 관련 국내 통계자료 분석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외국인 주민 규모 / 국내 다문화 학생 규모 - 인천지역 다문화 학생 규모 / 국내 다문화 출생 규모 <p>▶ 모둠활동 1-1. 앞으로 우리 사회의 모습 예측하기</p> <p>활동 도움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단순히 우리 사회는 앞으로 다문화 사회가 될 것이다가 아니라 학생들이 각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구체적으로 우리 사회의 모습을 예측해 볼 수 있도록 합니다. 다문화 학생이 늘어나면 학교의 모습은 어떻게 변할지, 외국인 주민이 늘어나면 사회가 어떻게 변할지(국가대표 축구 응원은 어떻게 하게 될지) 등 자유롭게 상상해 볼 수 있도록 합니다. | <p>자료 1 수업 활동지</p> |
| 전개 II (30분) | <p>② 현대 국제이주의 주요인 파악하기</p> <p>▶ 현대 국제이주 통계자료와 사례 분석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국제이주자 누적 규모 및 평균(1990-2015 통계자료) - 20세기 초 조선인의 일본 이주 - 필리핀 결혼이주여성의 한국 이주 <p>▶ 모둠활동 1-2. 현대 국제이주의 주요인 정리하기</p> <p>▶ 모둠활동 1-3.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의 지속성 파악하기</p> <p>활동 도움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사는 교사 참고자료 <자료1>, <자료2>, <자료3>을 활용합니다. 2. 학생이 어려워하는 경우 활동지의 '토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질문'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3. 현대 국제이주는 주로 선진국으로의 이주가 중심이라는 점, 20세기 초 조선에서 일본으로의 이주와 필리핀에서 한국으로의 이주는 모두 경제적으로 앞선 국가로의 경제적 이주라는 점을 학생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4. 경제적으로 앞선 국가로의 경제적 이주가 발생하는 배경을 생각해볼 수 있도록 합니다. 5. 단, 이주 요인이 모두 경제적 이유만은 아니며, 경제 외적인 이유가 존재한다는 점을 학생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 <p>자료 1 수업 활동지</p> <p>교사 참고자료 <자료1>, <자료2>, <자료3></p> |
| 정리 (5분) 및 성찰 | <p>▶ 다문화 사회 어디까지 왔을까?</p> <p>▶ 차시 예고</p> | |

| 교수-학습 지도안 (2/2)차시 | | |
|--------------------|--|--|
| 단계 | 교수·학습 과정 | 교수·학습 자료 |
| 도입 (5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은 어떤 것이 있을까? ▶ 모둠활동 2-1. 다문화 시대 일어날 수 있는 문제 예측하기 ▶ 학습 목표 안내 <p>학습 목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문화 시대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가치에 대해 말할 수 있다. | <p>자료 1 영상 “너희나라로 돌아가!” 다문화가정 늘지만 여전히 편견·차별 https://www.youtube.com/watch?v=HF2dTPchhq0</p> |
| 전개 I (10분) | <p>① 다문화 갈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둠활동 2-2. 다문화 갈등의 사례 분석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에서의 재일조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 - 한국에서의 조선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 ▶ 모둠활동 2-3. 차별과 편견의 닮은꼴 <p>활동 도움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사는 교사 참고자료 <자료4>, <자료5>를 활용합니다. 2. 일본에서의 재일조선인에 대한 차별을 먼저 이야기한 뒤 한국에서의 조선족에 대한 차별을 이야기하여 한국에서의 조선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일본에서의 재일조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과 닮아 있음을 통해 차별을 받지 않는 것과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은 별개의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도록 합니다. | <p>자료 2 수업 활동지</p> <p>교사 참고자료 <자료4>, <자료5></p> |
| 전개 II (30분) | <p>② 갈등의 극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코곰과 젤리곰』 그림책 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 읽은 후 소감 발표 ▶ 모둠활동 2-4. 다문화 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가치 생각하기 <p>활동 도움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사는 교사 참고자료 <자료6>을 활용합니다. 2. 학생들이 활동지의 질문에 대해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모둠 내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 <p>자료 2 수업 활동지</p> <p>교사 참고자료 <자료6></p> |
| 정리 (5분) 및 성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 사회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 소감 발표 | |

다. 수업 자료 및 활동지

| | | |
|--|--|-----------------------------------|
| <p style="color: #0070C0; font-weight: bold;">우리는 다문화 시대에 살고 있다.</p> | <p style="color: #E67E22; font-weight: bold; font-size: 1.2em;">다문화 시대 어디까지 왔을까?</p> | <p>()학년 ()반 ()번 이름 ()</p> |
|--|--|-----------------------------------|

1. 현대 시대를 다문화 시대라고 부르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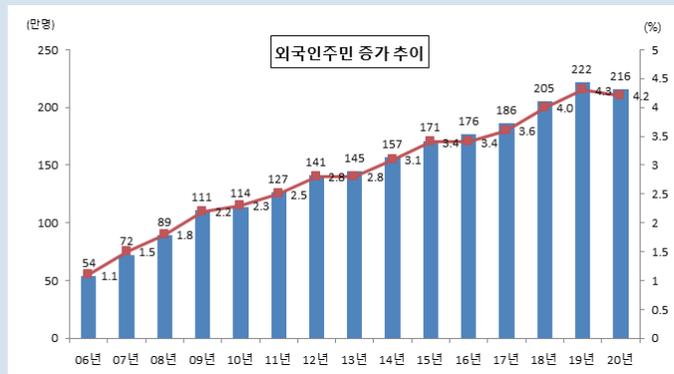
① 국내 통계자료

1. 국내 외국인 주민 규모

- 총인구 대비 비율 : 4.2%
 - 외국인 주민은 총인구(51,829,136명) 대비 4.2%
- ※ 총인구와 주민등록인구 비교

| 계 | 총인구(2020.11.1.기준) | | 주민등록인구 (2020.10.31.기준) |
|-------------|-------------------|------------|---------------------------|
| | 내국인 | 외국인 | |
| 51,829,136명 | 50,133,493명 | 1,695,643명 | 51,838,016명 |

- 연도별 추이 : 2006년 536,627명 → 2020년 2,156,417명
 - 외국인 주민 수는 최초 조사 연도인 2006년 536,627명에서 2020년 2,156,417명으로 약 4배 이상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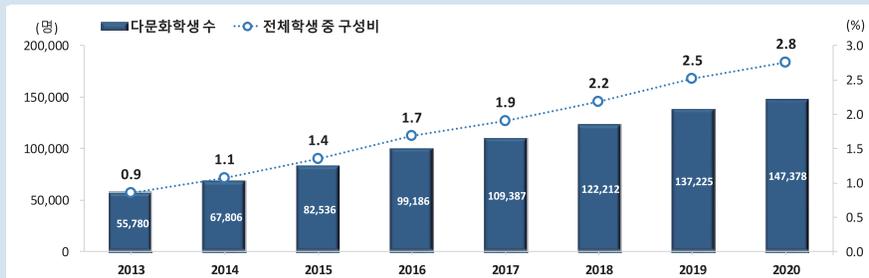


자료: 행정안전부, 「2020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

2. 국내 다문화 학생 규모

- 2020년 다문화 학생은 14만 7천여 명으로 전체 학생의 2.8%임
 -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 전체 학생 수는 감소한 반면, 다문화 학생 수는 지속 증가하여 2013년 대비 약 3배 수준으로 증가함
- * 다문화 학생 추이: (2013) 55,780명 → (2017) 109,387명 → (2020) 147,378명

〈다문화 학생 수 및 비중〉



자료: 통계청·여성가족부, 「2021 청소년 통계」

3. 인천 다문화 학생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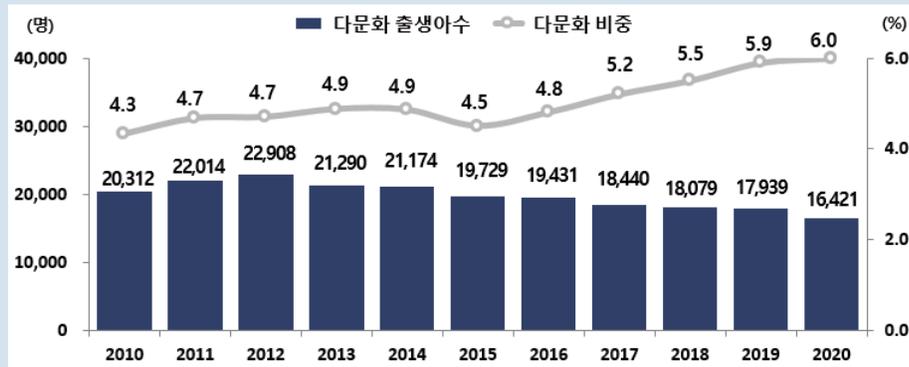


자료: 「인천교육백서」

4. 국내 다문화 출생 규모

- 2020년 다문화 출생아는 16,421명으로 전년(17,939명)보다 1,518명(-8.5%) 감소
 - 2020년 전체 출생이 27만 2천 명으로 전년보다 10.0% 감소한 데 비해, 다문화 부모의 출생아는 8.5% 감소하여 상대적으로 감소 폭이 작았음
 - 전체 출생에서 다문화 출생이 차지하는 비중은 6.0%로 전년보다 0.1%p 증가

〈다문화 출생아 수 및 전체 출생 중 다문화 비중 추이, 2010-2020년〉



자료: 통계청, 「2020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

- 모둠 활동 1-1.** 위 통계들을 활용하여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떤 모습이 될지 예측해 보자.

② 현대 시대 국제이주의 양상

1. 현대 국제이주 통계

연간 국제이주자 누적 규모 및 평균: 1990-2015

| 지역 구분 | 국제이주 규모 (백만 명) | | | | 연평균 이주 규모의 변화 (백만 명) | | | |
|-------------|----------------|-------|-------|-------|----------------------|-----------|-----------|-----------|
| | 1990 | 2000 | 2010 | 2015 | 1990-1999 | 2000-2009 | 2010-2015 | 1990-2015 |
| 전세계 | 152.6 | 182.7 | 221.7 | 243.7 | 2.0 | 4.9 | 4.4 | 3.6 |
| 선진국 | 82.4 | 103.4 | 132.6 | 140.5 | 2.1 | 2.9 | 1.6 | 2.3 |
| 개발도상국 | 70.2 | 69.3 | 89.2 | 103.2 | -0.1 | 2.0 | 2.8 | 1.3 |
| 아프리카 | 15.7 | 14.8 | 16.8 | 20.6 | -0.1 | 0.2 | 0.8 | 0.2 |
| 아시아 | 48.1 | 49.3 | 65.9 | 75.1 | 0.1 | 1.7 | 1.8 | 1.1 |
| 유럽 | 49.2 | 56.3 | 72.4 | 76.1 | 0.7 | 1.6 | 0.8 | 1.1 |
|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 | 7.2 | 6.6 | 8.2 | 9.2 | -0.1 | 0.2 | 0.2 | 0.1 |
| 북아메리카 | 27.6 | 40.4 | 51.2 | 54.5 | 1.3 | 1.1 | 0.7 | 1.1 |
| 오세아니아 | 4.7 | 5.4 | 7.1 | 8.1 | 0.1 | 0.2 | 0.2 | 0.1 |

출처: UNDESA, 2016, 1

자료: 장혁준, 「인류의 이방인화에 따른 대안적 시민성의 논리적 근거 모색」

2. 현대 국제이주의 사례① : 20세기 초 조선인의 일본 이주

조선인 노동자의 이주는 1914년 시작된 제1차 세계대전(1914-1918)이 배경이다. 일본은 연합국으로 참전했지만 주로 전투가 벌어진 곳이 유럽이어서 직접적인 피해를 보지 않았다. 오히려 러시아와 유럽 국가들의 군수품 주문이 밀려들면서 경기가 좋아졌다. 당시 일본 노동자는 세계적인 저임금 노동력이었지만, 그보다 저렴한 조선 노동자를 일본 기업과 정부가 원했다. 이에 따라 조선인의 일본 이주가 급증했다. 전쟁을 기반으로 세력을 확장하던 일본의 이해에 따라 조선인 노동자는 일본으로 도향했다. 조선인의 일본 이주는 일본의 노동력 동원으로 시작됐다. 제일조선인 탄생 배경에는 한일 합병이라는 정치적 변화와 함께 일본제국주의 자본의 급격한 성장이란 이유가 함께 있다.

자료: 로톡뉴스, 「[로드무비] 우리는 모두 이주노동자」 <https://lawtalknews.co.kr/article/DX5MU3V8BBDL>

3. 현대 국제이주의 사례② : 필리핀 결혼이주여성의 한국 이주

필리핀 여성 A: 한국 사람을 선택한 이유는 필리핀에서는 취직하기가 너무 힘들고, 특히 교육 잘못 받은 사람이면. 하지만 높은 교육을 받았더라도 취직하기가 어려워요. 한국 사람과 결혼하면 한국으로 가서 많은 기회를 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한국에서 직업도, 언제든지, 선택하면 언제든지 취직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을 선택했구요. 엄마는 카타르 도하에서 가정부로 일하고 있어요. 거기서는 만 폐소(약 25만 원)밖에 못 벌어요. 아버지도 건축 공사장에서 막노동해요. 얼마밖에 못 받고. 저는 세 번째 딸인데, 모님들이 많이 기대하지는 않지만 제 스스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필리핀 여성 B: (필리핀의 고향은) 특별히 자랑할 것은 없어요. 돈 많은 사람들이 아주 커다란 땅 갖고, 그곳에 사탕수수도 심고. (그 지역) 사람들이 하는 일은 대부분 사탕수수밭 일꾼이에요. 일꾼은 너무 힘들어요. 우리 고향은 경제적으로 아주 힘들어요. 부자는 한두 명 있는데,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가족도 대가족이기 때문에 먹기 위해 많이 일해야 해요. 그래서 특별히 자랑할 것이 없어요.

자료: 이용승, 「국제 이주의 동기에 관한 연구」

- **모둠 활동 1-2.** 자료를 토대로 모둠원들과 토의하여 현대 시대 국제 이주의 주요인을 정리해 보자.

※ 토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질문

- 1) 선진국으로의 이주 규모 변화와 개발도상국으로의 이주 규모 변화를 비교해 본다면?
- 2) 20세기 초 조선인의 일본 이주의 요인과 필리핀 결혼이주 여성의 한국 이주의 요인의 공통점을 찾아본다면?

- **모둠 활동 1-3.** <모둠활동 1-2>의 내용을 참고할 때, <모둠활동 1-1>에서 정리한 변화 방향이 지속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지를 모둠원들과 토의하여 합의된 의견과 근거를 적어보고, 발표해 보자.

※ 토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질문

- 1) <모둠활동 1-2>의 내용에서 정리한 국제 이주의 주요인의 근본 배경을 생각해 본다면?
- 2) <모둠활동 1-2>의 내용에서 정리한 국제 이주의 주요인이 일시적인지 아닌지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다문화
시대에 살고 있다.

다문화 시대 어디까지 왔을까?

()학년 ()반 ()번
이름 ()

2. 다문화 시대의 문제와 극복

〈다문화 시대의 문제〉



“너희 나라로 돌아가!” 다문화가정 늘지만 여전히 편견·차별, KBS뉴스(2019.11.18.)

<https://www.youtube.com/watch?v=HF2dTPchhq0>

- **모둠 활동 2-1.** 영상을 참고하여 다문화 시대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이 어떤 것이 있을지 모둠원과 자유롭게 토의하여 정리해 보자.

1 다문화 갈등

1. 다문화 갈등의 사례 ①

오랜 세월 동안 A 국가에서 ‘외국인’은 ‘미국인’이었습니다. 미국인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지요. 그렇다면 다른 외국인은 어떨까요? 취재를 해본 결과 차별이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느낀 것은 그런 상황을 용서할 수 없다는 분노였고, 그래서 이들이 같이 살아가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한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들도 같은 인간임을 알리고 싶었고, 미국인에게는 고개를 숙이면서 다른 아시아인들에게는 거만하게 구는 A 국가 사회를 고발하고 싶었습니다. 거기서 A 국가의 진정한 모습이 드러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지금도 여러 외국인을 취재하는 것은 A 국가가 무엇인지 어떤 나라인지 알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외국인 중에 B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략… “B가 A 국가 국민 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 “B 때문에 A 국가의 치안이 나빠졌다”, “B 때문에 마음이 더럽혀진다.”라는 악담이 인터넷에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자료: 프레시안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69023>

2. 다문화 갈등의 사례 ②

‘증가하는 C 범죄, 대책 시급해’, ‘외국인 범죄자 중 절반이 C’, ‘C 못 들어오게 그물코 좁혀야’ …중략… 지난해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외국인 범죄자 중 C가 절반 이상으로 가장 많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D 국가에 체류하고 있는 C 수에 비례하는 결과라는 분석이 더 정확하다. C의 범죄율이 내국인이나 다른 국적에 비해 높지 않음에도 반외국인 단체와 극우 인터넷 사이트에서 범죄 집단으로 몰아가는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인종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자료: 미디어오늘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0192>

- **모둠 활동 2-2.** 모둠원과 토의하여 A 국가와 D 국가는 어떤 국가에 해당하는지, B와 C는 어떤 민족에 해당하는지 정리해 보자.

- **모둠 활동 2-3.** A, D 국가와 B, C 민족의 구분이 쉽지 않은 이유(= 닮아 있는 이유)를 모둠원들과 토의하여 합의된 의견을 적어보고, 발표해 보자.

2 갈등의 극복

- **모둠 활동 2-4.** 그림책을 읽고 다음 4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모둠원들과 토의하여 작성하고, 발표해 보자.



- ① 그림책에 나와 있는 편견과 차별 장면들을 찾아서 정리해보자.

- ② 그림책이 주는 메시지를 긍정문으로 표현한다면?

- ③ 우리 주변에서 편견을 갖는 경우나 차별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 ④ 초코틴과 젤라코(초코곰과 젤리곰의 자식들)가 우리 학교에 다닌다면,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

라. 교사 참고 자료

자료 1 인류 이주 역사 개관

인간은 이주하는 본성을 지닌 ‘호모 미그란스(Homo Migrans)’이다. 따라서 인간의 이주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다. 현대인의 조상인 호모 사피엔스(Homo Sapiens)는 수렵과 채취 활동을 하면서 이동하였고, 그들은 10만 년 전 아프리카에서 이주하기 시작하여 지구상의 모든 지역으로 퍼져나갔다. 이후 인류는 농업혁명을 통해 정주(定住)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 오랜 시간에 걸쳐 이주하였고, 정주화 이후로도 크고 작은 이주들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즉 인간은 새로운 기회를 찾아서 또는 빈곤, 갈등, 전쟁, 자연재해 등을 피해 늘 이주하여 왔다. 농업혁명 이후의 이주 역사를 몇 개의 국면으로 나누어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국면은 기원전 5000년경부터 기원 500년경까지의 시기이다. 이 시기에 농업생산과 더불어 인구가 증가했고, 동물의 가축화로 낙타, 말 등이 운송수단으로 이용되었다. 그리고 바퀴의 고안은 사람들의 이동을 더욱 가속화시켰다. 이 기간 동안에 인도 유럽어족이 중앙아시아에서 이란과 인도 북부지역으로 확산했고, 반투(Bantu) 어족이 지금의 나이지리아와 카메룬에서 아프리카 중부, 동부, 남부로 이주했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인더스, 황하 유역 등지에 인구의 유입과 증가로 도시가 생겨났으며, 지중해와 흑해 연안에서도 그리스인들이 번성하는 상업식민지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이주가 수반되었고, 로마가 주변지역을 정복하고 흡수하는 제국 팽창 과정에서 이주가 수반됐다. 또한 도시건설, 교역, 전쟁, 사원건설 등의 사업은 노동자와 군인의 이동을 촉진시켰다. 이들 중에는 강제노역에 동원된 수많은 포로와 노예가 있었다. 이 시기에 일어난 이주에는 게르만족의 이동, 바이킹(Vikings)과 십자군 이동도 포함된다.

두 번째 국면으로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 이후 3세기 동안의 시기를 들 수 있다. 15세기 말 지리상의 발견은 새로운 정복의 물결과 유럽의 팽창으로 이어졌고, 이주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소위 ‘근대초기’라 불리는 이 시기에 왕조국가(dynastystate)가 발달했고, 비유럽 세계에 대한 정복과 식민은 국가를 넘어선 이주에 박차를 가했다. 따라서 여러 유형의 이주가 촉발됐다. 우선 인구 밀도가 높은 유럽에서 인구가 적고 덜 발달한 지역으로 대규모의 ‘자발적인 이주’가 일어났다. 따라서 북미, 호주, 오세아니아, 남미, 아프리카 지역으로 이주 한 유럽인 수가 6000만 정도로 추정된다. 유럽인들은 선원, 군인, 농부, 교역자, 행정관 등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이주했고, 이들의 이주는 유럽 국가들과 식민지 경제구조와 문화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1600년 이후 종교전쟁은 유럽 내의 문화와 종교의 변화뿐 만 아니라 이주를 촉진시키기도 했다. 이 시기는 또한 자본주의가 발달하는 시기로 그 과정에서 이주는 사회, 정치,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결과를 초래했다. 국가의 보호를 받는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이주했고, 중상주의 국가들은 자국민 중 노동자, 불만을 품은 군인, 범죄 기소자들, 고아를 해외에 정착시키고자 독려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이시기에 시작된 노예의 강제이주는 19세기까지 계속되었다.

세 번째 국면으로 지난 2~3세기의 이주를 살펴보면 일련의 주요 사건과 시기를 식별할 수 있다. 이주사가 로빈 코헨(Robin Cohen)에 따르면 18, 19세기의 가장 중요한 이주는 노예의 강제이주였다. 1500만으로 추정되는 노예들이 주로 서아프리카에서 ‘신대륙’으로 강제 이주되었고, 그 보다 적은 수이기는 하나 인도양과 지중해를 건너 이주되었다. 그러나 노예제도가 종식되자 노예 노동력이 계약노동자(indentured labor)로 대체되었고, 중국, 인도, 일본으로부터 상당수의 계약노동자가 미국, 유럽과 유럽 식민지의 플랜테이션과 광산, 철도건설 노동자로 계속 이주했다. 식민당국은 엄격한 규율로 계약노동자들을 통제했고, 그들과 맺은 계약을 지키지 않았으며, 그들의 노동을 착취했다. 하지만 그들 중 상당수가 계약이 끝난 후에 모국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19세기 내내 유럽으로부터 아메리카 대륙으로 향하는 이주가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19세기 말에 이르러 반식민주의(anti-colonialism)의 흥기와 더불어 유럽팽창과 관련된 이주는 막을 내렸다. 이후 50여 년 동안 다시 유럽으로 돌아오는 역(逆)이주 현상이 일어났다.

현재의 이주와 관련된 네 번째 국면 시기에는 산업혁명의 여파로 다시 저개발지역과 개발도상 국가로부터 선진 지역으로의 이주가 발생했다. 특히 1850년에서 1920년대 사이에 미국이 산업국가로 흥기하자 유럽에서 수많은 노동자들과 하층 농민들이 새로운 자유와 무상분배의 개척지를 찾아 북미대륙으로 향했다. 이 시기 1200만에 달하는 이주자들이 뉴욕의

엘리스 섬(Ellis Island)에 도착했고, 그들은 대부분 동유럽과 남유럽에서 빈곤, 지주의 착취, 폭력과 같은 자국의 상황을 피해 더 나은 삶의 기회를 찾아 떠나왔다. 그러므로 이 산업화 시기의 이주노동은 자본주의 세계시장 건설에 있어서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제 1차 세계대전은 19세기 중반부터 북미대륙으로 향하던 대규모 이주에 제동을 걸었다. 하지만 수백만의 군인과 식민지 용병들이 유럽 대륙 내에서 이동했다. 특히 1945년 이후 이주의 규모와 범위는 그 어느 때 보다 크고 광범위해졌다. 제 2차 세계대전 후 유럽, 북미, 호주는 경제적 호황을 유지하기 위해 노동력이 필요했다. 이 시기에는 유럽에서 북미대륙으로 향하는 이민은 급격히 감소했고, 저개발국가로부터 투자와 생산이 증대된 선진산업국가로 향하는 이민이 대규모로 이루어졌다.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약 1300만의 이민이 유럽으로 이주했고, 같은 시기에 1000만 명 이상이 미국으로 이주했다. 이들은 대부분 '초청노동자(guest-workers)'로 이주했지만 계약 종료 후 모국으로 돌아간 사람은 많지 않았다. 이들 중에는 과거 식민지의 '식민지 노동자들(colonial workers)'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서 수많은 터키인들이 독일로, 북 아프리카인들이 프랑스와 벨기에로 노동자로 일하기 위해서 이주했다. 또한 이 시기에 100만 명 정도의 영국인이 호주로 갔다. 같은 시기에 지구상 다른 지역에서는 여전히 탈식민화(decolonialization)로 인한 이주가 일어났다. 식민지에서 독립전쟁이 일어나자 수많은 난민이 생겼고, 과거에 식민지 개척자로 이주했던 사람들(colonizer)은 모국으로 향했다. 이와 더불어 자국을 떠나 식민모국으로 향한 과거 식민지인들도 상당수 있었다. 이외에도 탈식민화의 영향 하에 1947년 인도가 분할(Partition)되자 수백만 명의 힌두교인과 무슬림이 이주했고, 이스라엘이 건설되자 유대인과 팔레스타인들이 이주했다. 따라서 이 시기는 그 어느 때 보다 난민과 추방자의 '비자발적인 이주'가 빈번하게 일어난 시기이고, 불법이주자 수 또한 몇 백 만 명에 달했다. 1970년대에 이르면 유럽으로부터 국경을 넘어서 이주의 붐이 가라앉았다.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아시아로 옮겨졌고, 이후 아시아 내에서의 노동이주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또한 다음의 <표-1>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지난 20년 사이에 산업화된 지역으로 향하는 이주는 난민, 망명자, 불법 이주자를 포함해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표-1> 세계 지역별 국제이주, 1970~2005 (단위: 백만명)

| 년도 | 1970년 | 1980년 | 1990년 | 2000년 | 2005년 |
|-------|-------|-------|-------|-------|--------|
| 전세계이민 | 81.5 | 99.8 | 154.0 | 174.9 | 200 추정 |
| 선진국 | 38.3 | 47.7 | 89.7 | 110.3 | 데이터없음 |
| 개발도상국 | 43.2 | 52.1 | 64.3 | 64.6 | 데이터없음 |

출처: UNDES, World Economic and Social Survey: International Migration(New York: UN, 2004)

출처: 황해성, 「왜 호모 미그란스인가? : 이주사의 최근 연구동향과 그 의미」

한인들 역시 지난 수세기 동안 국제이주에 연루되어왔다. 비록 모든 한인들의 이주를 노동이주로 간주할 수는 없지만, 노동력의 관점에서 볼 때 한인들의 국제이주 역사는 크게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다. 20세기 초 하와이 계약노동자를 비롯해,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로 전락하던 시기에 일본과 만주 및 연해주 등으로 자국민력을 송출하였고 1960년대 이후에는 독일, 베트남, 중등 등지로 인력을 송출하였다. 특히 중동산유국들이 아시아 저개발국에서 건설노동자와 가정부 등 단순인력을 대량 수입하면서부터 아시아 국가간 노동력 이동이 활성화된다. 그러다가 1980년대 후반, 오일달러의 위력이 쇠퇴함에 따라 중동의 외국인력 수요가 감소된 반면,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일본과 그 뒤를 쫓는 신흥공업국들, 즉 한국·대만·말레이시아 등이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기 시작함에 따라 아시아 국가간 노동력 이동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한다. 오늘날 한국은 상당수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유입되면서 과거 이민자 송출국에서 유입국이 되어가고 있다. 한국의 높은 임금수준과 노동시장 분절에 따른 풍부한 취업기회는 아시아 각국으로부터 외국인노동자를 유인한 기본요인이라 할 수 있다. 쌍방향의 이주를 경험하면서 한국은 이미 국제이주의 터미널이 되고 있다. 한국인들은 중국, 필리핀, 베트남, 그리고 인도네시아 등지로 기업, 고용, 교육 및 여행 등의 목적을 갖고 떠나고, 많은 사람들은 또한 이들 지역을 떠나 한국으로 고용, 교육, 결혼 등의 목적으로 들어온다.

출처: 전형권, 「국제이주이론의 관점에서 본 노동디아스포라의 성격」

자료 2 현대 국제이주 통계

연간 국제이주자 누적 규모 및 평균: 1990-2015

| 지역 구분 | 국제이주 규모(백만 명) | | | | 연평균 이주 규모의 변화(백만 명) | | | |
|-------------|---------------|-------|-------|-------|---------------------|-----------|-----------|-----------|
| | 1990 | 2000 | 2010 | 2015 | 1990-1999 | 2000-2009 | 2010-2015 | 1990-2015 |
| 전세계 | 152.6 | 182.7 | 221.7 | 243.7 | 2.0 | 4.9 | 4.4 | 3.6 |
| 선진국 | 82.4 | 103.4 | 132.6 | 140.5 | 2.1 | 2.9 | 1.6 | 2.3 |
| 개발도상국 | 70.2 | 69.3 | 89.2 | 103.2 | -0.1 | 2.0 | 2.8 | 1.3 |
| 아프리카 | 15.7 | 14.8 | 16.8 | 20.6 | -0.1 | 0.2 | 0.8 | 0.2 |
| 아시아 | 48.1 | 49.3 | 65.9 | 75.1 | 0.1 | 1.7 | 1.8 | 1.1 |
| 유럽 | 49.2 | 56.3 | 72.4 | 76.1 | 0.7 | 1.6 | 0.8 | 1.1 |
|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 | 7.2 | 6.6 | 8.2 | 9.2 | -0.1 | 0.2 | 0.2 | 0.1 |
| 북아메리카 | 27.6 | 40.4 | 51.2 | 54.5 | 1.3 | 1.1 | 0.7 | 1.1 |
| 오세아니아 | 4.7 | 5.4 | 7.1 | 8.1 | 0.1 | 0.2 | 0.2 | 0.1 |

출처: UNDESA, 2016, 1

UN의 집계에 따르면, 2015년 국제이주자 수는 전세계적으로 2억 4,400만 명이다. 이는 21세기가 시작된 1990년 대비 약 41%가 증가한 것으로 2015년 기준 전세계 인구(73억 4,900만 명)의 3.3%를 차지한다. 절대적 비중이 그리 높다고 할 수는 없지만, 자본주의 경제의 전지구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그 숫자는 가히 폭발적이라고 할만큼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이주자들의 삶의 궤적과 상황은 그들의 정착지 국가는 물론이고, 출신지 국가와 지역 및 이동 경로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이주자들의 삶은 세계의 나머지 96.7%에 해당하는 비이주자들의 삶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앞으로 그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짐작된다.

1990년에서 2015년 사이 전세계로 이주한 국제이주자 수는 대략 9,100만 명으로 이 기간 동안 60% 가까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증가세는 1990년에서 1999년까지 연 200만 명씩, 2000년에서 2009년까지는 연 490만 명씩, 2010년에서 2015년까지 연 440만 명씩 증가한 것으로 1990년 이후 평균적으로 연간 약 360만 명의 신규 국제이주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2015년 기준 국제이주자 중 약 58%가 선진국 지역(developed regions)에, 42%는 개발도상국 지역(developing regions)에서의 거주를 선택했다. 이를 21세기의 시작을 전후한 1990년에서 2015년 사이로 확대해 보면, 전세계에 추가된 국제이주자 9,100만 중 5,800만 명(64%)이 선진국으로 이주한 반면, 개발도상국은 3,300만 명(36%)이 증가하는 데 그쳤다. 대륙별로 보면, 선진국이 밀집된 유럽(2,690만 명), 북아메리카(2,690만 명)로의 이주가 전체 이주의 약 59%를 차지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는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연안국으로의 이주는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또한, 2015년을 기준으로 국제이주자의 51% 이상은 미국, 독일,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영국, 아랍에미리트 공화국, 캐나다, 프랑스, 오스트레일리아, 스페인의 상위 10개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출처: 장혁준, 「인류의 이방인화에 따른 대안적 시민성의 논리적 근거 모색」

자료 3 국제이주 요인

유엔 국제이주기구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은 이주의 원인은 크게 경제적 요인, 인구학적 요인, 환경적 요인, 국가 행정적 요인, 분쟁, 다국가적 네트워크 효과로 구분하고 있다. 첫째, 경제적 요인은 국가별로 점점 벌어져가는 삶의 질과 임금의 차이는 이주자들을 거주국으로 끌어들이는 자석과 같은 역할(pull-factor)을 하는 것이다. 둘째, 인구학적 요인은 선진국의 저출산, 고령화 현상에 따른 노동력 부족은 개발도상국의 노동력 과밀과 관련한 인구의 이동을 일으키게 된다. 셋째, 환경적 요인은 지진이나 산업재해, 홍수 및 가뭄 등으로 인해서도 이주가 발생하는 데, 환경적 요소로 인해 일어나는 이주는 주로 국내 이주가 많다. 넷째, 국가행정적 요인은 빈약한 정부, 부패, 그리고 좋은 교육체제와 건강 관련 시설의 부재는 국제이주를 촉진하는 요인이 된다. 다섯째, 분쟁 요인은 내전이나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분쟁이나 인종, 종교 등에 따른 차별로 인해 자유를 되찾고자 하는 소망에 따른 이주를 말한다. 여섯째, 다국가적 네트워크 효과는 해외에 살고 있는 가족과 친지들은 이주과정을 용이하게 하는데 촉매 역할을 하며 이주를 촉진하게 된다.

출처: <https://republicofkorea.iom.int/>

자료 4 다문화 갈등의 사례 ① : 재일조선인

“더러운 한국인, 일본에서 나가라!” 진격의 ‘극우’는 누구?

프레시안 : 당신은 그동안 일본 내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천착했고, 기존의 저서들 중에도 <르포 차별과 빈곤의 외국인 노동자>(외국인 연수생 살인사건) 등이 있지요. 여기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습니까?

야스다 고이치(이하 ‘야스다’) : 오랜 세월 동안 일본에서 ‘외국인’은 ‘미국인’이었습니다. 미국인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지요. 그렇다면 다른 외국인은 어떨까요? 취재를 해본 결과 차별이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느낀 것은 그런 상황을 용서할 수 없다는 분노였고, 그래서 이들이 같이 살아가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한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들도 같은 인간임을 알고 싶었고, 미국인에게는 고개를 숙이면서 다른 아시아인들에게는 거만하게 구는 일본 사회를 고발하고 싶었습니다. 거기서 일본의 진정한 모습이 드러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지금도 여러 외국인을 취재하는 것은 일본이 무엇인지 어떤 나라인지 알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외국인 중에 재일 코리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일 코리안에게는 다른 외국인들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먼저 대부분 태어날 때부터 일본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 문제를 빼놓고 재일 코리안을 논할 수 없지요. 일본인은 재일 코리안에게 애증을 동시에 느끼고 있습니다. 친근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반면에 증오 또한 생기기 쉽습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기 때문에 언제나 망설이게 됩니다. 언론에서도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전 아무도 안한다면 제가 하고 싶다고 나선 겁니다.

“외국인이 일본인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 “외국인 때문에 일본의 치안이 나빠졌다”, “외국인 때문에 마을이 더럽혀진다”라는 악담이 인터넷에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나아가 일부 네티즌들은 뉴 커머 외국인들만이 아니라, 올드 커머(Old Comer)라고 불리는 외국인, 즉 재일 코리안에게도 공격의 칼날을 들이댔습니다. “외국인 주제에 왜 일본인과 똑같은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재일 코리안은 일본의 복지에 무임승차하고 있다”, “일본의 경제가 안 좋은 것은 재일 코리안 때문이다” 같은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안타깝게도 일본에서는 예전부터 재일 코리안을 차별하는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가난한 재일 코리안이 일본의 치안을 어지럽힌다, 재일 코리안은 범죄자가 많다는 이야기는 결코 새롭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21세기 들어서 유통되는 재일 코리안에 대한 이야기는 오래된 세대의 '위에서 내려다보는 차별'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일본의 일부에서 떠들고 있는 '재일 코리안이 일본을 지배한다'는 말의 의미는 '밑에서 올려다보는 차별'입니다. 그것은 유대인을 박해한 옛날 유럽의 분위기와 비슷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본 언론이 재일 코리안 편을 드는 것은 재일 코리안이 언론을 차지해 버렸기 때문이다”, “일본의 모든 자본이 재일 코리안에게 조종당하고 있다”, “정치인의 대부분이 재일 코리안에게 돈을 받고 있다”, “일본인의 생활이 어려워는데, 재일 코리안은 호화롭게 살고 있다” 같은 이야기가 인터넷 게시판에 확산되어, 지금은 SNS에서도 많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아무 근거 없는 음모론입니다. 원래 선거권도 없는 재일 코리안이 일본을 지배할 수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를 믿는 사람이 갑자기 늘었습니다.

정당한 정치 담론이 아니라, 순전히 음모론입니다. 한국인과 재일 코리안에게 “죽어”, “죽여”라며 저열한 말을 내뱉고 있는 걸 보면, 개인적으로는 ‘보수’도 ‘우익’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자도 아닙니다. 저는 ‘인종차별주의자’, ‘배외주의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인간을 자의적으로 분류해서 차별하는 단순한 ‘레이시스트’입니다. 유럽의 네오 나치, 미국의 KKK 등과 같은 이미지입니다. 그렇지만 레이시스트라는 말이 아직 일반적이지 않아서, 일본에서는 ‘넛우익’이라고 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69023>

자료 5 다문화 갈등의 사례 ② : 조선족

“조선족 범죄자 취급은 日 우익 재일동포 차별과 같다”

‘증가하는 조선족 범죄, 대책 시급해’, ‘외국인 범죄자 중 절반이 조선족’, ‘외국인 性 범죄 해마다 증가’, ‘조선족 범죄자 못 들어오게 그물코 좁혀야’

최근 조선족 범죄 관련 보도를 하는 상당수 언론은 조선족이 저지르는 범죄가 정도를 벗어난 심각한 사회문재인 것처럼 묘사하는 일이 많다. 기사에서 사례로 드는 것도 살인과 성폭행, 폭력 등 자극적인 강력 범죄 위주여서 독자들이 조선족을 위험한 범죄 집단으로 오해할 수 있는 부분도 존재한다. 하지만 실제 조선족들의 범죄 비율과 유형은 언론이 사실보다 과장하거나 왜곡해 전달한 측면도 크다. 지난해 9월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외국인 범죄자 중 중국 국적이 절반 이상으로 가장 많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중국 국적자 수에 비례하는 결과라는 분석이 더 정확하다. 더군다나 이들이 모두 조선족이라는 주장도 근거가 불명확하다.

지난해 12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외국인 밀집지역의 범죄와 치안실태 연구’를 보면 2011년을 기준으로 국적 별 외국인 10만 명당 범죄자 수는 몽골이 7064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이 미국(6756명)과 캐나다(4124명) 순으로, 중국은 8번째로 범죄자가 많은 나라로 분류됐다. 오윤택 경찰청 외사수사와 주임도 17일 미디어오늘과 전화통화에서 “중국인이 체류 외국인의 절반 이상이기 때문에 범죄도 체류자 수에 비해 더 많거나 적다고 할 정도의 수치는 아니다”며 “체류 인원 비율에 따라서 그만큼 외국인 범죄 숫자가 많을 수밖에 없고 조선족을 비롯한 특정 국적과 인종의 범죄율이 두드러지게 높다는 통계는 나온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14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집계한 체류외국인 국적별 현황에 따르면 지난 5월까지 한국에 체류 중인 중국인은 모두 69만6975명으로 전체 체류 외국인(144만278명)의 48%를 차지했다. 이 중 조선족은 47만1257명에 달한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경찰청에서 분류한 5대 범죄(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도 내국인 범죄자 10만 명당 검거 인원은 2011년 3692명으로 외국인(2429명)보다 현저하게 높게 나타났다. 내국인은 전체 범죄와 5대 범죄 모두 외국인보다 높은 범죄 발생률을 보였다. 이처럼 조선족들의 범죄율이 내국인이나 다른 국적에 비해 높지 않음에도 반(反)외국인단체와 일베 등 극우 인터넷 사이트에서 범죄 집단으로 몰아가는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조선족을 표적으로 한 ‘인종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김성윤 문화사회연구소 연구원은 “일본의 극우 이데올로기는 북한 사람이나 자이니치(在日·일본에 사는 한국인 또는 조선인)를 통해 외부에 가상의 적을 만들면서 자국 통합을 꾀하는 데 비해 최근 우리나라의 조선족 혐오는 다분히 대중적 차원으로 비롯된 인종주의”라며 “자신들이 속해있는 공동체가 어떤 특정한 경제·문화적 불안요소가 있을 때 이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상징적인 기제로 발동하는 대중적 위기관리 방식”이라고 해석했다. 실제로 일본의 극우단체 재특회(재일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시민모임)는 재일조선인을 ‘조센진’보다 더 멸시적인 말인 ‘총코’라고 부른다. 일본 우익들의 실체를 다룬 책으로 최근 한국에서 출판돼 화제를 모았던 ‘거리로 나온 넷우익’을 보면 사무라이 마코토 재특회장은 “일본 야쿠자 중에서 30%는 조선인이다”거나 “범죄투성이·부정투성이·반일투성이 불령(不逞) 재일 코리안의 실태를 사회에 전해 나가겠다”는 등의 차별적 발언과 선동을 서슴지 않고 있다. 재일교포를 일본사회에 ‘범죄자’ 집단으로 인식시켜 우익들의 공격 행위나 사회적 차별을 정당화하려는 일종의 ‘프레임’ 전략인 셈이다.

이지훈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도 “일본에 대한 배타적 민족주의가 동일하게 조선족으로 이어지면서 한국과 중국의 이중 정체성을 가진 조선족을 집단주의적 시각으로 거부하는 정서가 생겼다”며 “우리나라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잘 사는 선진국이나 전문직 종사자에게는 상당히 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자기보다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조선족에게는 중국에 대한 부정적 감정과 함께 상당히 복합적인 차별 형태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 같은 우열적 인종주의는 일본 우익들의 자이니치 차별과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이 19세기 때 서구의 사회진화론이라는 우생학적 패러다임을 가장 일찍 수입하면서 자신들이 강인하고 우수한 종족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만들었는데 그런 관점이 우리나라에도 투영돼 있다”며 “조선족을 비하하는 사람들은 조선족이 우리를 도와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강자여서 먹여 살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출처: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0192>

자료 6 차별과 편견, 그림책 「초코곰과 젤리곰」으로 알아볼까?

<https://news.edupang.com/news/article.html?no=36836>



마. 참고 자료

1 문헌

- 안 케비, 『초코곰과 젤리곰』, 한솔수북(2020)
- 장혁준(2018), 인류의 이방인화에 따른 대안적 시민성의 논리적 근거 모색
- 이용승(2014), 국제 이주의 동기에 관한 연구
- 황혜성(2011), 왜 호모 미그란스인가? : 이주사의 최근 연구동향과 그 의미
- 전형권(2007), 국제이주이론의 관점에서 본 노동디아스포라의 성격

2 인터넷 자료

- “너희 나라로 돌아가!” 다문화가정 늘지만 여전히 편견·차별
(<https://www.youtube.com/watch?v=MsdNw3uV3mo&t=11s>)
- IOM 국제이주기구(<https://republicofkorea.iom.int/>)

3 기사 자료

- 이범준, 「[로드무비] 우리는 모두 이주노동자」, 로톡뉴스, 2022.4.8.
- 김용언, “더러운 한국인, 일본에서 나가라!” 진격의 ‘극우’는 누구?, 프레시안, 2014.6.12.
- 강성원, “조선족 범죄자 취급은 日우익 제일동포 차별과 같다”, 미디어오늘, 2013.6.18.
- 에듀인뉴스, 차별과 편견, 그림책 ‘초코곰과 젤리곰’으로 알아볼까?, 에듀팡, 2020.1.28.

4 기타 자료

- 행정안전부, 「2020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 통계청·여성가족부, 「2021 청소년 통계」
- 인천시교육청, 「인천교육백서」
- 통계청, 「2020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

4

일제 강제동원의 역사 바로 알리기

4-1

강제동원

4-2

일본군 위안부



4 일제 강제동원의 역사 바로 알리기

1. 어서와 인천은 처음이지

가. 수업 요약

| | | | | |
|--------------------|------------------|---|-------------|---|
| 수업유형 | | 프로젝트 기반 학습(Project Based Learning, PBL) | 총 차시 | 6 |
| 프로젝트명 | | 일제 강제동원의 역사 바로 알리기 프로젝트 '어서와 인천은 처음이지' | | |
| 핵심 질문 | | 험한과 반일을 넘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 | |
| 해당 과목 및 단원명 | | 고등학교 한국사 Ⅲ-5. 전시동원 체제와 민중의 삶 고등학교 동아시아사 V-3. 갈등과 화해 | | |
| 성취기준 | | [10한사03-05] 일제의 침략 전쟁 이후 식민지 지배 방식의 변화를 살펴보고, 전시 동원 체제로 달라진 민중의 삶을 사례 중심으로 파악한다. [12동사05-03] 오늘날 동아시아 국가 간의 갈등과 분쟁 사례를 살펴보고 그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갖는다. | | |
| 성공 역량 | 인천교육 핵심역량 | <input type="checkbox"/> 자기관리역량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의사소통역량 <input checked="" type="checkbox"/> 다양성존중역량 <input checked="" type="checkbox"/> 문제해결역량 <input checked="" type="checkbox"/> 협력역량 | | |
| | 교과역량 | <input checked="" type="checkbox"/> 비판적·창의적 사고 역량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료·정보 활용 역량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의사소통 역량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공동체·대인 관계 역량 <input type="checkbox"/> 자기 성찰·계발 역량 <input type="checkbox"/> 문화 향유 역량 | | |
| 설계 의도 | | 미디어를 통해 접하는 한일 양국의 험한과 반일의 감정은 위태롭다. 역사왜곡 교과서,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 동원 문제, 독도 영유권 등을 둘러싼 논쟁과 마찰은 한일 관계에서 걸림돌이 되어 왔다. 한국 학생들은 정확한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냉정하게 비판하기보다는, 적대적 반일 감정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다. 일본 학생들은 식민지 역사에 대해 배우지 못해 한국의 반일 정서를 이해하지 못하고, 한국은 사과를 커녕 험한까지 외치는 일본을 기막혀한다. 배우고 알게 되면, 그래서 상처를 이해하게 되면 달라지지 않을까. 화해를 위해 진실을 알리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기도 하다. 인천에는 일제 강점기, 강제 동원이 이루어진 전쟁 유적이 다수 남아 있다. 인천과 자매 결연을 맺은 일본 기타큐슈시의 학생들을 초청하여, 인천(부평)에 남아있는 아시아 태평양 전쟁 유적을 통해 식민지 역사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PBL 수업을 구상해보았다. '마음 열기'를 위해, 잘 알려지지 않은 일본 내의 반성적인 역사 청산의 노력과 양심적 시민들의 활동을 직접 찾아보도록 유도한다. 무지와 오해가 쌓이고 혐오로 이어지면 모두가 위험해질 수 있음을 기억하며 교류와 평화의 수업으로 미래 세대의 화해를 앞당길 수 있기를 기대한다. | | |
| 주요 산출물 | | 초청장 작성, 일본 학생들과 함께 식민지 시대의 유적지를 둘러보는 인천(부평) 답사 코스 개발, 안내 교육 자료 만들기, 상호 간의 편견을 해소하고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한일 학생회담(토론) 대응자료(모의 회담 진행) | | |

나. 수업 개요

| 단계 | 차시 | 교수·학습 활동 | 유의점 | 교수학습자료 |
|----|-------------|--|--|---|
| 도입 | 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일 포스터, '노재팬' 운동 등을 떠올리며, 일본에 대한 학생들의 솔직한 감정을 확인 잘 알려지지 않은 일본의 반성적 움직임, 양심적 시민운동 (활동지 1 참고)에 대해 생각 나눔 교육과정 속에서 배움의 기회가 적었던 일본 학생들도 식민지 역사를 제대로 알게 되면 달라질 것이라 믿으며, 자매 결연을 맺은 일본 학교 학생들을 초청하여 2박 3일 역사 바로 알리기 프로그램 개발하는 프로젝트 수업 안내 의뢰인의 편지(활동지 2)를 읽고, 탐구할 내용과 제출할 산출물을 확인한 후, 모둠을 구성하고 활동을 계획하며 초청장 문구 구상하기 | <p>활동지 1 은 학교 급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인물을 찾게 해도 좋고, 사진으로 인물을 제시하고 이름과 활동 내용을 찾도록 해도 좋다.</p> | 반일정서에 대한 사진 자료, 혐오 피라미드, 일본의 반성적 움직임 검색, 의뢰인의 편지 |
| 실행 | 주제 선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제 동원의 역사를 재확인하고, 모둠별로 피해자 구술기록을 읽은 후, 피해자의 삶에 대한 짧은 동영상 만들어보기(활동지 3 참고) 군함도에 대한 상반된 두 영상을 보고, 나가사키 관광홈페이지 수정 보완하기(활동지 4 참고) ①강제동원 피해자 소송 재판 과정, ②일본이 다른 나라에 한 식민지 배상 사례, ③인천(부평)의 전쟁 유적 답사 코스 개발 등 모둠별로 주제를 선정하기 | <p>짧은 동영상 제작 방법으로 종이 프로토타입을 예시로 제시할 수 있다.</p> | 〈일제 강제동원피해자 지원재단 홈페이지〉의 구술기록, 인천조병창구술자료집(이상의 지음) |
| | 자료 수집 및 분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강제동원 피해자 소송 재판의 흐름과 쟁점을 이해하고, 그 문제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1965년 한일 기본조약과 청구권 협정의 문제점을 파악하기(활동지 5 참고, 동영상 시청) ②중국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일본 전범 기업간의 화해의 해결이 이루어진 과정을 검토하고, 우리와 차이점 비교하기(활동지 6 참고), 한·일 학생 회담을 준비하며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보기(활동지 7 참고) ③인천(부평)의 전쟁유적을 조사하고, 필수 답사 코스로 포함될 지역을 선정하기(활동지 8 참고), 반전 평화교육의 현장임을 기억하며, 하루 답사 코스를 의미 있게 짜보기(활동지 9 참고) | <p>모둠별로 수집하고 작성한 자료는 패들렛에 올려 공유하거나, 교(과)실에 게시한다.</p> <p>활동지 1 들은 학교급에 따라, 자유로운 조사활동을 위해 제시하지 않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p> | <p>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한 동영상, 강제징용피해자 구제 법적 쟁점에 대한 기사</p> <p>『강제징용자의 질문』, 『완전하지도 끝나지도 않았다』 등 일본 변호사들의 저서</p> <p>〈부평문화원 홈페이지〉 근대 문화역사 현장</p> |
| | 결과물 개발 및 검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출할 산출물(초청장, 피해자 삶을 담은 짧은 동영상, 군함도에 대한 나가사키 홈페이지 보완자료, 전쟁유적 안내 자료 및 답사 코스) 정리 | | |
| 발표 | 5-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둠별 조사내용 및 산출물 발표 | | |
| 정리 | 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찰일지 정리 작성 | | |

다. 수업 자료 및 활동지

활동지 1

이 일본인들은 누구일까요? 무슨 일을 하였을까요?

| [] 모둠 | | 학년 반 번 이름: |
|---|---|--|
| # 연관검색어를 참고하여 영상과 자료를 찾아보고, 활동 내용을 요약하여 적어봅시다. | | |
|   | 연관검색어 #조선 독립운동가 변호 #천황 암살 시도 #일본인으로 건국훈장 | <p>일본인으로서 건국훈장을 받은 독립유공자들이다. 후세다쓰지(좌)는 한국의 독립운동을 지지하면서, 1911년 '조선의 독립운동에 경의를 표함'이라는 글을 발표하기도 했다. 일본 황궁에 폭탄을 던진 의열단원 김지섭의 변호와 천황부자 암살을 기획한 박열과 가네코 후미코의 변론을 맡았고 2004년 건국훈장 수여가 결정되었다. 박열의 부인이자 박문자(朴文子)라는 필명으로 활동하며 항일 운동에 투신한 가네코후미코(우)는 그에 이어 두 번째 건국훈장을 받은 일본인이었다.</p> |
|  | 연관검색어 #명성황후 시해사건 #더 사죄하기 위해 오래 살고 싶다 | <p>2005년 6월 명성황후 시해범의 후손들이 고종황제와 명성황후가 묻힌 경기도 남양주 흥릉을 찾아 사죄의 절을 올렸다. 시해사건 110년 만에 이루어진 이번 사죄는 명성황후 시해사건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했던 정수웅 감독의 초청으로 이루어졌다. 1895년 명성황후를 시해한 구니토모 시게아키의 외손자 가와노 다쓰미(84세)와 이에이리 가키쓰의 손자며느리 이에이리 게이코(77세) 등 시해범 후손과 '명성황후를 생각하는 모임'의 회원인 일본인 10명이 방한했다. 이 사죄의 참배는 2017년까지 12년동안 계속 되었고, 가와노씨는 2012년 향년 90세 나이로 사망하였는데, 손자에게 '대를 이어 참회하라'는 유언을 남겼다.</p> |
|  | 연관검색어 #광복 60주년 #무릎 꿇고 사죄하는 일본 총리 | <p>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는 2015년 8월 12일 서대문형무소를 찾아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가들에게 행해진 가혹 행위에 대해 사죄했다. 추모비에 헌화할 때는 신발을 벗고 무릎을 꿇었고, 방명록에는 '독립, 평화, 인권, 우애를 바란다'고 적었다. 하토야마 전 총리의 사죄는 일본 지성의 양심이자 용기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09년 총리 시절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부정하였고, 현재까지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을 만나 일제의 식민지 과거사를 사죄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p> |
|  | 연관검색어 #조세이탄광 수몰사고를 역사에 새기는 모임 | <p>1942년 조선인 136명이 바다 밑에서 목숨을 잃은 조세이 해저 탄광 참사를 애도하며, 일본 시민단체인 '조세이탄광 수몰사고를 역사에 새기는 모임'은 2013년 추도비를 세웠다. 추도문에는 "특히 조선인 희생자와 그 유족에게는 일본인으로서 진심으로 사과의 마음을 올립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비극을 낳은 일본의 역사를 반성하고, 다시는 다른 민족을 짓밟는 포악한 권력의 출현을 용납하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할 것을 맹세하고, 여기에 희생자의 이름을 새깁니다."라는 다짐 등이 적혀 있다. 희생자 유해 수습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는 이 모임은 2022년 2월 12일,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80주년 추도식을 열었다.</p> |
|  | 연관검색어 #송신도 할머니 #재일 위안부 재판을 지원하는 모임 | <p>1922년 충남에서 태어난 송신도 할머니는(1922~2017) 16세였던 1938년, 일본군에 끌려가 중국 무창 등에서 7년간 온갖 고초를 겪었다. 할머니의 몸에 칼자국으로 새겨진 가네코(金子)라는 이름의 문신은 할머니의 아픈 과거를 그대로 보여준다. 1993년, 일본에 사는 위안부 피해자로서 유일하게 할머니는 일본 정부를 상대로 사죄와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벌였고, 10년간 싸웠지만 결국 패소했다. 할머니의 법정 투쟁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다큐멘터리 영화 <나의 마음은 지지 않았다>에는 할머니의 소송을 10년간 도왔던 '재일조선인 위안부재판을 지원하는 모임'의 일본 시민들의 활동이 담겨 있다.</p> |

활동지 2

의뢰인의 편지

발신 아시아 청소년 국제교류 센터장 / 수신 대한민국 인천광역시 OO 고등학교 재학생

안녕하세요. 저희는 아시아 청소년 국제 교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NGO단체입니다.

평소 한국과 일본의 청소년들은 상대방의 문화에 대한 호감도가 높으면서도, 식민지 시대에 대한 역사적 갈등과 독도 영유권 문제 때문에 감정의 골이 깊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고대부터 경제 문화적 교류가 왕성했던 두 나라 사이의 갈등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2018년 한국 대법원의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에 대한 강제동원 피해자 승소 판결과 이에 대한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 여기에 일본상품의 불매운동이 이어지며 두 나라의 사이는 예전보다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교류는 더욱 줄어들었구요. 일본 학생들은 식민지 역사에 대해 배우지 못해 한국의 반일정서를 이해하지 못하고, 한국은 사과를 커녕 험한까지 외치는 일본을 기막혀 합니다.

하지만, 배우고 알게 되면, 그래서 상처를 이해하게 되면 달라지지 않을까요? 진실을 아는 것은 화해를 위한 첫 걸음입니다. 이미 역사의 진실에 다가가려는 양심적 일본 시민들이 일제의 만행을 사죄하고, 일본군 위안부 배상 재판을 돕고, 강제동원 피해자 추모비를 세우는 등 의미있는 연대가 적지 않았습니다.

양국의 묵은 갈등을 풀기 위한 화해의 물꼬를 우리 청소년들이 열어보면 어떨까요. 대한민국 인천시와 일본 기타큐슈시는 서로 자매 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일본의 학생들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2박 3일의 일정으로 역사적 문제에 대해 서로 이야기 해보고, 인천에 남아있는 일제 강제동원의 유적을 함께 둘러보며 서로 공감하고 연대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박 3일의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저희가 OO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요청드리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날은 첫 만남의 아이스브레이킹을 위해, 상호간에 화해를 시도했던 역사를 기억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학생들은 **역사적 화해를 위해 노력했던 일본인들을 충분히 조사**하면서 먼저 마음을 열기를 부탁드립니다. 양심적 일본 시민들에 대한 연대의식을 표현하고, 한·일간 화해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아 일본 학생들을 초대하는 **초청장을 작성**해 주십시오.

둘째날은 인천(부평) 지역의 아시아태평양전쟁 유적지를 돌아보는 답사를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인천(부평)에 있는 강제동원의 유적과 역사를 공부하여**, 일본 학생들에게 정확한 사실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피해자들의 증언록과 관련 영상을 찾아보며 일본 학생들에게 제공할 **교육 자료와 답사 코스를 직접 제작**해주시고.

셋째날은 헤어지기 전, 한·일 학생회담을 갖고자 합니다. 저희는 동시통역이 가능한 자원봉사자들이 많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와 배상문제, 그 단초가 되었던 65년 한·일 기본조약과 청구권협정의 쟁점에 대해 토론**해보며, 화해를 위한 발전적 방향은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중국의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해 일본의 배상이 이루어진 배경, 65년 한·일 기본조약의 쟁점이 무엇인지 공부하며 한국측, 일본측 입장에서 모의 회담을 가져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학생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한일 양국 갈등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활동지 3

강제동원 피해자의 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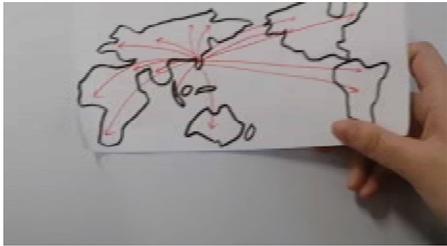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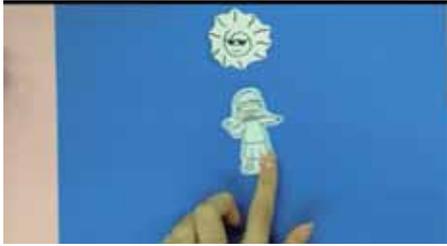
강제 동원 피해자의 구술기록을 찾아 읽고, 내용을 정리하고 장면을 구상해봅시다

[어린 시절(강제 동원 가기 전)]

[동원 가게 된 계기]

[강제 동원의 경험]

[다녀 온 후의 삶]

| Scene | 장면 스케치 (예시 : 종이 프로토타입) | 나레이션 또는 대사 | time |
|-------|---|------------|------|
| #1 |  | | |
| #2 |  | | |
| #3 |  | | |
| #4 | | | |

활동지 4

자랑스런 근대의 유산인가, 강제동원 아픔의 현장인가

| [] 모듈 | | 학년 반 번 이름: |
|--|---|---|
| # '군함도'에 대한 상반된 입장의 두 영상을 시청하고, 내용과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봅시다. | | |
|  | 영상 1 | 산업유산 국민회의 '군함도의 진실' (2021.10.21.) |
| <p>영상에서 “군함도는 지옥섬이 아니다. 하시마(군함도)가 인권유린의 현장이라고 말하는 많은 증언과 자료가 조작되었다. 강제 연행된 조선인이라 주장하는 사진들이 실제로 일본인들의 사진으로서 조선인 징용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주장한다. 정확한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연구하는 자세는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엄정하게 요구된다. 일본은 증거 자료의 오류를 찾아내고, 그것을 근거로 강제 징용 역사 자체가 허구라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박물관의 잘못된 자료는 신속히 수정되어야 하며, 감정이 아니라 차가운 이성으로 정확한 역사적 사실에 접근하는 자세가 더욱 요구된다.</p> | | |
|  | 영상 2 | KBS 세계는 지금(210회) '유네스코 산업유산 日군함도'(2021.04.03.방송분) |
| <p>일본이 자랑스러운 근대화 유산이라 자화자찬하는 하시마(군함도)는 조선인 수백여 명이 끌려와 강제 노역을 했던 지옥 섬이다. 122명의 조선인이 이곳에서 사망했다. 어린 시절을 보낸 일본인의 증언을 통해 조선인에 대한 차별이 극심했으며 도망치려하는 조선인도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후생성이 작성한 문서에서도 조선인 노동자의 적은 급여, 상당한 미 지급분, 미성년에 대한 강제노역의 증거가 남아있다. 타이완과 달리, 조선에서 강제 동원된 사람들은 월급의 40% 가까이 강제 저축되고, 많은 액수는 전후에도 돌려받지 못했다고 한다. 일본은 65년 청구권 협정을 통해 미지급 청구권도 소멸되었다고 주장하지만, 개인의 자산에 대한 청구권은 개인의 권리이므로 정부 간의 조약으로 소멸될 수 없다.</p> | | |
|  |  | 나가사키현의 공식 관광홈페이지에 추가하고 싶은 내용을 적고, SNS로 알려봅시다. |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유네스코는 일본이 약속과 달리 징용의 역사를 알리지 않은 점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했으며, 22년 12월까지 이를 수정한 최종 이행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했어요</p> </div> <p>작은 제작비용으로 잘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와케와 구후 군코리치 산물이 들어가 있는 '성의 무술의 군함도서(軍艦島)'와 '달의 섬'의 '군함도'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p> <p>최초 설계였던 1961년에는 약 5,300여명이 살았고, 당시 도쿄도인 구(區) 지역 안구의 9배의 인구밀도였습니다. 또한, 섬에는 초·중·고교 및 병원 등이 완벽하게 있어, 섬내 생활에 불편이 없었으며, 당장, 학교를 통해 교외로 갈 수 있었습니다.</p> <p>하시마(軍艦島)인공의 역사는 매우 정교로, 인공의 나가사키(長崎)인공과 함께 일본의 근대화를 지탱해왔습니다. 중요 레네치카 석탄에서 석유로 변화해 1974년 퇴공되어 무인도가 되었습니다.</p> <p>2015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p> <p>상륙통역에서는 두력(力)을 가진 제2 수직(力)과 제1 수직(力)의 통역에 위치한 '박물(物)의 종합(總)사무소, 1915년에 지어져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철근콘크리트 건물인 구(區)로 지어진 300 여개의 건물 건물을 따라 관찰할 수 있습니다.</p> <p>※군함도에 방문하기 위해서는 각 선박회사가 운영되고 있는 군함도 상륙 무리(力)를 참가해야 합니다. 단, 기념(力)을 따라 상륙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선에 관한 예약, 문의 등은 각 선박회사에 문의해 주세요.</p> | | |
| <p>하지만, 이곳은 일제강점기 조선에서 수백여명의 노동자들이 징용되어 해저 탄광에서의 고된 노역이 이루어진 현장이기도 합니다. 많은 조선인들이 극심한 차별을 받았고 122명이 사망했습니다. 아시아-태평양 전쟁의 참혹한 상흔이 남아있는 이곳 하시마에서 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기게 됩니다. 다시는 이런 아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p> | | |

활동지 5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 과거사 갈등의 시작점인 65년 한일 기본조약

| [] 모듈 | | 학년 반 번 이름: |
|--|--|------------|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 주요 일지 (출처 : 연합뉴스 2021.06.07.) | | |
| 1965.6.22 | 한국 일본 '국교정상화 기본관계 조약'과 '재산 및 청구권 문제해결을 위한 협정' 체결 | |
| 1997.12.24. | 여운택·신천수 할아버지 일본 오사카지방법원에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 |
| 2001.3.27 | 일본 오사카 지방재판소, 원고패소 판결 / 2002.11.19. 일본 오사카 지방재판소 항소기각 판결 | |
| 2003.10.9 | 일본 최고재판소, 상고기각 판결 | |
| 2005.2.28 | 여운택·신천수·이춘식·김규식 할아버지 서울중앙지법에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 |
| 2005.8.26 | 정부, 청구권협정과 관련해 일본 정부와 군대의 반인도적 불법 행위는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된 것이 없고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공식의견 표명 | |
| 2008.4.3 | 서울중앙지법, '일본판결이 우리나라에서 효력이 인정되고, 신 일본제철이 구 일본제철의 채무를 승계했다고 볼 수 없다'며 여운택 할아버지 등 패소 판결 | |
| 2009.7.16 | 서울고법, 항소기각 판결 | |
| 2012.5.24 | 대법원, '일본판결은 헌법 취지에 어긋나고, 신 일본제철은 구 일본제철을 승계한 기업'이라며 파기환송 | |
| 2013.7.10 | 서울고법, 대법원 판단 취지대로 신일철주금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 | |
| 2015.5.22 | 강제징용 피해자·유족 85명, 일본 기업 16곳 상대로 최대 규모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당초 원고 86명 피고 17곳이었으나 소송 과정에서 일부 취하) | |
| 2018.10.30 | 대법원, 여운택 할아버지 등 4명 승소 판결 확정. '신일철주금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최종 결론 | |
| 2021.3.11 | 서울중앙지법, 피해자·유족 85명이 낸 소송 일본 기업들에 공시 송달 결정 | |
| 2021.4.27 | 서울중앙지법, 일본 기업들이 뒤늦게 소송대리인 선임한 점 고려해 공시송달 취소 결정 | |
| 2021.6.7 | 서울중앙지법, 피해자·유족 85명이 낸 소송 '각하(= 심리 거부)' 판결.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며,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개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지만, 소송으로 이를 행사할 수는 없다며, 소송 제기 자체가 부적합하다'고 판결 | |
| <p>“오늘 나 혼자 나와서 마음이 슬프고 눈물이 많이 나온다”</p> <p>2018년 10월 30일 일본제철(신일철주금)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재상고심에서 승소한 이춘식 할아버지가 법정을 나오며 했던 말입니다. 이춘식 할아버지를 비롯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은 13년이 넘게 소송전을 이어왔고, 그 사이 세 분이 돌아가시고 2018년이 되어서야 이춘식 할아버지 혼자 승소 판결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이 배상 판결을 즉시 부정합니다. 일본은 1965년 한일기본조약에 따른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일본에 대한 청구권이 소멸되었다는 주장입니다. 이후 일본이 무역보복으로 대응하면서 현재까지도 한일 갈등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1965년 한일 기본조약과 청구권협정은 현재 한국과 일본의 과거사 문제에 대한 갈등의 시작점이 되므로, <u>한일 기본조약의 내용은 무엇이고 일제 강제징용배상판결을 부정하는 일본의 주장은 과연 타당한 것인지 정리해봅시다.</u></p> | | |

활동지 6

1965년 한·일 기본조약과 청구권 협정, 무엇이 문제인가

한·일 기본 조약 및 청구권 협정과 일·중 공동성명이 차이를 보며 무엇이 문제인지 정리해봅시다.

< 한·일 기본 조약 (1965년) >

제2조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Already null and void)을 확인한다.

< 청구권 협정 (1965년) >

제1조 일본은 대한민국에 10년에 걸쳐 3억달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2억 달러의 차관을 준다.

제2조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 (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 제4조는 '종전으로 분리된 지역(조선, 대만)의 식민지 전쟁 피해자들은 양자 조약으로 해결'할 것을 명시함. 이는 1965년 한·일 기본 조약과 청구권 협정을 체결한 배경이 됨.

< 일·중 공동성명 전문 (1972년) >

“일본측은 과거에 일본국이 전쟁을 통해 중국 국민에게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깊이 반성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중일 양국 국민의 우호를 위해 일본국에 대한 전쟁 배상 청구를 포기할 것임을 선언한다”
 중국인 강제노동 피해자들도 일본 법원에 배상을 청구하였고 패소했지만, 대신 법원의 화해권고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일본의 가해기업인 가시마건설(1990년), 니스마쓰 건설(2009), 미쓰비시 머트리얼(2016)은 피해 당사자와의 대화를 통해 심심한 사죄를 표현하고(화해합의서 작성), 화해금을 지출하며 매년 추도 행사도 열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는 중국 대사관 관리와 일본 재판소 소장도 참여하고 추모비에 헌화하는, 역사적 화해의 장(場)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 배상이라는 같은 문제인데, 한국과 중국의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의 대응은 왜 다른 걸까요?

☞ 일중 공동성명에는 적어도 일중 양국간 역사인식에 대한 ‘공유’가 있었다. 그러나, 한일 기본조약과 청구권 협정은 식민 지배에 대한 사죄도, 반성도 없었다. 한국은 1910년 조약 체결 당시 ‘이미 무효’이므로 식민 지배는 불법이라고 해석하고, 일본은 당시엔 합법적으로 체결되었으나, ‘이제는 무효’가 되었다고 해석한다. 한일 양국간의 식민지배에 대한 역사 인식의 ‘공유’가 없어, 애매하게 해석되는 문구로 논란을 초래하였다. 한국은 “애초에 무효”라고 해석해 을사조약과 한일 병합조약 모두 불법이었다고 해석했다. 따라서 일제 강점기는 불법이며 무상지급 3억달러는 청구권 해결을 위한 경제협력자금이라 보았다. 반면 일본은 “과거에 체결된 조약은 당시엔 유효했지만, 이제는 무효가 되었”으므로, 일제 강점기는 합법이며, 새로 독립한 한국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고 독립을 축하하기 위해 지급했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한국과 일본의 새로운 관계는 일본의 식민통치에 대한 인정과 그에 따른 사과를 전제로 해야 함에도, 경제 개발을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해 협정 체결을 서두르며, 사과도 반성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은 우리의 과오가 크다.

활동지 8

답사 코스에 포함할 장소들

| []모둠 | | 학년 반 번 이름: | |
|---|--|------------|------------------------------------|
| # 연관검색어를 참고하여 영상과 자료를 찾아보고, 활동 내용을 요약하여 적어봅시다. | | | |
| 명칭 | 캠프마켓, 인천 육군 조병창 | 위치 | 부평구 산곡3동 449 |
|  | 캠프마켓(미군기지)은 일본 육군 조병창이 있던 곳이다. 조병창은 일제강점기 총검, 소총, 폭탄 등 전쟁 무기를 생산하던 곳이며, 이곳에서 조선인 강제동원이 국내 최대 규모로 이루어졌다. 특히, 경성공업, 인천중학 등 학생동원이 다수를 차지했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곧 강제력에 의해 동원되어 고통을 당한 현장이다. 또, 조선 전역에서 낫그릇, 수저, 범종 등 다양한 금속품이 전쟁 무기를 만들기 위한 강제로 공출되어 이곳에 쌓였다. 무기 제작 과정에서 속출한 부상자 치료를 위한 병원시설도 볼 수 있다. 미군기지가 시민에게 반환된 후, 이곳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논의가 활발하다. | | |
| 명칭 | 미쓰비시 제강 터(부평공원) | 위치 | 부평구 부평동 271 |
|  | 현재 부평공원은 일제 강점기 군수용품을 생산했던 전범기업 미쓰비시 제강이 있었던 곳이다. 해방 후 1997년 말까지 한국군이 주둔했으며 2002년 시민의 휴식 공간으로 문을 열었다. 2016년에는 인천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졌다. 그 옆 자리에, 강제동원 노동자들의 애환을 생각하며 시민 900여명이 모은 성금으로 2017년 강제동원 노동자 부녀상이 세워졌다. 이 부녀상은 조병창과 전범기업 미쓰비시 제강에서 자행된 인권유린, 노동착취, 그것을 딛고 일어서는 해방을 주제로 제작된 작품이다. | | |
| 명칭 | 삼릉(미쓰비시) 줄사택 | 위치 | 부평구 부평2동 부영로 25번길 (부평2동 행정복지센터 부근) |
|  | 이곳은 일제강점기 조병창이 있었던 미쓰비시 부평 공장의 노동자 합숙소가 있던 곳으로, 당시 1천명 이상이 이곳에 거주하였다. 집과 집 사이를 벽 하나로 구분하고 열 집으로 나눈 후, 하나의 지붕을 올려 줄사택이라고 불린다. 관리 소홀로 방치되어 노후화되고 주변은 슬럼화 되었으나, 전문가들은 한반도에 남아있는 유일한 강제 노동자 합숙소라는 점에서 보존 가치가 크다고 입을 모은다. 9개 동이 있었으나 이중 3개 동은 이미 철거되었고, 나머지 줄사택 일부를 추후 다른 장소에 복원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 | |
| 명칭 | 부평 지하호 (부평 토굴) | 위치 | 산곡동 함봉산 일대 |
|  | 분지 지형인 부평지역은 산지로 둘러싸여 방어에 유리하고 중앙에 넓은 평야가 있으며, 경인 철도를 통해 인천항과 서울과의 접근성이 좋은 곳이었다. 1930년대 이후 대륙침략전쟁에 돌입한 일본은 이런 부평지역에 가장 큰 최전선 군수공장이자 병참기지로 조병창을 만들었다. 그리고 전쟁의 막바지에, 조병창의 군수공장 시설을 지하화하기 위해 동굴(지하호)을 만들었다. 어린 학생들까지 강제 동원이 확인된 곳만 현재 26 곳이다. 해방 후, 새우젓 창고로 사용되다가, 최근에 와서 역사 교육의 현장으로 재조명을 받고 있다. | | |
| 명칭 | 부평 역사박물관 | 위치 | 부평구 굴포로 151 |
|  | 2007년 개관한 부평역사박물관은 전국 최초의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역사박물관으로 부평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유물과 향토 사료들이 전시되어있다. 2층 부평역사실에선 일제 강점기, 항만과 철도를 갖추고 서울과 가까운 지리적 잇점으로 군수공장이 설치되었던 부평의 역사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다. 특히 미쓰비시 줄사택의 모습을 생생히 재현해놓은 공간이 있어, 당시 강제 동원된 조선인 노동자들의 공동생활을 엿볼 수 있다. | | |

활동지 9

답사 지도와 안내 자료

[] 모둠

학년 반 번 이름:

동선을 고려하여 답사 코스를 지도에 표시하고, 이동경로를 적어봅시다.



예시) 캠프마케(옛 일본 육군 조병창) → 부평공

원(옛 미쓰비시 철강) → 부평2동 행정복지센터

(옛 미쓰비시 노동자 숙소, 삼릉마을) → 함봉산

(부평 토굴) → 부평역사박물관



라. 교사 참고 자료(예시답안 및 참고 내용을 학습지에 오픈 글씨로 첨부함)

1 우리 안의 반일 정서, 혐오를 극복해야 하는 이유



The collage consists of two main parts. On the left, there is a grid of nine children's drawings. The drawings depict various scenes: a person in a boat, a person being hit, a person with a sword, a person with a gun, a person with a bomb, a person with a flag, a person with a map, a person with a globe, and a person with a flag. On the right, there is a photograph of several white banners hanging from a pole. The banners feature the South Korean flag (Taegeukgi) and the text 'NO BOYCOTT JAPAN' and '가지 않습니다' (I do not do it).



The pyramid diagram illustrates the hierarchy of hate speech, with five levels from top to bottom:

- 집단 학살** (Group Killing): 특정 집단에 대한 의도적 조직적 학살 (Intentional, organized killing of a specific group)
- 중오범죄** (Hate Crime): 편견에 기초한 폭행, 협박, 감금, 방화, 테러, 기물파손 (Violence, threats, imprisonment, arson, terrorism, property damage based on prejudice)
- 차별행위** (Discriminatory Act): 고용, 서비스, 교육 등의 영역에서 차별, 괴롭힘, 배제, 분리 (Discrimination, harassment, exclusion, segregation in employment, services, education, etc.)
- 혐오표현** (Hate Expression): 조롱, 위협적·모욕적·욕력적 발언이나 행동, 집단 따돌림 (Mockery, threatening/offensive/abusive speech or actions, group ostracism)
- 편견** (Prejudice): 특정 집단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 사이의 편견 공유 (Negative stereotypes about a specific group, sharing of prejudice among people with the same thoughts)

*혐오의 피라미드(출처: '말이 힘이 될 때' 중) 그래픽 | 이지혜 디자이너

2 일본 사회의 시민 운동의 성격

- 전후 청산 기회를 잃어 먼지로 뒤덮인 역사의 거울을 닦는 일본인을 '양심적 일본인'이라는 특별한 용어로 부르기도 한다. 2000년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제법정 개최 후, 일본 시민 단체는 2005년 8월, 여성 전쟁범죄 관련 자료관인 '여성을 위한 전쟁과 평화 자료관(WAM-전세계 위안소 설치 지도 작성)'을 개관했다. 일본의 NGO '강제동원진상규명 네트워크'가 2005년 발표한 가입 요청문에는 일본 사회의 반성을 촉구하는 의미 있는 구절이 있다. "가해 행위의 규명은 결코 '자학적'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자긍심을 회복하는' 행위입니다."

- 출처 : 『일본의 아시아태평양전쟁과 조선인 강제 동원』 중에서

- 우리는 왜 일본에 사과를 요구하는가. 왜 정확한 역사적 사실을 논해야 하는가. 일본이 일으킨 침략 전쟁과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가 인간의 존엄성과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저해하고 훼손했기 때문이다. 무고한 전쟁으로 발생한 피해자 문제는 반일 감정이 아니라 세계 시민이 지켜야 할 인권의 문제이다. 이는 한일 양국간 민족감정이나 역사 전쟁이 아니라, '더이상 전쟁 유적을 만들어내지 않는 시대'를 이끌어가기 위한 세계 시민의 염원이다.

- 출처 : 『일본의 아시아태평양전쟁과 조선인 강제 동원』 중에서

- 일제 강제 동원의 진상을 규명하는데 없어서 안 될 존재가 일본 내 양심적인 시민단체와 활동가들이다. 한국의 정부와 학자들, 피해자 및 유족들이 지리적 언어적 여건 때문에 미처 하지 못했거나 할 수 없는 부분을 일본 전역 곳곳에서 활약중인 풀뿌리 NGO 들이 도맡아 해주고 있는 것이다. 국내 희생자 및 연구자들과 지속적으로 연대하고 있는 단체만도 30개가 넘는다. 강제동원 진상규명 네트워크, 강제연행 기업책임 추급재판 전국 네트워크, 일한 회담 문서 전면 공개를 요구하는 모임, 후지코시 강제 연행, 강제 노동 소송을 지원하는 호쿠리쿠 연락회, 나가사키 제일 조선인 인권을 지키는 모임, 아시아 여성 자료센터, 조세이 탄광 물 비상을 역사에 새기는 모임, 조선인 강제 연행 진상조사단... 등등

이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무당무파, 정치적 야심없음, 전업활동가 없음, 상부의 지시없는 횡적 연대관계이다.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 스스로 정치적 야심을 배제하면서 이를 위해 시민운동만을 꾀하는 전업활동가를 두지 않고 있다. 각각 생업을 가진 사람들이 시간을 쪼개 시민운동에 참여하는 파트타임 활동가를 지향한다. 이들은 조직의 규모나 구성원의 크기에 상관없이 관심을 갖고 시작한 문제에 대해서는 언제까지나 한결같은 열심을 유지한다. 이것은 지금 당장 눈에 띄는 성과만을 쫓는 한국의 여느 시민운동 그룹과는 구별되는 점이다.

- 출처 : 『일제 강제 동원의 그 알려지지 않은 역사』 중에서

-도츠카 에츠로 변호사 : 1992년 유엔 인권위원회에 출석해 일본군 '위안부' 용어를 '성노예'로 바꾸자고 처음 주장했다. 이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성노예'는 '위안부'를 가리키는 일반적인 용어가 되었다. '위안부' 피해자들과 일본이 합의점을 찾도록 중재 노력을 하는 한편, '위안부'법제 연구를 하기 위해 을사늑약을 연구하였다. 1992년 객원연구원으로 런던대를 찾았다가, 이 대학 고등법학연구소 도서관에서 '1905년 한국보호조약(을사늑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절대적 무효'라는 1963년 유엔 국제법위원회 보고서를 '발견'하고 이를 유엔 인권위원회에 보고하고 논문으로 발표하였다. 이를 <한일관계 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등 한일관계의 개선을 위한 제언을 담아 출판하였다. 그는 '일본정부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위반에 따른 일본 피해만을 앞세우고 한국을 조약을 위반한 가해자라고 비난하며 논점 바꾸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 출처 : 한겨레 기사 2022.09.13.중에서

3 2018년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일본 내의 양심적 목소리

- 일본은 총리도 외무대신도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전후 배상문제는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마치 한국 사법부가 국제법을 무시하고 있는 양 얘기하는데, 일방적인 폭언을 하고 있는 것은 일본 쪽이 아닐까. 2000년 이후, 일제 때 강제연행당한 중국인 노동자들이 제기한 재판에서는 중국이 일본에 대한 전후배상 청구권을 포기한 일중 공동성명에 의거해 원고의 소는 기각됐으나, 한편으로 개인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는 원칙 아래에서 피해자 구제를 위해 가시마 건설과 니시마쓰 건설, 그리고 원고들 사이에 화해 권고가 이뤄졌다. 당시 신문이 전한 화해의 내용을 어렵듯이 기억하는 일본인으로서, 이번 판결에 대해 일본사회가 귀신의 목이라도 탄 듯 요란하게 국제법 위반이라느니, 단호한 조치라느니 하며 이구동성으로 떠드는 것에 위화감을 느낀다. 식민지 배를 돌아보면 일본은 인권이 중시되는 지금 시대에 걸맞은 화해의 길을 찾아야 할 책무가 있다. 일찍이 가시마 건설과 니시마쓰 건설이 할 수 있었던 일을 신일철주금이 하지 못할 까닭이 없다. 일본의 정치가가 전후배상문제는 해결이 끝났다고 호언장담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부끄러운 일이라고 나의 보잘것없는 양심이 말하고 있다.

- 출처 : 『강제징용자의 질문』(선데이 마이니치) 2019.2.3. 다카무라 가오루의 글 중에서

- 군함도에 해저탄광 운영한 업체 2016년 사죄 표명, 화해금도 지급 : 일제강점기 조선인 약 600명이 강제동원된 군함도(하시마) 해저 탄광을 운영했던 일본 기업의 돈으로 중국인 강제 연행 피해자 추도비(碑)가 세워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일본 나가사키현 나가사키시 공원에 2021년 11월 14일 설치된 '일중(日中)우호 평화부전(不戰)의 비'는 미쓰비시머티리얼이 제작 비용을 내고 시민단체 '나가사키 평화활동지원센터' 주도로 만들어졌다. 미쓰비시머티리얼 계열사인 미쓰비시중공업이 한국인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한국 대법원 판결을 외면하고 사죄도 거부하는 것과 대비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추도비 건립을 이끈 히라노 노부토 평화활동지원센터 소장은 5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미쓰비시머티리얼과 중국인 피해자의 화해를 바탕으로 한 기념사업으로 세웠다"고 말했다. 이 추도비에는 '약 3만9000명의 중국인 노동자가 일본에 강제 연행됐고 그중 3,765명이 미쓰비시머티리얼 전신 회사 등의 사업소에 투입돼 노동을 강요당했다'고 새겨져 있다. 평화활동지원센터에 따르면 미쓰비시머티리얼 측은 중국인 피해자 및 나가사키 시민사회 요청에 따라 화해 협상을 벌여 2016년 사죄 표명, 피해자 1인당 10만 위안(약 1,900만 원) 화해금 지급 등을 합의했다. 미쓰비시머티리얼 측은 일본 정부에 보고한 뒤 사죄를 표명하고 화해금을 제공했다.

- 출처: 동아일보 기사 2022.7.6.중에서

4 1965년 한일 기본 조약과 청구권 협정에 대한 이장희 교수(한국외대)의 글

- 일제강제노역 피해자에 대한 일본 측 법적 입장 : 일본은 일제강제노역은 합법이라고 본다. 일본 식민지 지배는 1910년 강제병탄조약의 합법성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일제강제노역은 이에 기초한 1938년 강제동원령으로 전시 중 일어난 합법 행위라고 강변한다. 그리고 1965년 한일기본조약 제2조 1항 '1910. 8. 22. 이전 조약 및 모든 협정은 이미 무효로 한다'에서 무효 해석을 두고 일본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부터 무효이고 그 이전까지는 모두 유효하다고 본다. 반면 한국은 원천 무효로 본다. 또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 제1항 (유무상 5억 달러), 제2항(최종·완전해결)의 해석에 대해서 일본은 유무상 5억 달러 지불로써 모든 것이 최종·완전해결되었다고 본다.

- 일제강제노역 피해자에 대한 한국 측 법적 입장: 한국은 일제강제노역을 불법이라고 본다. 그 법적 근거로 1910년 한일 병합조약 등 일본 강제병합 행위 일체를 무효로 전제하고, 강제노역은 불법한 민간인 전쟁범죄로 본다. 19세기 및 1940년대 식민주의는 당시 유럽과 미국에서 한때 허용되었다 하더라도 일본의 상기 한일 강점지배의 법적 문서 체결 과정은 유럽과는 전혀 성격이 다르다. 모든 상기 법적 문서가 개인대표에 대한 군사적 압력·강박하에서 이루어졌다. 조약의 성립요건인 자유로운 의사합치의 부재, 조약체결권자의 위조 인정 등으로 원천 무효이다. 또 상기 문서는 대한민국의 헌법 핵심가치(상해임시정부의 법통)에도 위배된다. 1965년 청구권협정은 국가차원의 외교적 보호권 포기, 강제노역 개인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포함하지 않는다. 피해자 개인은 독립적으로 언제나 청구 가능하다고 본다.
- 1952년 샌프란시스코 체제: 일제식민지배 합법성 묵인 : 1943년 카이로선언 '조선인의 노예상태에 유의하여...조선의 독립...'을 약속, 이를 1945년 포츠담선언에서 재확인하였다. 상기 두 국제 문서를 일본의 무조건 수락 및 1945년 9월 2일 항복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두 문서는 일본에 국제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카이로선언에서 '...조선인의 노예상태에 유의하여...'는 조선인의 인권 피해자(강제노역, 일본군 성노예 등) 구제의 국제법적 근거이다. 그런데 미국의 트루먼 독트린(1947)이라는 국제 냉전 질서에 대비한 외교 정책 변화에 따라 1952년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은 트루먼 독트린의 대일 유화적 자세 그대로 수용하였다. 그래서 1952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체제는 카이로선언 정신인 국제합의(일본 식민지배 불법성, 전쟁범죄, 조선인의 인권보장)를 왜곡, 전범국 일본에 징벌조약이 못 되고 일본에 면죄부 조약이 되었다. 일례로 조선과 대만은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 당사국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 제4조, 종전으로 분리된 지역(조선, 대만)의 식민지 전쟁 피해자들은 양자 조약으로 해결을 명시하여, 1965년 한일협정체가 탄생하였다. 두 체제의 공통점은 일제 식민지배 합법성을 묵인한 점에 있다. 일제강점의 법적 성격을 65년 한일협정에서 합의하지 못하고, 봉합한 것이 명백하다. 이것은 결국 국제법에 기초한 한일협정의 해석의 문제이다. 그래서 대법원(2018)의 논거는 첫째, 일본식민지배는 명백히 불법·무효이다. 둘째, 1965년 한일협정으로 개인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 셋째, 일본 판결을 인정하지 않는다. 넷째, 피해자들의 청구권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 따라서 강제노역 피해자는 개인 위자료 청구권을 가지고 있고, 한국 정부에게는 외교적 보호권을 가지고 있다.
- 1965년 한일협정체제의 문제점과 1965년 한일협정 해석 :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 제1항 및 제2항의 성격을 두고 한일 간 다툼이 있는 동안에 한일 협상 외교문서가 공개되어 1965년 청구권협정 해석에 새로운 돌파구가 열렸다. 1965년 한일 청구권 요구 8개 항목에는 일본군 성노예문제, 사할린교포문제, 원폭피해자문제는 포함되지 않았다. 2005년 이후 한국 정부는 위 세 항목에 대해서 일본 정부에 잔존 국가책임을 주장했다. 2012년 대법원은 다만 대일청구 8개항 중 제5호 미불임금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재산적 경제적 문제이고, 징용피해자의 위자료(정신적 피해·인권침해)는 대일 8개 요구 항목에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고 판단, 강제노역 피해자는 1965년 청구권협정 제2조에 구애받지 않고 국제법상 개인의 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또 2018년 대한민국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는 강제징용 피해자 정신적 피해, 인권 침해에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하는 원고 승소판결을 하였다. 한일간 재산 및 청구권 협정 요강 8개항 중 제5항 피징용인 한국인 피해자의 미수금, 보상금 및 기타의 변제청구에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까지 포함되기 어렵다고 판시(대법원 2018. 10. 30. 2013다61381)하였다.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의 개인 위자료 청구권 행사를 인정, 강제징용피해자(원고)에게 신일철주금(피고)이 각각 1억 원 씩 배상하도록 확정,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신일철주금의 대한민국내 자산을 압류하였다. 2012년, 2018년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손해배소 한국 대법원 승소 판결은 국제법과 1965년 한일협정 취지에도 타당하다. 강제동원 피해자의 위자료 청구권은 1965년 청구권협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무상 3억 불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강제노역 피해자는 개인 위자료 청구권을 가지고 있고, 한국 정부에게는 외교적 보호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일본 정부는 국제법과 한국 대법원 판결 취지(2012, 2018)에 따라 한국 내 전범 기업 신일철주금의 자산 현금화에 협력하여야 할 것이다.

- 출처 : 이장희 교수(한국외대 로스쿨)의 신문 기사 중에서

5 강제성에 대하여

국제 노동기구 ILO 협약 중 제29호 강제 노동에 관한 협약의 내용(2조 1항) 본 협약에서 ‘모든 형태의 강제 또는 의무적 노동’이란 처벌받을 위협하에 이루어지거나, 자의로 제공되지 않는 노동 행위를 이른다. 1999년, ILO는 일제 식민지 시기에 만들어진 이 협약을 바탕으로 일제가 한국의 노동자를 동원해 일을 시킨 것을 강제 노동이라고 판단했다. 일본은 1932년 11월 21일 해당 협약에 비준했으며, 비준국은 ‘강제노동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한다. 그런데도 일제의 한국인 노무 동원이 강제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강제성이 없이 자신이 원해서 선택한 자유로운 일터라면 ‘탈출’하는 한국인 노동자가 그렇게 많았을 리가 없다. 『반대를 논하다』(2019, 선인)에 따르면 일본 내 무성 경보국이 만든 특고월보, 사회운동상황이라는 자료에는 일제에 동원된 한국인 중 257,907명이 현장에서 탈출을 시도했다는 내용이 있다고 한다. 25만명 넘는 숫자가 무엇 때문에 작업 현장을 탈출하려 했다는 것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을 그만둘 자유 조차 없었음을 의미한다.

- 출처 : 『한국 근현대사 12장면 FACT CHECK』 중에서

6 전범기업에 승리한 중국인 피해자들

중국인 강제연행, 강제노동 피해 생존자 유족들은 1989년 가해 기업인 가시마 건설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고, 1990년 가시마 건설은 ‘기업으로서도’ 책임을 인정하고 심심한 사죄를 한 뒤 화해금 5억엔을 지출하였다. 이후, 2009년 니스마쓰 건설 히로시마 야스노의 화해, 2016년 미쓰비시 머티리얼의 화해도 가능해졌다. 또, 기업과 해당 시의 주최로 추도행사를 열고, 중국 대사관도 함께 참여하고, 화해 성립을 이끈 당시 재판장도 위령비에 헌화하였다.

- 출처 : 『강제징용자의 질문』 중에서

7 일·중 공동성명(1972년)에는 있고, 한·일기본조약(1965년)에는 없는 사죄와 반성

식민 지배에 대한 역사 인식을 ‘공유’하기 위한 노력 “한·일 공동선언 21세기를 향한 한일 파트너십”

1998년, 오부치 총리대신은 금세기의 한일 양국관계를 회고하고, 우리나라가 과거 한 시기 한국 국민에 대해 식민지배를 통해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겨주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이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에서 우러나온 사죄를 얘기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런 오부치 총리대신의 역사인식 표명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이를 평가하는 것과 동시에 양국이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화해와 선린우호 협력에 기반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서로 노력하는 것이 시대의 요청이라는 뜻을 표명했다.

- 출처 : “한·일 공동선언 21세기를 향한 한일 파트너십” 중에서

8 강제 동원 문제에 대한 앞으로의 대응 및 제언

- 강제 동원 문제의 해결을 시도할 때 유의해야 할 것은, 이 문제의 본질이 ‘어떻게 피해자를 구제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인권의 문제라는 점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피해자들의 의향을 충분히 존중할 필요가 있다. 또 이 문제는 사회적 문제이기도 하다. 강제 동원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그 사회의 인권 보장 수준이 높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이는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사회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수준의 해결이 요구된다. 국가 간에 어떤 합의를 하더라도 그것이 피해자들 의향을 따르지 않고,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해결이라 할 수 없다. 그러면 무엇이 실현돼야 정말 이 문제가 해결됐다고 할 수 있을까. 첫째, 일본 정부와 기업이 강제 동원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가해 행위와 피해자들의 피해 사실, 그리고 그에 대한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하는 것이다. 둘째로 강제 동원 피해자 개인에게 배상 내지 보상을 해야 하고, 셋째로 재발 방지를 위해 강제 동원 문제의 역사적 사실과 그 교훈을 다음 세대에게 계승할 필요가 있다.
- 이러한 일련의 한국 비난 발언에서는 한 가지 특징이 보이는데, 바로 일본 정부와 언론이 보인 피해자의 인권에 대한 무관심과 식민지배에 대한 반성의 결여다. 일본 정부와 언론 그 어느 쪽도 피해자가 된 이래 75년 만에, 일본에서 소송을 제기한 지 25년 만에 고난을 견뎌내고 승소 판결을 받은 원고들에게 한마디 위로나 사죄의 말을 하지 않았고, 피해 사실에 대한 보도도 거의 없었다. 오로지 부정확한 사실 인식을 토대로 감정적인 비난의 언사만 쏟아냈을 뿐이다
-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싸움이 문제의 원점에서 점점 멀어져 외교게임이나 무역전쟁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책에서 소개한 피해자들의 고난이야말로 이 문제의 원점이며, 침해당한 그들의 인권 회복이 이 문제의 본질이라는 점을 다시 강조한다.

- 출처 : 『완전하지도 끝나지도 않았다.』 중에서

마. 참고 자료

1 문헌

- 정혜경, 『일본의 아시아태평양 전쟁과 조선인 강제동원』, 동북아역사재단(2020)
- 우치다 마사토시, 『강제징용자의 질문』, 한겨레 출판(2021)
- 가와카미시로 외, 『완전하지도, 끝나지도 않았다』, 메디치미디어(2020)
- 이상의, 『구술사료선집-일제의 강제동원과 인천육군 조병창 사람들』, 국사편찬위원회(2019)
- 신봉석, 『한국 근현대사 12장면 FACT CHECK』, 푸른출판(2021)
- 김호경 외, 『일제 강제 동원 그 알려지지 않은 역사』, 돌베개(2010)

2 인터넷 자료

- [일본어번역] 비디오머그 한일 청구권협정 <https://youtube.com/watch?v=8NWukLOPsDY&feature=share>
- 법무부TV 아주쉽게 정리해드립니다. 일제 강제징용 배상판결 2019.8.5. <https://youtu.be/AI3ZhnaAUNY>
- 부평문화원 [근대문화역사현장] <https://portal.icbp.go.kr/bpcc/img/contents/modernMap18.png>
- 산업유산 국민회의 '군함도의 진실' <https://youtube.com/watch?v=l1LAFzovGbw&feature=share>
- 군함도 공식 홈페이지 <https://www.gunkanjima-tour.jp/about/#anc2>
- KBS 세계는지금 210회 2021.04.03. 편집본
<https://youtube.com/watch?v=OUR3xFK9HGU&feature=share>
- TBS 역사스테이 흔적 '끝나지 않은 역사 인천 육군조병창' 2021.1.25. <https://youtu.be/zvEppBUtvk0>
- 일제 강제동원피해자 지원재단 <https://www.fomo.or.kr/kor>
- <https://www.fomo.or.kr/kor/contents/15> (전우식 이야기 - 아사지노 비행장 노무)
- <https://www.fomo.or.kr/kor/contents/27> (신현대 이야기 - 하루토리 탄광 근무)

3 기사 자료

- 심규상, 「더 사죄하기 위해 오래 살고 싶다」, 오마이뉴스, 2009.09.08.
- 김유민, 「바른말 하는 전 일본총리 “독도는 한국땅” “위안부 무한책임”」, 서울신문, 2022.06.09.
- 박세진, 「조선인 136명 희생 '조세이탄광 참사' 80주년 추도식 열려」, 연합뉴스, 2022.02.12.
- 이장희 명예교수(한국외대 로스쿨), 「일제 강제징용피해자 구제 법적 쟁점」, 법률신문, 2022.08.18.
- 이상훈, 「'韓피해자' 외면 미쓰비시, 강제징용 중국인 추도비 설치」, 동아일보, 2022.07.06.

4 일제 강제동원의 역사 바로 알리기

2. 나를 잊지 말아요(일본군 '위안부' 이야기)

가. 수업 요약

| | | | | |
|-------------|-----------|--|---|--|
| 수업유형 | | 프로젝트 기반 학습(PBL) | 총 차시 | 8 |
| 프로젝트명 | | 나를 잊지 말아요 (일본군 '위안부' 이야기) | | |
| 핵심 질문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군 '위안부'는 누구인가? • 일본군 '위안부' 여성들이 투쟁을 끝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 | |
| 해당 과목 및 단원명 | | 『한국사』 Ⅲ. 일제의 식민지 지배 정책 - 5. 전시동원체제와 민중의 삶 | | |
| 성취기준 | | [10한사03-05] 일제의 침략 전쟁 이후 식민지 지배 방식의 변화를 살펴보고, 전시 동원 체제로 달라진 민중의 삶을 사례 중심으로 파악한다. | | |
| 성공 역량 | 인천교육 핵심역량 | <input type="checkbox"/> 자기관리역량 <input checked="" type="checkbox"/> 문제해결역량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의사소통역량 <input checked="" type="checkbox"/> 협력역량 | <input type="checkbox"/> 다양성존중역량 |
| | 교과역량 | <input checked="" type="checkbox"/> 비판적·창의적 사고 역량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공동체·대인 관계 역량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료·정보 활용 역량 <input type="checkbox"/> 자기 성찰·계발 역량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의사소통 역량 <input type="checkbox"/> 문화 향유 역량 |
| 설계 의도 | | <p>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단순히 오래된 과거의 문제, 한국과 일본 간의 외교 갈등의 문제가 아닌 국경을 넘어서고 시대를 초월하는 인권의 문제이자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다. 또한 오늘날에도 계속되는 전시의 성폭력 문제와 연결된 여성 인권과 평화의 문제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세계 보편의 인권침해 문제로 교육하여 학생들의 인권 의식을 확장하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p> <p>역사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역사의 교훈 또한 배우지 못할 것이다. 잔악하고 반인륜적인 범죄일수록 거기에서 인류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찾고 기억하는 것은 인류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현재의 세대에게 주어진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이다.</p> <p>그래서 이번 수업에서는 먼저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과거 사실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사실에 대해서로 계속 이야기함으로써 기억하고, 또한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실천하고 활동해 나가는 방법을 찾아보고자 한다.</p> | | |
| 주요 산출물 | | 토론 학습지, 청원서 작성, 모둠별 산출 결과물(보고서 발표, UCC, 역할극, 프레젠테이션, 모의 청문회, 전단지나 게시물 작성 등) | | |

다. 수업 자료 및 활동지

도입 활동지 1

일본군 '위안부' 용어 및 개념 정리

[] 모둠

학년 반 번 이름:

1. '위안'(comfort)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찾아보자.

2. '위안부'라는 용어에서 '위안'은 그럼 누구를 위한, 누구에 의한 '위안'인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보자. 일본군 '위안부'라는 단어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된다면 다른 용어로는 무엇이 좋을지 써보자.

3.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관련해서 제출한 보고서이다.

라디카 쿠마라스와미 보고서(1996)

- '전쟁 중 군대 성노예제 문제에 관한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한국 및 일본 조사보고'

- 특별보고관은 전시 하 군대에 의해 또는 군대를 위해 성적 서비스를 하도록 강제당한 여성의 사례를 군 성노예제의 관행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을 이 보고서의 첫 머리에서 밝혀두고자 한다.
- 용어를 사용하는 목적에 관해, 특별보고관은 현대형 노예제 실무회의 위원, NGO 대표 및 학자들이 견지하고 있는 견해, 즉 '위안부'라는 용어가 피해자들이 전시에 강제 매춘과 성폭력을 겪으면서 감내해야 했던 고통, 즉 연일 거듭되는 강간과 심각한 육체적 학대와 같은 고통의 내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따라서 특별보고관은 "군 성노예"라는 용어가 훨씬 정확하고 적절한 용어라고 확신한다.
- 일본군들에게 현지에서 매춘을 제공하는 소위 '위안소'의 설립은 상해에서 중국과 일본 간의 적대감이 심화되어 가던 1932년 초 무렵부터 시작되었다. 이로부터 약 10년이 채 못 되어 소위 "위안부"의 활용은 광범위하게 확산되었으며 일상적인 현상이 되어버렸다. …… 위안소라는 제도설립의 공식적인 명분은 매춘행위를 제도화하고, 그것을 통해 매춘행위를 통제함으로써 육군이 점령지역에서 보고되는 강간 보고의 수치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었다.
- 전쟁이 계속되고 동아시아 여러 지역에 주둔한 일본군의 숫자가 증가함에 따라 군 성노예제에 관한 수요도 증대되었다. 그래서 징집을 위한 방법이 고안되었다. 그중에는 동아시아의 다수의 지역에서 특히 조선에서 사기와 폭력의 빈번한 이용이 포함되었다. 스스로 위안부임을 밝힌 다수의 한국 출신 '위안부'의 증언은 강제와 사기가 빈번하게 이용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해주고 있다. 상당한 숫자의 피해 여성들은 증언을 통해, 자신들의 징집에 책임이 있는 여러 업자와 현지 협력자가 일삼은 사기와 감언에 대해 말하고 있다.
- …… 여기서는 세 가지 유형의 징집방법이 확인된다. 이미 매춘부였으며 자발적으로 일하고자 하는 여성과 소녀들을 모집한 경우, 식당이나 군인을 위해 요리하고 빨래하는 보수 좋은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속임수로 여성들을 모집한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규모의 강제적이고 폭력적인 여성 납치 방법인데 이것은 일본 점령 하의 국가들에서 행해진 노예사냥과 같은 것이었다.
- 여성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자, 군을 위해 일하는 민간업자들 뿐 아니라 일본과 협조하여 일하던 조선의 순사들도 마을로 와서 보수 좋은 일자리를 약속하며 처녀들을 속이곤 했다. 이것은 곧 이 과정이 일본 당국의 재가를 받은 공식적인 과정이었음을 의미하며 또한 어느 정도의 강제성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1) 유엔 보고서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여성들의 용어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2) 어떠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그 이유도 써보자.

4. 다음 영상을 보고, 모둠별로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더 알고 싶은 내용을 토의해보자.

(# 영상 : 소녀 이야기 (애니메이션), 눈길 (영화), 내일 (드라마) 중 선택)



애니메이션 <소녀이야기>



영화 <눈길>



드라마 <내일 13화 봄>

- ▶ 애니메이션 <소녀이야기> - <https://www.youtube.com/watch?v=nSt3CTaNIEY> (11분)
- ▶ 영화 <눈길> - 총 24분 (34분~41분, 47~49분, 1시간 11분~13분, 1시간 31분~1시간 44분)
- ▶ mbc 드라마 <내일> 13화 제목 봄 - 총 23분 (19분~42분)

<영상을 통해 알게 된 점>

<더 알아보고 싶은 내용>

참고 자료

연표

- 1910년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가 됨
- 1931년 만주사변
- 1932년 중국 상하이에 최초의 일본군 ‘위안소’ 설치
- 1937년 중일전쟁 발발, 난징대학살, ‘위안소’ 제도 확대
- 1941년 12월 일본의 하와이 진주만 기습 공격, 미국의 참전
- 1945년 8월 일본의 패망과 2차 세계대전 종결, 조선의 해방
- 1965년 한일기본조약 체결(한일회담)
- 1991년 김학순 할머니의 최초 공개 증언
- 1992년 서울 일본대사관 앞 수요집회 시작, 일본 정부의 ‘위안부’ 문제 공식 사과 등을 요구
- 1992년 유엔 제네바에서 황금주 할머니 기자회견 및 최초 증언
- 1993년 일본 고노 관방장관 담화발표, 일본 정부의 일본군의 ‘위안부’ 제도에 대한 개입과 책임 인정
- 1995년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기금 설립
- 1996년 유엔 인권위원회 특별보고자 라디카 쿠와라스와미의 보고서에서 위안부 문제를 성노예제로 규정
- 1998년 유엔 인권위원회 특별보고자 게이 맥두걸의 보고서에서 일본 정부차원의 배상책임 규정
- 2001년 일본의 중등 교과서에서 ‘위안부’ 문제가 사라짐
- 2007년 미 연방하원 ‘위안부’ 결의안 통과
- 2010년 미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에 최초의 ‘위안부’ 기림비 건립
- 2011년 서울에서 1000회차 수요집회,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제막
- 2013년 미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시에 최초의 해외 소녀상 건립
- 2014년 일 극우단체, 글렌데일시를 상대로 소녀상 철거소송 제기
- 2015년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일 외교장관 합의 발표, 피해자를 배제한 ‘최종적, 불가역적’ 합의라고 했으나 국내 외적으로 큰 비판을 받음
- 2016년 미 캘리포니아주 교육부에서 ‘위안부’ 문제를 공립 고등학교 10학년 사회, 역사 교육과정에 삽입 결정
- 2017년 미연방 대법원에서 소녀상 철거소송 기각
- 2017년 미 샌프란시스코에서 공공부지에 ‘위안부’ 동상 제막
- 2020년 독일 베를린 공공부지에서 진행 중인 소녀상 전시를 막기 위한 일 극우단체의 로비, 로비실패
- 2021년 미 하버드 로스쿨 램지어 교수가 논문에서 ‘위안부’가 자발적 매춘부라고 근거 없는 주장을 한 것에 대해 전 세계 학자들의 집단적 항의와 비판이 이어짐
- 2021년 일본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위안부’의 강제성에 대한 서술이 사라짐

도입 활동지 2

일본군 ‘위안부’와 위안소의 실태

1.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살아있는 증언 (총 4명의 증언 중 2개 이상 선택)

버마의 밀림에서 사선을 헤매며

- 김태선(가명)

나는 1926년 2월 20일 전라남도 강진군 학명리에서 태어났다. 내가 열두 살 때 부모가 정식으로 이혼했다. 나는 부모가 이혼한 후에 큰 아버지 집으로 들어갔다. 어머니는 이혼한 지 몇 해 후 광주에서 돌아가셨다. 아버지는 언제 어디서 돌아가셨는지 아무도 모른다. 큰 아버지는 나를 시집보내기 위해 여러 번 선을 보였으나, 나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서 시집을 가지 않았다.

1944년 9월 초쯤이었다. 이 때 나는 열여덟 살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큰 아버지는 밖에 나갔다 들어오시더니 나한테 빨리 숨으라고 했다. 그래서 다락방에 올라가 숨어있었다. 한 일주일 동안 아침밥을 먹고 다락방에 올라가서 오후 두세 시까지 숨어 있었다. 그날도 숨어있다가 배가 너무 고파서 다락방을 내려와 식구들과 함께 점심을 먹고 있었다. 그런데 바로 그 때 국민복을 입은 30대 일본인 한명과 양복을 입은 40대 조선인 한 명이 사립문을 차고 들어왔다. 조선인 남자는 최씨인데 창씨성을 이 와오카라 했다.

최씨는 나한테 빨리 밥을 먹으라고 독촉했다. 9월이니까 방문이 열려있어서 내가 있는 방에서 마루에 걸터앉아 있는 두 사람이 잘 보였다. 내가 점심을 다 먹자 최씨가 “너 돈벌이 하고 싶지? 일본에 가서 일년 동안만 공장에서 일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가자.”하고 말했다. 그 길로 두 사람은 나의 양 팔을 끼고 끌고 나갔다.

인천에서 합숙소 비슷한 곳에 들어갔다. 방이 두 세 개 있었다. 한 방에 여자들이 20명가량 있었던 것 같다. 처녀들도 있었고 애기 엄마도 있었다. 경기도와 경상도 처녀들도 있었는데 전라도 처녀들이 제일 많았다. 인천에 가서 미스코라 이름 직접 지었다. 그 사람들은 인천에서도 우리가 일본의 공장에 갈 것이라고 했다. 일본에 가면 여러 가지 공장이 많으니까 공장의 직공으로 일하러 간다고 했다. 인천에서 준비물을 받았다. 검정색 몸뚱이 두 벌과 블라우스 2벌, 그리고 속옷을 두 벌씩 받았다. 인천에서 일주일 동안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신체검사를 받았다. 일본인 의사와 조선인 의사가 우리들 가슴에 청진기를 대고 검사를 했다. 목도 보았다. 산부인과 검사는 받지 않았다. 인천에서 20명씩 작은 배를 타고 부산으로 갔다. 9월 20일 경 부산에 도착했다. 어느 수용소로 들어가니까 또 다른 여자들이 많이 와 있었다. 부산에서 일주일을 머무른 뒤 오사카로 가게 되었고 거기서도 2주일이나 있었는데도 공장에는 보내주지 않았다. 우리는 공장에 가려고 오사카까지 왔는데 왜 안 보내주고 또 어디를 가느냐고 물었다. 그 뒤로도 2주일이 지나야 배를 타게 되었다. 1944년 10월 초순에 100여 명의 여자들이 아주 큰 5층 배를 타고 이동했고, 도중에 오키나와에서 60여 명의 여자들이 내렸다. 나는 사이공까지 갔다. 사이공에 도착하니 그 곳 사이공 수용소에도 여자들이 한 20명이 이미 와있었다. 합해서 약 60여명이 됐다. 사이공에 와서야 비로소 위안소에 가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세 조로 나뉘었는데 우리 20명은 버마의 랑군으로 갔다. 그 곳은 아주 더웠다. 위안소 건물은 두 줄로 늘어서 있었고, 그 가운데 길이 있었다. 한 줄에 방이 10개씩, 모두 20개가 있었다. 대문도 울타리도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들어왔다.

이튿날부터 일을 시작해야 했는데 나는 그 때 처음 남자를 접했다. 갑자기 많은 남자에게 당했기 때문에 배가 아프고 피가 흘렀다. 최씨는 “콘돔을 끼고 하기 때문에 임신이 안되고 병이 옮지 않을테니까 걱정마라. 아픈 것만 조금 참으면 된다.”고 말했다. 처음 일주일 동안 너무 시달려 견딜 수가 없었다. 우리는 일곱 시쯤에 아침밥을 먹고 아홉 시부터 병사들을 맞기 시작했다. 오후 세 시까지는 병사. 세 시부터 일곱 시까지는 하사관, 일곱 시부터 열 시까지는 장교들이 왔다. 장교들 중에는 밤에 자고 아침에 나가는 사람도 있었다. 식사는 하루에 세 번씩, 날아갈 것 같은 안남미로 소금물을 뿌려 만든 주먹밥과 단무지와 된장국을 주었다. 더울 때는 밖에 설치된 펌프에서 물을 받아 목욕을 했다.

영문도 모르고 인천에서 배를 타다.

- 김옥주

나는 1923년 12월 16일 대구 대신동에서 아홉 남매 중 다섯째로 태어났다. 아버지는 왔다갔다하면서 뭘 했는지 모르겠다. 오빠한테 독립 운동했다고 들었다. 아홉 살에 대구 수창 학교에 들어가 열한 살까지 다녔다. 열두 살 되는 3월에 학교를 그만두고 일본 사람 집에 들어가 5년 살았다. 집 주인은 일본 소조. 성은 마츠코토 또는 마츠야마인가였고 이름은 시게미츠였다. 우리 집은 가네야마로 창씨를 했는데 마츠모토가 마사코라는 이름을 지어줬다. 나는 그 집에서 애보기와 식모를 하며 지냈다. 열일곱 살이 되자 마츠모토가 인천에 식모로 가면 한 달에 8원을 준다고 했다. 3개월 치 24원을 선불로 받았다. 호적이 필요하다고 해서 고향에 가서 떼다 주었다. 1939년 3월에 대구역에서 기차를 탔다. 어머니와 마츠코토, 그 부인과 애들까지 다 나와 주었다. 흰 고무신을 신고, 머리를 두 갈래로 나눠 간단하게 묶고 원피스를 입고 갔다. 마츠모토가 일본 남자 둘에게 날 넘겼다. 한 사람 이름은 히라키 상이었다. 나 말고 여자가 둘이 더 있었다. 아침에 서울역에서 내렸다. 히라키는 우리를 일본 사람과 조선사람에게 다시 넘겼다. 일본 사람은 개성으로 가고 우리는 조선 사람을 따라 인천으로 갔다. 인천 한양 여관이었던가, 그 곳에서 사나흘을 묵었다. 그 사이 일본 남자가 개성에서 여자 둘을 데려왔다.

인천에서 다시 배를 탔다. 인천에서 일을 하는 줄 알았는데 다시 배를 타서 이사했다. “어디 가냐” 물어보니 “거기 가보면 안다.”고 했다. 이틀인가 사흘 걸려 중국 청도로 가서 그곳 여관에서 열흘인가 묵었다. 우리는 다시 다른 일본 남자에게 넘겨졌다. 또 배를 탔다. 대만에서 오는 일본 배였다. 민간인들만 탄 큰 배였다. 상해, 산둥, 홍콩을 거쳐 해남도까지 갔다. 대구 출신 셋, 개성 둘 여자 다섯이 갔다. 해남도에서 우리를 또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 물건 넘기듯이 계속 넘긴 것이다. 트럭을 타고 이동했다.

보름 정도 우리끼리만 있다가 병원에서 검사받고 우리가 살 집으로 갔다. 해구 시내에 있었는데 시계탑이 보였다. 길 하나 사이로 맞은 편에 군부대가 있었다. 위안소 이름은 에비스, 대문에 들어오는 오른쪽에 세로 나무판에 끼만 붓으로 이름이 써 있었다. 4층 집이었는데 그 전부터 있던 옛날 중국집이었다. 1층은 식당하고 부엌, 목욕탕이 붙어있었다. 방은 3층에 다섯이 있고, 4층에 넷이 있었다. 약한 판자로 방을 막은 거여서 엉터리였다. 내가 있던 에비스하고 아시아, 스바키, 고도베키는 육군만 올 수 있었다. 조바 옆 의자에 앉으면 군인들이 여자를 선택했다. 인간으로서 인간을 상대하는데 좋아하는 사람도 나빠지는 사람도 포악한 사람도 때리는 사람도 있었다. 군인이 가져는데 거절하여 등에 칼을 맞은 적도 있었다. 아직도 등 뒤에 흉터가 있다. 주인은 50대 일본 여자였다. 또 조바관리인) 같기도 하고 주인같기도 한 30대 남자가 있었다. 이 남자는 군인 출신으로 육군을 제대했다고 한다. 모자 쓰고 별 단 사진을 위안소에 걸어놨었다. 우리는 순전히 조선 여자만 있었다. 아홉 명일 때도 있었고 열두 명일 때도 있었다.

에비스에서 나는 마사코라고 불렸다. 처음 육군병원에 끌려가 성병 검사를 받을 때는 기가 막혔다. 처음에는 문을 잠가놓고 밥 안 먹고 씨름했다. 울기만 했다. 여자 중에 임신을 안 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1주일에 한 번 성병 검사를 하니 콘돔을 안 끼려고 하는 놈들이 있었다. 나는 태아를 많이 뱉다. 주인이 나를 민간병원에 데리고 가서 눈치 안 나게 떼어 냈다. 병원비는 모두 이자로 쌓였다.

사병들은 아침부터 왔고 하사관은 저녁 5시부터 왔다. 장교는 밤 9시부터 아침까지였다. 군표를 받으면 주인이 다 가져갔다. 군인들이 주는 팁으로 용돈을 썼다. 매월 말일경이 되면 주인이 여자들을 1층 큰 방에 모아놓고 매상 등수를 매겼다. 무조건 손님을 많이 받으라는 것이었다.

일본 여자와 조선 여자를 불러놓고 군인들이 추첨하는 미인대회 같은 것도 있었다. 나는 2등으로 당선되서 사단에 가서 인사하고 해구 시내를 한 바퀴 돌기도 했다. 춤을 배우 군인들 연회에 가기도 했다. 그 곳에 간지 석 달 만에 자살하려고도 했다. 너무 지쳐서 싫었다. 말라리아 예방약 4, 50개를 먹고 이틀만에 개인병원에서 깨어났다. 그 곳에 간지 3년 뒤에 집주인이었던 마츠모토가 찾아왔다. 네가 뭘데 날 이리 만들었냐고 울고불고했다. 계약이 3년이라고 했는데 나는 빛이 줄지 않아서 3년 후에도 그 곳에 있었다.

지옥에서 살아남아 역사를 증언하다

- 박영심

나는 1921년 12월 15일 평안남도 남포시에서 태어났다. 태어나자마자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새 어머니가 있었지만 나는 집에서 늘 외로웠다. 집이 가난하여 학교도 가지 못하고 열네 살에 남포시 후포동에 있는 양복점에서 식모로 일했다. 1938년 3월경 나는 일제의 '처녀 공출'에 걸려들었다. 검은 제복에 별을 두 개 달고 긴 칼을 찬 일본 순사 놈이 나와 친구를 강제로 평양까지 압송했다. 평양역에 도착하니 이미 15명의 조선 여성들이 끌려와 있었다.

기차와 자동차를 타고 처음 끌려간 곳은 중국 남경이었다. 일본군 병영에서 약 500미터 떨어진 곳에 '긴스이루'라는 위안소가 있었다. 3층으로 된 벽돌집이었고 방 안에는 침대가 하나씩 있었다. 20명의 조선인 여성들이 있었으며, 나는 2층 19호실 차례였다. 이름도 우다마루로 바뀌었다. 일본군은 하루에 30명 정도 왔다. 저항을 하면 다락방으로 끌려가서 발가벗겨진 채 매를 맞아했다. 일본군을 상대하는 하루 하루는 인간의 생활이 아니었다. 우리는 마치 동물과 같이 취급당했다. 하루라도 빨리 도망가고 싶었지만 감시는 엄혹했다. 위안소를 출입하던 중국인이 우리를 동정하여 아편을 줬다. 그것을 마시면 그 당시만이라도 슬픈 기억을 잊을 수 있었다.

지옥같은 '긴스이루'에서 3년 넘게 지낸 후 나는 일본군 병사 2명의 호송을 받으며 버마 랑군을 거쳐 라시오에 있는 위안소로 옮겼다. 병사들과 함께 트럭으로 이동했다. 라시오의 '이카쿠루'라는 위안소에서는 오카하루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2년쯤 지나 1943년 여름, 나는 버마와 중국의 국경지대 송산이라는 곳으로 끌려갔다. 그곳은 최전선지대였다. 매일 수많은 폭탄과 포탄이 날아와 터졌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처지에서 한 사람이 하루 30-40명의 군인을 상대해야 했다. 거칠어질대로 거칠어진 놈들이 술까지 먹고 달려들면 그 때의 고통이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다. '위안부' 중 4명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병 걸려 주고 폭격에 맞아 죽었다.

1944년 9월 7일 중국군의 반격을 받고 라모 수비대는 전멸했다. 진지에 숨어있던 나는 전멸 바로 직전에 진지를 탈출했다. 당시 만삭의 임신 상태였다. 도망나와 강가에 있는 옥수수 밭에 숨어 배를 채우고 있을 때 어느 중국인 농부가 우리들을 발견했다. 공포로 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좋다."고 말하고 우리들을 집으로 데리고 가서 먹을 것을 주었다. 그리고 난 뒤 중국군 병사에게 연락했다.

중국군은 우리들을 데리고 곤명의 포로수용소로 갔다. 그 사이 아이는 뱃속에서 사산되었다. 포로수용소에는 일본군 패잔병들이 있었다. 짐승 같은 놈들과 포로 생활까지 하게 되었으니 기가 막혔다. 이후 곤명 포로수용소에서 9개월가량 잡혀있었다.

1946년 2월 나는 배를 타고 인천으로 와서 서울 집결소를 거쳐 황해도 청단까지 걸어난 후 다시 기차를 타고 고향인 평안남도 남포로 돌아왔다. 치욕스런 과거 생활로 인하여 양심에 꺼려졌지만 죽어서도 잊을 수 없는 고향으로 가고 싶었다. '위안부'라는 사실을 숨긴 채 결혼도 했다. 아이를 낳지 못해 입양해 키웠다. 나는 가정의 행복도 자식 낳는 어머니의 기쁨도 모르고 살아왔다. 나의 과거를 생각할 때 나와 같이 끌려가 갇은 고역 끝에 미국 땅에서 무주고혼(의지할 곳 없이 떠돌아 다니는 외로운 영혼)이 된 수 천 명의 조선인 여성들이 생각한다. 나는 일본 정부가 죄악에 찬 과거를 똑똑히 반성하고 그에 응당한 배상을 하도록 가해 줄 것을 세계의 양심 앞에 호소한다.

인도네시아 보르네오 섬 발릭파판으로

- 강도아

내 어려운 이야기는 입이 있어도 말하기가 어렵다. 부모님은 남의 땅 지어먹고 살았다. 형제자매가 열 명인데 내가 가장 크니까 매일 동생을 돌봐야 했다. 동생 하나 업고 밥 해 먹고 동생 하나 업고 집 청소하고 그렇게 사느라 열네 살이 될 때까지 바깥에 나가보지를 못했다. 사람 구경도 못 해보고 하루는 집에서 "도아야, 니가 가라는 데로 가면 우리가 부자가 된다 한다. 먹고 살기가 괜찮아진다."고 했다. 면직원이 나왔었는데, 잘 모르겠는데 면에서 해서 간 것이었다. 집에서는 안 보내줬을 것인데 식구가 워낙 많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 곳에 가면 돈을 많이 부쳐줄 수 있다니까 보내줬다.

가면 식모처럼 밥이나 시켜 먹고, 빨래나 시키고, 청소나 시키고 그럴 줄 알았다. 집에서 이려고 사느니 어디 가면 나도 잘 먹고 잘 입고 부모 형제간도 잘 살고 할 것이니 그래볼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아무 날 나를 데리고 간다고 했다. ……

대만이라는 소리만 들었다. 거기가 어딘지는 모르겠다. 그 집 이름은 무엇인지, 간판은 있었는지, 내가 이렇게 천하 반편이다. 가자마자 열흘이 지났나 한 달이 지났나 밥해 주고 빨래나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했다. 집에 있어도 안 놓고 그런 일을 하니까 이제는 이런 일을 하겠다 싶었다. 내 대에는 설마 '손님' 받고 그런 일 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그런일 한 것이 한 달쯤 넘어서였을 거다. 거석(매우 큰 돌을 옮기는 일) 하는 놈이 여러 명 들어왔다. 이것도 들어오고 저것도 들어오고 고향처럼다고 두들겨 패고 '주둥이'도 틀어막고. 아래가 세 갈래나 네 갈래나 찢어져서 걷지도 못하고. 말도 못했다. 겨우 조금 아물어질 때 정도 되니까 또 받아야 되고 안 받으면 죽으니까. 대만에서는 무엇이 어찌 됐는지 모르겠다. 자꾸 내 몸만 숨기려 하고 사람 보려고

하지도 않고 못 죽어서 거기에 땀기 것이지. 누가 왔는지 누가 있었는지 기억에 하나도 없다. 주로 생각한 것이 내가 어디로 도망가면 저것들 안 받고 살 것인가. 그것밖에 생각하지 않았다. 주야장천 내가 어디로 가면 저 꼬라지를 안 보고 살건가, 그것 뿐이었다.

대만에서 3년 있다가 인도 발릭파판으로 옮겼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못하고 가자 하는 대로 따라갔다. 안 따라가면 맞아 죽으니까. 거기는 사방이 물 천지고 배도 많이 오고 가면서 달는 데도 아니었다. 골짜기에 들어가면 석유도 나왔는데 바닥이 새끼말고 성냥을 버려서도 안 되는 곳이었다. 발릭파판의 집은 아래도 없고 위에만 벽이 있고 계단도 없었다. 대만에서는 2층에 있었는데 거기는 2층이니 3층이니 없고 단층뿐이었다. 군인들이 문 뒤에 줄지어 있다가 문만 열면 들어오고 했다. 군인들은 표 쪼 가리를 주인에게 갖다줬고 콘돔을 들고 들어왔다. 다 마치는 시간이 지금 생각하면 7시, 8시나 될까 10시가 넘을 때도 있었다. 밤새도록 자고 가는 نوم 없었다. 그 곳은 밤새도록 자는 데가 아니었다. 술 먹고 들어오는 놈도 있었다. 그런 놈들 행패 부리는 일 같은 것은 말도 다 못한다. 다 받아줘야지 방법이 없다.

전쟁이 끝날 때쯤 간호복을 입으라고 해서 입었다. 어디서 그런 것을 가지고 왔는지 모르겠는데 흰 옷 입고 모자도 썼다. 주인들이 우리가 거기에 와서 있는 줄 알면 안 된다고 했다. ‘몸이나 팔고 그런 거 하러와서 있는 줄 알면 안 된다.’는 거라. 그 사람들이 연합군한테 잡히면 맞아 죽는다고 했다.

전쟁에 손 들었다고 해서 해방된 것을 알았다. 해방되고 나서는 일본 사람들은 어디로 가버렸는지 없어졌다. 부려먹기는 부려 먹고 일본이 지고 나니까 어떻게 된 것인지. 자기들끼리 다 가버렸다. 폭탄 맞아 그 집도 없어져버렸다. 나는 미군들한테 겁이 나서 인도인 집에 가 있었다.

인도 사람하고 같이 살다가 나왔다. 한 7, 8개월 있었단가. 나올 때는 “배가 어느 시에 있다.” 인도사람들이 말해줬다. 배 선장보고 나 좀 태워달라고 하니가 배가 부산으로 간다고 했다. 고향 한 달 걸려 부산에 도착했다. 그런데 호열자콜레라때문에 부산에는 배를 못 대고 인천에 댔다. 인천에 와서 내렸지. 인천에 와서 돈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서 남의 집에 그릇도 씻어줘 보고 얻어먹고 있었다. 그래서래 돈을 모아가지고 집에 오다가 또 돈이 떨어지면 차에서 내려 이집 저집에서 일을 해주었다. 그렇게 고향에 와서 보니까 부모형제는 “돈 부쳐준대더만 죽었는가 살았는가 흔적도 몰랐다”하고 내가 글을 몰라서 편지도 안했다. 계속 소식이 없으니 어디서 죽었는가 싶어 제사를 지냈다고 했다.

2. 일본군의 위안소 설치 및 운영

일본군은 1930년대 초에는 주로 중국 본토에다 위안소를 설치하기 시작하여 전쟁이 동남아시아, 태평양 각지로 넓어지면서 주둔지마다 위안소를 설치하였다. 일본군은 당시 일본의 식민지였던 조선과 타이완의 여성들을 포함하여 중국, 필리핀, 동티모르, 인도네시아 등의 여성들까지 일본군 ‘위안부’로 강제 동원하였다.



3. 대한민국 내 위안소 현황 및 인천 위안소



지도에 기록된 한반도 내 위안소는 서울시, 인천시, 부산시, 전남 목포시, 경남 창원시, 제주도 서귀포시, 강원도 원산시, 평안남도 순천군, 함경남도 함주군, 양강도 해산시, 함경북도 청진시, 함경북도 회령시, 나선시 등 모두 13개다.

인천시에 있던 위안소는 위안부 피해자 이종녀 할머니의 증언과 조선 20사단 2095부대 한 중사의 증언으로 존재가 확인됐다. 이종녀 할머니는 피해 증언에서 “구청장에게 속아 1943년 7월 배를 타고 서울로 가게 됐고, 이후 트럭을 타고 인천으로 호송됐다. 도착한 곳엔 인천 고무공장 근처 연립 주택과 14개의 방이 있었는데 넓이는 2미터×1.3미터 정도였고 벽돌로 분리돼 있었다”면서 “이곳에서 지내며 낮에는 일본군 병영 청소를 하고, 저녁에는 14~15 명의 군인을 상대했다. 위안소 책임자는 일본인이었다”고 했다.

4. 일제강점기 인천지역 강제 동원 현황

- 인천지역 강제 동원 현황

〈국가기록원 일제강점기 피해자 명부에 의한 인천지역 동원지, 본적지 인원〉

| 동원지 (타지역 → 인천) | 인원(명) | 본적지 (인천 → 국내외) | 인원(명) |
|-------------------|---------|-------------------|-------|
| 인천 | 1만 1678 | 인천 | 4802 |

- 일제강점기 인천지역 동원지(총 102개소)

경성공장(주), 나리타 조선소, 도쿄제강, 부평요업, 수원성냥, 인천고무공업사, 제 1제조소-인천육군조병창, 인천육군 조병창, 광업보국단, 인천항, 문학산 금광, 철도공사장(경인선), 항만공사장(월미도항 군수물자수송, 인천공장-대성목재, 하라야마 철공소, 인천공장-조선목재공업, 세기공업소, 오히라 조선소, 인천요업, 인천제작소-미쓰비시 제강, 인천만석공장-조선도시바, 본사-조선성냥(주), 도쿄 자동차 공업, 인천공장-조선화학비료, 인천공장-미쓰비시 전기(주) 등

정혜경 연구자의 ‘인천지역 아시아태평양 전쟁 유적 현황’ 조사에 의하면 인천지역 강제 동원 현황은 공장 58곳, 군부대 2곳, 군사시설물 공사장 4곳, 시설 4곳, 철도·도로 2곳, 탄광·광산 2곳, 하역수송 2곳, 기타로 구분하고 있다.

- 일제강점기 인천지역 학생 동원 현황

| 연도 | 학교 | 노동 내용 | 비고 |
|----------|--|-------------------------------------|---|
| 1938-44년 | 인천공립상업학교 인천공립중학교 인천공립고등여학교 | 제염작업, 사격장, 건설작업, 제방수리, 군용피복재봉작업 등 | 1938.7.1. 학교근로보국대 결성/10일간 노동력 동원 |
| | 아사히·龍岡·송림·창영·박문·영화 영화여자·주안·대화소학교(송의초) | 신사 청소, 운동장 정비, 모래나르기, 빨래터(배다리) 빨래봉사 | 각 학교 근로보국대결성 |
| 1944-45년 | 인천공립공업학교 인천공립중학교 인천공립상업학교 인천공립고등여학교 인천소학교고등여학교 | 인천육군 조병창 제 1 제조소 (부평)로 1년간 동원 | 동원 기간 장기화와 학습권 박탈/ 학도 동원 비상조치 요강에 의해 1년 내내 동원 가능, 송림초등학교 고등과 남학생의 경우 대성목재 공장 노동에 동원 |
| | 인천지역 소학교 전체 송림초등학교 고등과 남학생 | 식량증산운동, 퇴비증산운동, 서곶·계양·부평에 모심기 | |

〈김미현 '전시체제기 인천지역 학생노동력 동원'(인천학연구원 2010 논문) 요약 재구성〉

생각해볼 문제

'미래'에게 위의 자료들을 참고(위안부 할머니들의 증언, 인천지역의 강제 동원)하여 무슨 대답을 해주면 좋을지 써 보자.

미래 :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을 끊임없이 꼬집어내고 사과를 받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과거의 일로 서로 반목하는 것보다는 지나간 일은 잊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협력하는 게 좋은 방안이지 않아요?

나 : _____

학생 활동 계획서 2

프로젝트 주제 관련 조사

| [] 모듈 | | 학년 반 번 이름: |
|-------------------|--|------------|
| 프로젝트 주제 | | |
| 주제와 관련된 사건들 | | |
| 관련 자료 수집 | | |
| 사건에 대한 분석 | | |

정리내용 활동지

잊지 말아야 하는 역사, 우리가 해야 할 일

[] 모둠

학년 반 번 이름:

1. 다음은 일본군 '위안부' 관련 최근 기사들이다. 기사를 읽고 <활동하기>를 써보자.

기사 1) 소녀상이 '국제망신'이라는 사람들

이지경제 2022.08.02.

(<http://www.ezy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119588>)



<소녀상 반대집회를 여는 위안부사기청산연대>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주장하는 극우단체의 시위가 거세다.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를 필두로 조직된 극우단체 '위안부사기청산연대'가 매주 수요일마다 소녀상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위안부사기청산연대는 올해 6월 26일 독일 베를린에서도 소녀상 철거 집회를 열었다. 독일인들이 이에 맞서 맞불집회를 여는 모습도 연출됐다. 위안부사기청산연대는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된 내용은 모두 날조"라며 "한·미·일 동맹을 위협하고 대한민국을 망신시키는 소녀상을 하루빨리 철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시위는 극단적이고 거칠었다. 시위를 촬영하는 기자에게 대뜸 정치 성향을 물어보며 '사상검증'을 진행했다. 수요집회에 참여하는 수녀들에게 "이 수녀 여자들아, 우상에 현혹되지 마라"라며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연설내용도 "일본군에 위안부 관련 기록이 없으니 위안부는 모두 거짓 사기극이고 날조다"라는 식으로 객관성이 결여된 내용들뿐이었다.

"위안부 소녀상이 부끄럽다"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들. 과연 진짜 부끄러운 이들은 누구인가.

평화의 소녀상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의 역사적 사실을 기억하고 전 세계의 전시 성폭력이 중단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만든 조형물이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현, 정의기억연대)가 2011년 12월 14일 주한일본대사관 앞에 처음 세웠다.

<포토뉴스>

연합뉴스 2022.8.24.



제1천558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를 위한 정기 수요시위가 열린 옛 주한일본대사관 터 인근에서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등 반(反) 수요시위 단체 회원들이 도로를 사이에 두고 맞불집회를 하고 있다

기사 2) 일본 학자들도 ‘위안부’·‘강제’ 표현 빼고 교과서 왜곡

연합뉴스, 2022. 08. 24

(<https://www.yna.co.kr/view/AKR20220824121000005?input=1195m>)

일본의 미래 세대가 배우는 교과서에서 ‘위안부’ 문제나 ‘강제 연행’ 등의 표현이 빠지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일본 학자들 사이에서도 나왔다. 24일 학계에 따르면 동북아역사재단은 25일 재단 대회의실에서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타난 ‘역사 왜곡’ 문제를 들여다보기 위한 ‘2022년도 일본 고등학교 검정교과서의 한국 관련 서술 분석’ 학술대회를 연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일본 교과서 문제를 꾸준히 지적해 온 일본 학자들이 참석한다.

와타나베 미나(渡邊美奈) ‘여성들의 전쟁과 평화자료관’(WAM) 사무국장은 미리 배포한 자료집에서 지난해 일본 정부의 결정에 따라 일본군 ‘위안부’ 기술이 정정된 사례가 여럿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아마가와출판사의 ‘신 일본사 개정판’ 교과서에는 ‘조선인 여성 등 중에는 중군위안부가 되기를 강요된 자도 있었다.’는 문장이 있었으나 지난해 각의 결정 후 ‘중군’이라는 단어가 빠졌다. 조선인 여성이라는 표현 역시 ‘일본·조선·중국 등의 여성’으로 바뀌었다. 또, ‘세계사탐구’ 교과서를 발간한 5곳의 7권 중 ‘위안부’ 관련 기술을 넣은 곳은 2곳뿐이었다. 와타나베 사무국장은 “(일본) 교과서에는 ‘위안부’ 문제가 왜 전시 성폭력 문제인지를 더는 다루지 않고 있으며 학계의 연구 성과도 반영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스즈키 도시오(鈴木敏男) 어린이와 교과서 전국네트 21 사무국장은 ‘교과서 공격’이라는 측면에서 문제를 바라봤다. 스즈키 사무국장은 발제문에서 “문부과학성이 정부 견해를 내세워 용어를 삭제하거나 기술을 정정하도록 강요한 것은 일본 학계뿐 아니라 국제적인 연구 성과를 짓밟은 행위”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각 교과서의 정정 신청 결과를 분석한 내용을 보면 지코 출판의 ‘역사총합’에서는 ‘강제적으로 연행하여 노동에 종사’시켰다는 표현은 ‘동원하여 일하게’로 바뀌었다. 이 밖에도 여러 교과서에서 ‘강제’라는 표현이 삭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학자들은 일본 교과서에서 표현된 한국 근대사 부분 또한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가토 게이키(加藤圭木) 히토쓰바시대학 교수는 식민지의 폭력성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이유를 정확히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부분의 교과서가 한반도 침략을 ‘한국병합’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대한제국의 패망 혹은 강제적인 식민지화의 실태를 덮기 위해 일본이 만들어낸 용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기사 3) 박유하 ‘제국의 위안부’ 2심서 유죄… 이유는?

국민일보 2017-10-28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839081&code=11131900&cp=nv>)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유하(60) 세종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2심 법원은 “허위 사실을 적시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저하시켰다”며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었다. 다만 “과도한 처벌로 학문·표현의 자유가 위축돼선 안된다”며 비교적 가벼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박 교수는 이번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27일 박 교수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일본군에 강제 동원돼 성노예 생활을 했던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안겨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성적 학대를 당했던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 ‘자발적 성매매’ 등의 표현을 써 이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도 했다. 1심은 책에 기술된 위안부 관련 표현 35개 중 30개는 ‘박 교수의 개인적 의견’이라고 봤다. 나머지 5개 표현도 “사실을 적시하긴 했지만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위안부를 유괴하고 강제 연행한 것은 공적으로는 일본군이 아니었다’ 등의 표현이 피해자들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자발적 매춘부’ 등 위안부의 본질이 매춘이었다고 기술한 부분은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으나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며 죄를 물을 수 없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을 차례로 뒤집었다. 재판부는 먼저 35개 표현 중 11개에 대해 “사실을 적시했다”고 봤다. 이어 ‘일본 옷을 입고 일본 이름을 가진 일본인으로서 일본군에 협력했다’ ‘위안부란 근본적으로 매춘의 틀에 있던 여성들’ 등의 표현이 위안부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깎아내렸다고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위안부가 노예적이긴 했어도 일본 군인과 동지적 관계를 맺었다’는 부분에 대해선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

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이라 판단한 근거로 고노 요헤이 관방장관 담화문(1993), 유엔 경제사회위원회 인권보고서(1996) 등 국제기구 보고서를 들었다. 재판부는 “해당 저서는 위안부들이 자발적으로 성매매에 나섰고 일본군에 협력했다고 독자들이 받아들여게끔 서술했다”며 “이는 객관적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이기 때문에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결론지었다.

재판부는 그런데도 벌금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하며 “잘못된 의견이나 생각은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토론과 논의를 통해 걸러져야 한다”며 “과도한 법적 처벌로 학문이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서는 안된다”고 했다. 박 교수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강하게 불만을 표시했다. 그는 “부당한 판결로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반드시 상고하겠다”고 말했다.

기사 4) 램지어 ‘위안부=매춘부’ 논문 결함 최소 29건…“연구 진실성 심각한 위반” 비판 봇물 경향신문 2021.02.21.
(<https://www.khan.co.kr/world/world-general/article/20210221082300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자발적인 매춘부로 규정한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의 논문이 핵심 증거 부재, 자료의 오독과 선택적 인용 등 학술 논문으로서 심각한 결함을 안고 있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특히 램지어 교수는 문제의 8쪽짜리 논문 ‘태평양전쟁 당시 성매매 계약’에서 자료를 부정확하거나 틀리게 인용한 사례가 최소 29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램지어 교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발적 매춘부라고 결론 내린 자신의 논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학문의 자유’ 논리로 방어하고 있지만 연구의 불성실성 및 연구 윤리 위반으로 논란으로 확대되고 있다. 램지어 교수는 논문의 내용뿐 아니라 형식적 결함에 대한 쏟아지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침묵을 지키고 있다.

■ ‘위안부는 자발적 계약에 따른 매춘부’라고 주장했지만 진짜 계약서는 제시 못해

스탠리 교수 등의 논문은 램지어 교수 논문을 둘러싼 논쟁이 불거진 이후 가장 포괄적이고 구체적으로 문제점을 분석한 논문이다. 스탠리 교수 등은 램지어 교수 논문의 문제점을 증거의 부재, 1차 자료 및 2차 자료에 대한 잘못된 묘사와 선택적 인용, 부정확하거나 부적절한 인용문 표기 등 4가지로 요약했다.

램지어 교수는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군 위안부들이 금전적 이득을 얻으려는 자발적인 관심과 의지에 따라 공평한 입장에서 계약을 맺고 매춘에 나섰다면서 이른바 ‘게임이론’의 틀로 이를 설명했다. 이 계약에 따라 일본군 위안소 매춘부는 통상보다 짧은 1~2년 단위의 계약을 맺고 고액의 선지급금을 받았으며, 수익을 충분히 올리면 계약 만료 이전에도 떠날 수 있었다는 게 램지어 교수의 핵심 논지다. 그런데 램지어 교수가 논문에서 핵심 근거로 인용한 공평한 계약 사례는 태평양전쟁 발발 전 중국 상하이 소재 ‘위안소’에 근무할 일본인 여성들을 모집하기 위한 표준 계약서였다. 그는 이 표준 계약서를 근거로 태평양전쟁 당시 동원된 일본군 위안부들도 같은 조건의 계약을 맺었을 것이란 일반화를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스탠리 교수 등은 “램지어 교수는 일본인, 조선인, 그리고 어떤 다른 나라 여성들이 위안소 근무를 위해 실제로 서명한 계약에 대한 증거를 한 건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백번 양보해서 단편적이고 간접적인 증거를 근거로 일부 여성들이 계약 시스템을 통해 고용됐다고 결론 내릴 수는 있다”면서 “그러나 이것이 모든 여성은 고사하고 대부분의 여성들에게도 그랬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 자료의 자의적 해석 및 오독, 선택적 인용 수두룩

핵심 증거 부재 외에 램지어 교수 논문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자료에 대한 잘못된 해석 및 묘사, 그리고 선택적 인용으로 지적됐다. 스탠리 교수 등은 램지어 교수 논문이 저지른 1차·2차 자료의 오독 및 선택적 인용 사태를 10가지로 분류했는데 위안부 피해자 고 문옥주 할머니(1924~1996)의 증언과 ‘일본군 위안소 관리인의 일기’ 인용 방식이 가장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램지어 교수는 문 할머니가 버마(미얀마) 량군(양곤) 소재 일본군 위안소에서 일할 당시 팁으로 상당한 돈을 모을 수 있었고, 시내에 나가 귀금속을 쇼핑하는 등 비교적 자유롭게 생활했다고 증언한 것을 강압성 부재의 사례로 인용했다. 하지만 램지어 교수는 문 할머니의 증언집이 한국어는 물론 일본어로도 정식으로 출판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성자가 불분명한 인터넷 블로그 ‘한국역사연구소’(Korea Institute of History)의 요약·발췌본을 인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 할머니는 증언집에서 16세 때 친구 집에 다녀오다가 일본군 헌병과 조선인 사복경찰에게 붙잡혀 헌병소

에 구금된 다음 만주 소재 위안소로 보내졌다고 밝혔다. 문 할머니는 위안소가 무슨 곳인지도 모른 채 이곳에 도착해 성노예 생활을 강요당했고, 어머니가 위독하다고 속인 다음 한 일본군 헌병의 도움을 받아 고향인 대구로 돌아왔다고 증언했다. 이후 문 할머니는 18살 때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업자의 말을 듣고 군함을 타고 미얀마로 갔지만 이 때도 도착하기 전까지는 성노예 생활을 해야 한다는 사실은 몰랐다고 증언했다. 문 할머니의 증언집에서는 사실상 납치당해 위안소로 끌려갔고, 임금을 받지 못했으며, 강압에 의해 성노예 생활을 했다는 증언을 다수 발견할 수 있지만 램지어 교수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일부만 선택적으로 인용한 것이다. 스탠리 교수 등은 “문옥주의 증언은 다양한 학술저작에서도 논의됐지만 램지어는 익명의 블로그에서 선택적으로 인용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일본군 위안소 관리인의 일기’ 역시 같은 문제점이 발견됐다. 1943~44년 미얀마와 싱가포르 일본군 위안소에서 관리인으로 일했다는 박씨라는 인물이 쓴 이 일기는 안병직 서울대 교수가 2013년 현대어로 번역·출간했다. 램지어 교수는 이 자료 역시 원문보다는 익명의 인터넷 블로그 ‘한국역사연구소’(Korea Institute of History) 자료를 근거로 위안부들이 관리인을 통해 정기적으로 돈을 고국에 송금했고, 이를 수신했다는 전보를 받은 것처럼 묘사했다. 이에 대해 스탠리 교수 등은 “원칙적으로 익명의 블로그를 역사 연구에서 인용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면서 “하지만 완전한 맥락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원문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익명 블로그의 단편적인 내용을 인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기사 5) 제2, 제3의 램지어가 나올 수 있는 이유

mbc 뉴스 2021.04.11.

(https://imnews.imbc.com/news/2021/world/article/6145901_34880.html)

‘위안부 왜곡’ 논문으로 파문을 일으킨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가 ‘미쓰비시 교수’라는 직함 이상으로 일본 우익의 핵심 세력에 닿아 있다는 사실이 얼마 전 공개됐다. 그가 임원을 맡은 연구단체에 ‘모랄로지’라는 재단이 돈을 냈는데, 그들의 지원 활동 전반을 살펴보면, 램지어의 역사 왜곡 논문이 어떤 체계 속에서 생산됐고 그런 일이 앞으로 또 일어날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모랄로지(Moralogy) 재단은 1926년 세워졌다. 윤리와 도덕에 관한 연구 증진을 표방하나, 유사종교적인 보수 성향 싱크탱크로 평가받는다. 연구 지원을 많이 해왔는데, 그 수혜자가 어떤 이들인지 보면 성격이 뚜렷하다. 재단의 2019~2020년 사회교육조성금 보고에는 ‘국가기본문제연구소’의 강연회를 지원했다고 나온다. 이 연구소의 이사장은 사쿠라이 요시코라는 여성 언론인이다. 지난 1월 스가 요시히데 총리와 신년 대담을 가질 정도로 영향력 있는 우익 논객으로, 현재 산케이 신문 1면에 정기적으로 칼럼을 쓴다. 그는 위안부 문제를 처음 보도했던 우에무라 다카시 전 아사히신문 기자를 상대로 사실을 왜곡했다며 인신 공격의 선봉에 선 바 있다. 강제징용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한국측 원고들이 돈 때문에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했다.

모랄로지는 사학 재단으로서 치바현에 있는 레이타쿠 대학을 운영한다. 이 대학의 역사연구실은 일본의 역사 인식이 이웃 국가들의 부당한 간섭을 받는다는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 재단의 역사연구실장은 일본 우익에서 유명한 니시오카 쓰토무. 그는 지난 2월 램지어의 논문이 실린 학술지 측에 논문을 철회하지 말라고 서한을 보냈다. 지난해 재단 홈페이지에 올린 기고문에서는 한국의 이영훈 교수 등 ‘반일종족주의’ 저자들의 투쟁을 응원한다고 선언했다. 그의 입김은 일본 정가에도 만만치 않은데, 도쿄신문에 따르면 아베 전 총리에 조언하는 브레인 중 한 사람으로 통했다.

이런 니시오카 쓰토무가 관장하는 레이타쿠 대학의 단체가 ‘일본문명연구 포럼’이고, 램지어는 그곳의 외국인 임원이다. 모랄로지 재단은 교육과 학술 지원만 하는 게 아니다. 현실 정치와도 연결된다. 재단은 1997년 일본 보수세력을 하나로 규합하며 결성된 ‘일본회의’에서도 중추적 역할을 한다. 2014년 당시 아베 내각의 각료 19명 중 15명이 일본회의 소속이었는데, 아베 전 총리와 스가 총리도 회원이다. 재단의 2019년 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역사왜곡 교과서 편찬을 위해 일본회의에 예산을 지원했다. 그 전에도 일본회의의 창립 기념사업과 교과서 보급 활동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했다. 결국 우익의 빅 텐트인 ‘일본회의’는 ‘모랄로지 재단’의 후원을 받고, 재단은 레이타쿠 대학의 ‘일본문명연구 포럼’을 통해 역사인식을 강화하며, 그 연결 고리 끝에 램지어 교수가 위치한다.

이러니 램지어 한 사람에게만 초점을 맞춘다면 큰 그림을 놓칠 수 있다. 램지어 같은 사람은 전에도 있었다. 램지어와 함께 일본문명연구 포럼에 임원으로 등재된 케빈 독 조지타운대 교수가 대표적이다. 그는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기미가요 등을 적극 옹호해 극우단체로부터 일본 연구 공헌자로 상을 받기도 했다. 모랄로지 재단의 객원교수로서 왕성한 학술 활동을 벌여 왔고, 그 덕분에 정치적, 경제적 이득을 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램지어가 가려는 길을 미리 앞서간 '선배'인 셈이다. '선배'만 있을까. 코네티컷대 알렉시스 더든 교수(역사학)가 지난 달 화상 인터뷰에서 "(램지어가) 신통치 않으면 '그들'은 더 잘 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고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스턴 일리노이대 이진희 교수(역사학)는 정부 차원의 지원을 지적했다. 그는 "2015년부터 일본 정부의 역사전쟁을 위한 '전략적 대외발신' 예산이 급증했고, 스가 총리도 이미 위안부와 영토 문제 등 역사전쟁 관련 정책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발표해 친일파 학자 육성 노력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램지어의 '후배'도 계속 나올 수 있는 구조다.

활동하기

최근에도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해서 많은 논란들이 일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제대로 된 역사적 사실을 알리고, 또한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로부터 진정한 사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토의해보자.

2.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청원서를 작성해보자.

(신문 기고문 써보기, 진정서 작성, 서명 운동 등으로 방식을 바꾸어도 됨)

| | |
|-----------|--|
| 청원 대상 | 예) 대한민국 국회, 유엔인권위원회, 여성인권관련 단체, 일본 국회, 인천시청 등 |
| 청원 주제(핵심) | 예) 법안 마련 촉구, 일본에 대한 압력 촉구, 망발을 하는 정치인이나 학자 퇴출, 위안부에 대한 진실 규명 등 |
| 청원 내용 | |

자기 성찰 일지

프로젝트 수업 돌아보기

| [] 모듈 | | 학년 반 번 이름: | | |
|--|--------------|---|--|--|
| 프로젝트명 (혹은 수업 주제) | | | | |
| 탐구 질문 (혹은 핵심 질문) | | | | |
| 프로젝트 요약 (혹은 활동 요약) | | | | |
| 자기 자신에 대하여 | | | | |
| 프로젝트(혹은 수업)를 통해 무엇을 배웠나요? (학습내용) | | | | |
| 프로젝트(혹은 수업)를 하는 동안 어떤 역량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나요? | 인천교육 핵심역량 | <input type="checkbox"/> 자기관리역량 <input type="checkbox"/> 의사소통역량 <input type="checkbox"/> 다양성존중역량 <input type="checkbox"/> 문제해결역량 <input type="checkbox"/> 협력역량 | | |
| | 교과 역량 | <input type="checkbox"/> 비판적·창의적 사고 역량 <input type="checkbox"/> 자료·정보 활용 역량 <input type="checkbox"/> 공동체·대인 관계 역량 <input type="checkbox"/> 의사소통 역량 <input type="checkbox"/> 자기 성찰·계발 역량 <input type="checkbox"/> 문화 향유 역량 | | |
| 가장 최선을 다한 프로젝트 활동(수업 활동)은 무엇인가요? | | | | |
| 더 시간을 들이거나 다른 방식으로 프로젝트(혹은 수업)에 참여한다면 무엇을 하기 원하나요? | | | | |
| 프로젝트(혹은 수업)에 대하여 | | | | |
| 가장 재미있었던 프로젝트 (혹은 수업) 활동은 무엇인가요? | | | | |
| 가장 아쉬웠던 프로젝트(혹은 수업) 활동은 무엇인가요? | | | | |
| 선생님이 어떻게 하면 프로젝트(혹은 수업)를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을까요? | | | | |

라. 교사 참고 자료

청원서 예시) 반크 하버드 램지어 교수 논문 왜곡 청원
 성 노예 전쟁 범죄를 옹호하는 하버드 로스쿨 교수?
 존 마크 램지어 씨
 당신은 21세기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인가요?
 아니면 100년 전 일본제국의 대학 교수인가요?

일본의 전쟁범죄를 왜곡하는 램지어씨의 논문은 독일 나치시절 선전장관 괴벨스의 발언처럼 주변 나라들을 침략한 것을 합리화하고 있으며, 침략 전쟁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일본 정부의 확성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존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교수의 논문 제목은 ‘태평양전쟁 당시 성(性)계약’(Contracting for sex in the Pacific War)으로 ‘인터내셔널 리뷰 오브 로 앤드 이코노믹스’(International Review of Law and Economics) 제65권에 2021년 3월 출간될 예정입니다. 논문에서 램지어 교수가 주장한 내용을 보면, 당시 일본군 ‘위안부’가 된 여성들은 서로의 이익을 위해 ‘계약’을 맺은 것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는 경제학에서 말하는 ‘게임이론(Game Theory)’에 입각한 논리를 도입했고, 돈을 버는 여성의 목적이 모집업자와 일본군의 이해관계와 일치했기 때문에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게임이론’은 전쟁 당시 성노예 범죄를 분석하는데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게임이론은 당사자의 자유롭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내지 유효한 계약을 분석하는 도구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제도는 강압적으로 자행되고 국제관습법 상 허용되지 않는 성노예 제도이며 유효한 계약으로 볼 수 없음에도, 이 제도에 게임이론을 적용하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모욕이자 전쟁범죄에 대한 옹호입니다.

유효한 계약이란 의사표시의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하며, 내용이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소녀들의 성노예 계약 또한 기망이나 강박에 의한 하자있는 의사표시에 기한 것으로 애초에 무효입니다. 누가 과연 기망이나 강박 없이 자발적으로 자기 결정권을 박탈당하고, 이동의 자유가 제한된 채 전쟁터에 구속당할 것을 알고도 해당 계약에 동의할 수 있을까요?

고노담화를 통해서 일본 정부는 위안부 모집에 대해서는 군의 요청을 받은 업자가 주로 담당하였으나 그 경우도 감언이나 강압 등에 의한,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모집된 사례가 많음을 스스로 시인한 바 있습니다. 성노예 계약 내용 자체도 노예제도를 금지하는 국제관습법 위반으로 위법하며, 사회적 타당성을 잃어 무효입니다.

일본 정부의 조사에 따르면, 위안부들은 인격적 자유를 박탈당하고, 군대와 함께 군 기지 사이 이동을 강제당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부정당했으며, 무시무시한 규칙을 따르도록 강제당했습니다. 또한 위안부들의 성과 생식에 관한 건강이 장병들을 성병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소유물과 같이 취급당했음이 밝혀졌습니다.

“위안부”의 처우는 “노예제”와 “노예무역”이라는 말의 통상적인 용법 속에 들어간다. “위안부” 여성들은 “자유를 박탈당하고”,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모집”되었다. 나아가 일부 여성들은 매입되었고, 따라서 고전적인 노예제의 틀에 쉽게 들어맞는다. - 전시하 조직적 강간, 성노예제 및 그와 유사한 관행 - 맥두걸 유엔 인권 소위원회 특별보고관 보고서(1998)

이와 같이 국제사회에 명백히 밝혀진 사실을 무시하고, 위안부 제도를 전쟁 범죄 피해자 소녀들이 자발적 의사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계약’을 맺었음을 전제로 게임이론의 틀로 분석한 것은 성 노예 전쟁 범죄에 대한 옹호이며 피해자에 대한 명백한 모욕행위입니다.

과연 누가 노예무역 하에서 노예가 노예 상인과 자발적으로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유효한 노예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감히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램지어 교수의 무지에서 비롯되었거나 의도적인 묵인에서 비롯한 반인권적인 연구를 비판합니다.

우리는 램지어 교수가 일본 정부의 꼭두각시가 되어 일본의 침략과 가해 역사를 부정하는 연구를 한 것을 반성하고 스스로 철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인터내셔널 리뷰 오브 로 앤드 이코노믹스’(International Review of Law and Economics)가 램지어 교수의 논문 게재를 철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하버드 대학 로스쿨 학장과 하버드 대학 총장에 학자로서 윤리와 양심을 저버림으로서 하버드 로스쿨 명예를 훼손하는 램지어 교수를 징계할 것을 요구합니다.

마. 참고 자료

1 문헌

- 방지원, 『위안부 문제를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칠까?』, 생각비행, (2021)
- 김지민, 『그녀의 일생』, 서울, (2021)
- 서울대 인권센터 정진성 연구팀, 『끌려가다, 버려지다, 우리 앞에 서다』 1,2권, 푸른 역사, (2018)
- 박중현 외, 『일본군 위안부 바로알기(고등학생용)』, 여성가족부 발행, (2015)
- 정영환, 『누구를 위한 화해인가-제국의 위안부의 반 역사성』, 푸른역사, (2016)
- 한상욱 외, 『빼앗긴 나라, 잊혀진 존재』, 인천광역시, (2020)
- 이타가키 류타, 『‘위안부’ 문제와 식민지 지배 책임』, 삶창, (2016)
- 전쟁과 여성대상 폭력에 반대하는 연구행동센터, 『그들은 왜 일본군 위안부를 공격하는가』, 휴머니스트, (2014)

2 인터넷 자료

- 액티브 뮤지엄 ‘여성들의 전쟁과 평화 자료관’ 2019년 12월판 (<https://wam-peace.org/ianjo/map/>)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e-역사관 (<https://hermusseum.go.kr>)
- 동북아역사넷 (<https://contents.nahf.or.kr>)

3 기사 자료

- 국민일보. 2017.10.28. 박유하 ‘제국의 위안부’ 2심서 유죄… 이유는?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839081&code=11131900&cp=nv>)
- mbc뉴스. 2021.04.11. 제2, 제3의 램지어가 나올 수 있는 이유
(https://imnews.imbc.com/news/2021/world/article/6145901_34880.html)
- 경향신문. 2021.02.21. 램지어 ‘위안부=매춘부’ 논문 결함 최소 29건…“연구 진실성 심각한 위반” 비판 봇물
(<https://www.khan.co.kr/world/world-general/article/202102210823001>)
- 이지경제. 2022.08.02. 소녀상이 ‘국제망신’이라는 사람들
(<http://www.ezy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119588>)
- 연합뉴스. 2022.08.24. 일본 학자들도 ‘위안부’·‘강제’ 표현 빼고 교과서 왜곡
(<https://www.yna.co.kr/view/AKR20220824121000005?input=1195m>)

기획 이종태 인천광역시교육청 동아시아시민교육과 과장
장인숙 인천광역시교육청 동아시아시민교육과 평화공존교육팀 장학관
박정순 인천광역시교육청 동아시아시민교육과 평화공존교육팀 역사교육담당

집필위원 박희선 인천아라중학교
신희식 연평고등학교
오미영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
이은영 인천신현고등학교
정지숙 부개여자고등학교
조인규 연수여자고등학교
최선미 동인천고등학교
최은희 인천여자고등학교

세계속 한국사 바로 알리기 교수학습자료(고등학교) 인천 이야기를 역사수업에 담다

발행인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
발행일 2022년 12월
발행처 인천광역시교육청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9
기획 인천광역시교육청 동아시아시민교육과
저작권 인천광역시교육청
제작·디자인 베리즈코퍼레이션

본 교수학습자료는 학교교육을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교사와 학생의 수업 이외의 무단사용이나 복제 및 변형·배포를 금지합니다.

